Buddhanews.com

현대불교

제833호 2011년 4월 27일 수요일 (음력 3월 25일 · 불기 2555년 · 주간)

내 것이라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을 내어줄 때 온 세상을 얻는다.

- 순천 송광사 동당 법흥 스님





하이테크 뮤지컬 '원효' 개막 하이테크 뮤지컬 '원효'가 4월 22일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막을 올렸다. 뮤지컬 '원효'는 원효 대사와 요석 공주의 사랑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탄생시킨 공연이다. 주인공 원효 역에는 가수 이지훈과 뮤지컬 배우 서지훈이 더블 캐스팅 됐다. 요석 공주는 KBS 남자의 자격 '하모니' 편에 출연한 선우와 뮤지컬 배우 김아선이 출연한다. 사진은 4월 21일 프레스콜 공연에서 서지훈과 선우가 공연의 하이라이트를 시연하는 장면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MBC가 창사 50주년 특별기획으로 만든 이번 공연은 6월 12일까지 계속된다. **글=이은정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매일 8시간씩 2년 여 불사 회향

빠알리성전협회 회장 전재성 박사 '디가니까야' 완역



부처님의 전승된 가르침 가운데 가장 긴 크기의 경전을 모아놓은 경전모음집 〈디가니까야〉가 우리말로 번역돼 나왔다. 〈디가니까야〉는 빠알리대장경의 경장 가운데 처음 등장하는 중요한 경전이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 전재성 박사(사진)는 최근 〈디가니까야〉를 국내 최초로 완역 · 발간했다. 전재성 박사는 1560쪽의 방대한 분량에 3000여 개가 넘는 상세한 주석을 달아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한역경전에서 〈장아함경〉으로 알려진 초기 불교 경전인 〈디가니까야〉는 초기불교의 경전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율과 삼매와 지혜 즉, 계 · 정 · 혜 삼학의 논리에 따라 각각의 경들을 체계화시킨 경전이다. 〈디가니까야〉는 고타마 붓다의 열반 후 직속제자 500명이 칠엽굴에 모여서 경전을 결집할 때 가장 먼저 편집한 경전이기도 하다.

매일 8시간 씩 2년여에 걸쳐 번역작업에 몰두해 복원을 마친 전재성 박사는 "5월초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디가니까야〉의 1/3분량의 압축본을 발간할 예정"이라며 "발간 후 한글-빠알리어 사전편찬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불교계 외면에 외로운 '생협'

친환경공양미 사업 등 불자 참여 저조… 10년 째 성장 답보

생명평화와 우리 농업 발전에 대한 불교계의 낮은 인식이 생협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불교계 생협은 우리 농업을 살리고 도 · 농 교류와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불교계 생협 중 가장 일찍 활동을 시작은 인드라망생협은 2004년 경부터 친환경공양미 사업을 추진 중이다. 법당에 올리는 공양미를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된 쌀을 쓰자는 운동이다.

이를 통해 불교계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소비하고 생협에 대한 사찰과 불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시도였다.

그러나 봉은사, 화계사, 길상사 등 전국적으로 10여개 사찰이 인드라망생협과 협약을 맺는데 그쳤다. 사업 초기에는 여러 사찰들이 관심을 갖고 협약에 참여했으나 이마저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친환경공양미 사업은 현재 7곳의 사찰만이 지속적으로 참여 중이다.

또한 불교계 대표적 생협들의 회원수도 이웃 종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이웃 종교 생협 중 가장 활성화된 가톨릭의 경우 전국적으로 2만명의 조합원들이 생협의 가치를 이해하고 참여 중이다.

그러나 불교는 인드라망생협이 700여명, 대불청의 연꽃 생협이 340여명, 대전불교생협이 520여명 이다. 세 단체의 조합원을 모두 합쳐도 가톨릭 생협의 1/10 수준에 그친다.

종단에서는 올해 5대 결사 중 생명결사와 관련해 '유기농산물 생산자와 신도와의 적극적 연대 추진', '유기농산물 사용 적극 권장' 등을 실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06년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발표한 불교환경의제21에서도 '선농일치 이념 현실적 구현 방안 모색', '공양물은 유기농 또는 환경친화 생산물 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계획들은 문서 속에서만 잠자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천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생태생명이 미래 사회 최대 가치로 꼽히는 상황에서 각 지방마다 위치하고 있는 사찰들이 농촌과 연계하면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도 · 농 교류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생협의 취지는 온 우주가 한 몸, 한 생명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닿아 있다.

이처럼 생협 활동에 대한 교리적 근거가 충분함에도 스님과 불자들의 낮은 관심에 대해 불교계 생협 관계자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들은 제도적 지원책에 앞서 불교계 인식변화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정호 인드라망생협 이사는 "시중가격보다 다소 높아도 불교 생협의 가치와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생협은 현재 씨앗을 틔우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증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홍섭 대전생협운영위원장은 "생협은 연기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길이다. 특히 지역불교생협을 통해 지역의 불자들이 교류하면 불교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7면 **박기범 기자**

한나라당 180일 만에 조계종 찾아

한나라당 불자 국회의원, 조계사서 상생·화해 다짐 법회

한나라당 소속 불자 국회의원들이 4월 19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전통문화 수호와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과 화해의 다짐 법회'를 봉행했다.

한나라당불자회(회장 이인기 의원) 소속 국회의원들은 조계종의 정치인 신행차원 출입 허가 이후 처음으로 서울 조계사에서 법회를 봉행했다. 지난 12월 8일 템플스테이 예산을 비롯한 전통문화 예산 삭감을 포함한 예산안의 국회 날치기 통과 이후 130일 만이다.

이날 법회는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이 조계사에 제안해 조계사가 '개인 신행활동'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법회에는 한나라당불자회장 이인기 의원과 전 회장 이해봉 의원, 김무성 원내총무, 김학송, 조윤선, 이한성, 장윤석, 강길부, 강석천, 정태호, 안홍준, 조문환, 서병수 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4월 초 정부 여당 인사 출입을 거부하는 현수막과 게시물을 제거하는 등 입장변화를 보인 바 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외부 일정을 이유로 한나라당 의원들과는 만나지 않았다. **노덕현 기자**

관련기사 2면

대만불교 통해 한국불교 진단한다

불광연구원, 30일 학술연찬회

대만 사회에서 사회 리더로 언론 문화 포교 복지 등 각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대만불교를 살펴보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진단하는 학술연찬회가 열린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4월 30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대만불교의 실천이념과 운영시스템'을 주제로 제1차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제1차 연찬회에서는 대만불교의 역사와 계율정신, 운영시스템과 사회활동을 살펴본다. 행사에서는 양정연 동국대 교수가 주제발표 '대만불교의 성장 과정과 특징'을, 김호성 동국대 교수가 '대만불교의 실천이념에 대한 고찰'을 발표한다.

이어 서대원 충남대 연구교수는 '대만불자의 계율정신과 윤리의식'을,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대만 사찰의 재정 운영체계 및 불사 추진양태 연구'를, 박인석 동국대 연구교수는 '대만불교의 사회활동'을 주제발표한다.

불광연구원은 9월 10일 '대만불교의 인적구성과 리더십의 원천'을 주제로 제2차 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한땀한땀 정성으로"

종무원 조합 여성부, 나눔실천



"친목 도모를 위한 활동이 나눔으로 이어져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조계종 종무원조합 여성부는 나눔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장혜정 조계종 종무원조합 여성부 부장(사진)은 올해 초 친목 도모를 위해 뜨개질 강좌를 마련했다. 여성 종무원들이 함께 뜨개질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자리였다.

"뜨개질이 완성되자 친목활동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의미를 확대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뜨개질 한 것을 주변에 선물하고 그를 통해 모연을 하게 된 거죠."

여성부는 이렇게 모연된 성금 33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일상 속에서의 작은 활동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여성 종무원들의 마음은 뿌듯하기만 했다. 모연된 성금을 나눔활동에 쓰기로 하자 여성부 종무원들은 더 열심히 뜨개질에 몰입했다. 동행은 이렇게 마련된 성금을 성북구에 위치한 미혼모시설 '달빛둥지'에 전달할 계획이다.

장혜정 부장은 "이번 활동으로 취미나 친목 도모를 통해서도 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833호 CONTENTS

도법 스님, 한나라당불자회 법문 2



32면 증면 본지에 바란다 조계종 미디어 특보 장적 스님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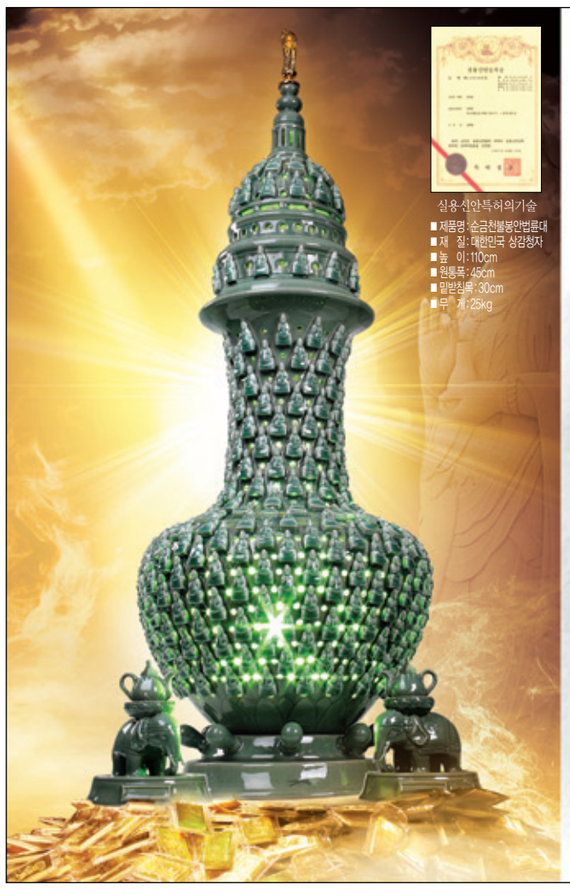


봉축 특집 미리 가본 연등회 11



능인향당
능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장물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본사 02-3663-6777 www.nihwa.com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대한민국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사찰경제 바꾼다!!!

부처님이 봉안된 법륜대 만년등으로 활기...

법륜대 특징

1. 수미단에 천불보탑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빚 해탈을 위한 황금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법륜대입니다.
3. 가족의 소망을 적어넣고 직접 돌리는 신비한 법륜대입니다.

** 좌우 상감청자 코끼리에 새길 설판자 명단을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 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국민 앞에 무릎 꿇으라

도법 스님, 조계사 찾은 한나라당 불자 국회의원에 쓴소리



"조계종과 현 정부가 불편하게 된 데는 서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나아가 정부와 여당은 여당대로 조계종은 조계종단 대로 자기가 가야할 길을 제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자정과 쇄신을 원한다면 조계사나 조계종단을 찾아올 일이 아니라 국민을 찾아가라. 조계사 법당에 와서 무릎 꿇고 절할 일이 아니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절하라."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이 조계사를 찾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조계사 참배가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국민과 민족문화를 위한 본연의 역할에 매진하라며 일갈했다.

도법 스님은 이날 법회를 올리기 위해 조계사를 찾은 국회의원들에게 "정부와 여당이 불교에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교미래사회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듯 불교계가 이익집단화 되고 있다는 국민인식 변화와 함께 자칫 이번 참배로 불교계와 정부 여당이 양측의 이익을 위해 합의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보다 당당해질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런 악역을 또 맡게 됐다"고 말문을 뗀 스님은 이날 법문 내내 조계종단과 정부와 여당 모두의 각각 부처님 정신, 헌법 정신에 따른 각성을 주문했다.

도법 스님은 "조계종은 대통령이나 정부나 여당이 아닌 국민을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길을 갔다면 냉소·불신 받는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만들어 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또 대통령, 정부, 여당도 헌법정신에 따라 국민을 잘 모시고 섬겼다면 정부여당과 조계종단의 그런 부적절한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불편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특히 조계종단에 대해서는 진정한 자성과 쇄신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스님은 "우리 문화를 발전·승화시키는 일이 불교를 위한 일이 아니다"며 "불교계와 조계종단은 우리 민족문화를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문제의식을 버려야 하며 그로 인해 특정종교에 특별한 지원·혜택을 주는 것처럼 문제가 다뤄진다면 그야 말로 대단한 어리석음"이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자성과 쇄신을 제대로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며 "정부여당과 불교계와 조계종단은 국민을 주인으로, 시민을 부처님으로 모시기 위해 바람직한 협력과 긴장관계를 균형있게 유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스님은 "국민들의 이익과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보무당당하게 나서시기 바란다. 그래야만 오늘 이 자리가 진정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국회의원 막은 청년불자 대불청 정 우 식 회장



4월 19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조계사 참배를 앞두고 청년불자들이 조계사 사문을 막아 화제다.

조계사를 찾은 20여 명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대한불교청년회 정우식 회장이었다.

지난 4월 초 조계종 총무원의 신행차원의 정부 및 여당인사 출입 허가에 대해 침묵시위를 벌이던 정우식 회장은 이날 "청년불자로서 오늘 법회를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들의 앞길을 막아섰다.

정우식 대불청 회장은 "12월 8일 이후 4개월간 정부여당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보여준 진정성 있는 활동이 있지 않았다"며 "이번 참회에는 박수를 치지만 불자의 원이라면 그것을 넘어서 더 책임성 있는 의무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진정한 참회와 반성의 태도 없이 일회성 행사로 조계사를 찾아 기도올리는 것은 불자들을 우롱하는 일이란 것이다.

이런 반발에 대해 이날 김학송 의원은 "부처님 앞에 오는 데 누가 막느냐?"며 반말로 맞받았고, 이에 정 회장은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이다. 청년불자로 이 법회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해 양측은 충돌 일보직전까지 갔다.

국회정각회장인 최병국 의원이 이에 김의원에게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려, 더 이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법회 이후 조계사에서 기도를 올리던 노보살들도 국회의원들을 향해 "진심으로 참회하라"며 경책했다. 노덕현 기자

이나은 기자의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처음부터 현수막 걸지나 말지"

한나라당 의원들이 4월 19일 오전 '상생과 화해'를 위해 조계사 법회를 봉행한 가운데,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이번 정부여당의 조계사 방문에 대한 조계종의 대응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할 거면 처음부터 '여당 인사 사찰 출입 금지' 현수막 걸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속된 말로 '배알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니, 불교계를 얕볼 수 밖에 없지요.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어 보인다고"고 비난했다.

조계종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도 보인다. K씨는 "조계종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지금 조계종은 잘못된 가르침에 길들여져 있다. 선종과 통불교를 지향한다면서 정작 상좌불교를 소승불교로 폄하하거나 일부는 시주금만 얻어먹는 편협한 경향이 길들여져 있다. 그러고도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대표하는 종단이라고 말한다. 차라리 정통보다는 새 것이 훨씬 낫다"고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정부 여당이 무릎 꿇을 일이 아니고, 조계종 집행부가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조선왕실의궤, 6월에 돌아온다

5월 14일 반환기한…일본 지진으로 늦춰져

일본 궁내청이 소장한 조선왕실의궤가 이르면 6월 국내로 돌아오게 된다.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공동대표 김의정, 이하 환수위원회)는 "조선왕실의궤(일본 궁내청 소장) 반환과 관련한 일본 국회(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4월 22일 비준심사가 있다. 이르면 6월 한국으로 반환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일본 국회의 비준심사와 관련해 환수위원회 운영위원장 법상 스님(운흥사 주지), 사무처장 혜문 스님, 이상근 실행위원장(중앙신도회 사무총장)이 일본 국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이다.

일본 간 총리는 2010년 8월 10일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 담화문을 통해 조선왕실의궤 반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같은 해 11월 14일 한·일 정상이 조선왕실의궤 등 도서 1205책의 반환협정을 통해 6개월 이내 반환을 약속했다.

조동섭 기자

"정치권 변화 조짐 보인다" 자승 스님, 교구본사주지회의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정치권의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며 정부·여당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문화재에 대한 인식 전환에 대한 진실성과 책임성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해 정부·여당의 더 많은 변화를 촉구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회의 인사말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

자승 스님이 정치권의 변화로 지적한 것은 한나라당이 최근 구성한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와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의 발언이다.

자승 스님은 "정부의 이 같은 변화는 전국 교구본·말사가 단일된 모습과 한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핵심과제 대체로 '원활'

총무원 기획실 자체평가, 9개 과제는 '미진'

조계종 제33대 집행부가 추진 중인 26개 핵심·주요과제가 자체평가 결과, 14개 과제가 '원활'을, 3개 과제가 '보통'을, 9개 과제가 '미진' 평가를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4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핵심·주요과제 1/4분기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평가는 총무원 기획실이 수행했다.

평가 결과, 9개 핵심과제 중 △승가복지 △불교규제법령 폐지·개정 △한국불교 세계화 △승가교육 △지역포교 활성화 △사회문제의 불교적 대안 창출 등 6개가 '원활' 평가를 받았다.

△사회적 공동선 실현은 '보통' △종단재정구조 다변화 △전통문화정책 수립은 '미진' 판정을 받았다.



조계종 기획실장 정만 스님은 "기관별로는 총무원 부서별 추진과제들이 교육원, 국제선센터 등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민족문화수호활동에 총무원의 역량이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자승 스님 승적위조 무혐의 "수계일, 종단 적법절차 따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승적 위조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승적부 위·변조 의혹과 업무방행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자승 스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4월 17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3월 31일 고발인 성호 스님(속명 정한영)의 항고를 수용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서 재수사해 왔다.

검찰은 자승 스님의 승적부 사본과 다른 후보자의 이력서 등을 추가 확보해 재조사한 결과, 수계일이 종단의 적법절차에 따라 정정됐다며 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박구원 만평





"포교지로서의 정진 계속해 달라"

조계종 미디어특보 장 적 스님… 32면 증면한 본지에 조언



"현대불교신문이 불자들의 신행활동의 변화에 길잡이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신행 · 수행은 이 시대 불교가 나가야할 방향이다. 불교계의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깊이 있는 시각, 균형감 있는 기사 등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다해달라."

본지의 32면 증면(제830호, 2011년 4월 6일자)과 관련해, 조계종 미디어특보 장적 스님이 증면을 계기로 신행 · 수행을 통한 포교지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본지가 창간된 1994년에는 5~6개에 이르는 불교계 신문이 있었다. 장적 스님은 본지를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를 창간 정신으로 종단에 대한 대소사보다는 신도들의 마음공부에 관계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루며 불교계 언론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매체로 기억했다.

장적 스님은 "현대불교신문은 여전히 신행과 수행을 통한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며, 신행과 수행적 측면에서 역할이 상당하다"며 "불교 포교지로서의 역할에 매진해 달라. 신행 · 수행은 현대인들의 시대적 요청이다"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본지에 게재되는 종단 관련 정치 기사에는 균형과 깊이 있는 시각을 주문했다.

장적 스님은 "조계종 주요 종책 및 정치적인 기사에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균형감 있는 보도와 깊이 있는 시각의 비판과 견제를 담은 내용이 요구된다"며 "최근 현대불교신문의 보도는 신행과 수행, 포교에 대한 기사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적 스님은 "최근 현대불교신문의 종단 관련 기사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 같다"며 "종단 관련 비판 글이 나가면 그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시각의 글을 게재해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현대불교신문이 여러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기자들이 열심히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과거에 의지했던 의지처(한마음선원)가 없어서 더욱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도 들었다"고 말했다.

장적 스님은 "현대불교신문의 기자들이 젊어 종단사안과 관련한 선배들의 조언이 없는 것으로 안다. 때문에 사안에 대한 기자의 깊은 생각이 부족할 수가 있는 것은 단점이면서도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스님은 "증면과 독자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독자확보 비법은 불교언론으로서 기본에 충실해야한다. 항상 부처님 말씀을 담는 포교지임을 잊지 말아 달라"는 당부를 아끼지 않았다.

이상언 기자

세상 맑히는 수정주 역할하길

포교원장 혜 총 스님 등 독자 바람

본지는 4월 6일자 제830호 신문부터 28면에서 32면으로 증면 발행을 시작했다. 증면을 통해 바른 시각으로 불교계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차별화된 기획기사를 대폭 강화했다. 또한 풍성한 읽을거리와 알찬 정보제공의 일환으로 제따와나 방배선원 일묵 스님의 '위빠사나 수행이야기', 통도사 정도 스님의 '삼소굴의 향성', 동화사 지철 스님의 '도상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최동순 연구교수의 '구술로 푼 한국불교인물사' 등을 새롭게 연재하고 있다. 이나은 · 이은정 기자

"혼탁한 세상 맑히는 수정주같은 신문되길"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불교계 신문은 물을 맑히는 수정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세상을 올바르게 본 것을 수정주에 담아서 독자들을 위한 유익한 신문으로 거듭나야 한다. 불교계 언론은 1~3종합면을 종단기사 등을 포함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시끄럽고 부정적인 내용은 일간지에 맡기고, 현대불교신문은 부처님과 스님의 법문과 명사들의 말씀을 싣는 신문이 돼야한다. 요즘에는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대세이다."

"신행 · 수행 관련 기사 늘었으면"
-태고종 법현 스님

"솔직히 32면으로 증면됐다는 느낌은 잘 못 받았다.

평소 '윤창화의 선원총림을 가다'를 즐겨 읽고 있다.

개인 신행활동이나, 수행 관련 기사가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사회 시사 및 유명 인사 덕담도 실었으면"
-김희진(경기도 고양)

"현대불교신문이 불교전문지라 할지라도 다양한 사회 시사 및 유명 인사들에 관한 덕담을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감동을 줄 수 있는 말들은 불교적 색채가 굳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한번 쯤 다뤄주길 바란다."

"32면 증면 긍정적이다"
-김옥자(경기도 광명시)

"기자분들이 신문에 변화를 주기 위해 많이 애쓰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 32면으로 증면된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가끔 점술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광고는 신문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끼친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

"산사, 환경 등 연재기사 실었으면"
-김용호(서울 둔촌동)

"신문을 정독하는 타입이 아니어서 그런지 32면으로 늘어난 지 잘 몰랐다. 그래도 대행 스님의 법문만은 꼭 챙겨 보고 있다. 예전에 산사 환경에 대한 연재기사를 재밌게 읽었다. 산사 · 환경과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독자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본지는 창간 이래 사시인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구현하는데 힘써왔습니다. 이는 편집국 구성원 각자가 불자로서의 바른 눈, 지혜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지는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길을 묻는 이에게'를 비롯해 '선지식을 찾아서' '법향을 찾아서' '함께가요 강의실' 등 코너를 통해 여러 선지식 · 전문가의 법문과 강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불교문화 부문을 강화해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지철스님의 도상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윤상민의 서화산책' '한국의 선시감상' 등을 연재 중입니다.

또, 현각 스님의 '선심으로 만나는 세상',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정도 스님의 '삼소굴의 향성', 일묵 스님의 '위빠사나 수행이야기', 변택주의 '법정 스님과 만난 사람들' 윤창화의 '선원 총림을 가다', 정찬주의 '행복한 선 여행', 임연태의 '감성으로 가는 부도밭 기행', 최동순 교수의 '한국구술인물사', 고지연의 '수리아의 검' 등이 본지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본지의 연재물과 기사들은 모두 사시 구현의 방편입니다. 이를 통해 독자제위께는 올바른 신행생활을 돕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독자제위께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혜총 · 장적 스님의 말씀을 수용해 100자 뉴스 등을 강화해 불교계의 작은 소식도 공정하고 소중히 다루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법현 스님과 김희진 · 김옥자 · 김용호 독자 외 의견 주신 많은 분들의 바람이 외고와 기사에 녹아들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본지는 언론 본연의 비판과 견제, 감시의 기능과 불교 전문지로서의 신행 · 수행 기사의 균형 있는 게재에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독자제위께 세상을 바로 보는 지혜의 눈, 신행생활을 돕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지는 앞으로도 불교계의 소외되고 부족한 곳과 사람에게는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갖는 보살의 역할, 권력 등이 넘치는 곳과 사람에게는 차가운 이성으로 견제하는 호법신장의 역할을 다할 것을 독자제위께 다짐합니다. 현대불교신문 편집국 일동

단독 보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나님 찬양을?

공공문화강좌서 기독교 무용 파문

공공기관 문화강좌에서 특정종교의 선교무용 프로그램이 운영돼 종교자유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서울 지역 각 동 주민자치센터 강좌에서 선교무용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동구, 강동구, 동작구, 중랑구 등 네 곳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주민들에게 일정액의 수강료를 받고 선교무용을 교육하고 있다. 선교무용은 기독교 문화 선교법으로 찬송가에 맞춰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프로그램이다.

성북구는 성내 2동 주민센터에서 2003년 하반기부터 매주 금요일 선교무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강동구도 구민회관에서 매주 화 · 금요일 선교무용을 운영중이다. 강동구는 구민회관에서 10년 이상 한국무용을 지도하던 강사가 선교무용 개설을 제안하면서 2008년부터 실시됐다. 동작구와 중랑구도 주민자치센터에서 동호회 프로그램으로 편성, 연습 공간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

선교무용은 교육을 위해 자연스럽게 기독교 음악이 사용된다.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방문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다른 종교를 가진 주민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독교 음악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각 기관 담당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종교적 색채가 있다면 종교자유의 침해로 볼 수 있다. 장소만 대여하는 경우, 종교 단체가 임대료를 내고 빌리는 것,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종자연은 또 "각 기관에 정교분리에 대한 질의, 관리감독 책임 공문 발송을 계획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상언 기자

국군체육부대 부지서 금동불상 7점 출토

영남문화재硏, 통일신라시대 조성 추정



영남문화재연구원(원장 이희준)은 "문경 국군체육부대 이전부지 내 유적을 조사한 결과, '전 오정사지(傳 烏井寺址)' 및 '광림사(廣林寺)'로 추정되는 적심건물지 9동, 축대시설 6기, 부속시설 8기 등이 확인되었고, 금동불상 7점(사진), 명문기와 등이 출토됐다"고 4월 21일 발표했다.

연구원은 "적심건물지 1~4호부에서 '광림사부(廣林寺付)'라 적힌 기와가 다수 확인되고, 건물지의 층위양상과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상 등이 출토됐다"며 "추정 '광림사'는 조선시대 조성된 '전 오정사지' 이전에 통일신라시대 후기부터 고려시대 중(후)기까지 조성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계는 이번에 적심건물지 2호(추정 광림사의 대웅전터) 내부에서 출토된 금동여래입상과 금동보살입상 등 금동불상 7점은 한국 불교 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동섭 기자

[현대불교신문사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금은 양곤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종합대학교 건립, 식수부족 공동우물 파기, 신뿌출가의식, 불자어린이 학용품 지원 등으로 전달되며 봉사단 현지 방문에 맞춰 후원물품도 직접 전달됩니다. 담당자 안내를 받으신 후 후원금 입금과 후원물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내역을 지정하실 수 있으며 봉사단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02)733-5670 / 현대불교신문 02)2004-8214
후원금 입금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로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YeonDeungHoe 燃 燈 會



연등회 연등축제

불기 2555(2011)년 5월 6일(금) ~ 8일(일)

5월 6일(금) 전통등 전시회

5월 7일(토) 어울림마당 연등행렬 회향한마당

5월 8일(일) 불교문화마당 공연마당 연등놀이

봉축위원회

일 주 문



제9회 한국선다회 다맥전수 대법회
한국선다회 이사장 고산 스님은 5월 7일 하동 쌍계사에서 제9회 한국선다회 다맥(茶脈)전수 대법회 및 육조 · 진감 · 초의선사 108 헌다례를 봉행한다.



대한불교진흥원 무비 스님 초청 법회
무비 스님은 4월 27일 대한불교진흥원이 불교방송 3층 법당 다보원에서 개최하는 다보법회에서 법문한다.



원효학연구원 원효성사 제향대재
원효학연구원 이사장 성타 스님(경주 불국사 주지)은 5월 1일 경주 분황사에서 1325주기 원효성사 제향대재를 봉행한다.



선운사 1000일 기도 입재
고창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4월 17일 1000일 기도에 입재했다. 1차 회향일은 7월 25일 이다.



대흥사 제17회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해남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은 4월 28일 대흥사 경내에서 제17회 나라사랑 글짓기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조계사 작은음악회 '가피'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4월 21, 22, 28, 29일 조계사 경내에서 남양유업과 함께 작은음악회 '가피'를 개최한다.



법안 스님 인권정책연구소 이사
불교사회연구소 소장 법안 스님은 4월 29일 출범하는 인권정책연구소 이사로 참여한다.



제1회 세계불교문화올림픽 개최
세계불교문화올림픽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능인 스님은 네팔관광부와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룸비니에서 제1회 세계불교문화올림픽을 개최한다.



불교상담개발원 11주년 기념법회
불교상담개발원장 담교 스님은 4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1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737-7378



강선희 명상교실 6기 모집
강선희 중앙신도회 교육위원은 5월 13일~7월 15일 매주 금요일 불교인재원에서 진행하는 '강선희 명상교실' 6기를 모집한다. (02)735-2428

2011년 불자대상

김혜옥, 방귀희, 이기흥, 이수근, 김상기, 故 앙드레 김 선정


김혜옥


방귀희


이기흥


이수근


김상기


故 앙드레 김

조계종 불자대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4월 18일 '불기 2555년 불자대상' 수상자로 배우 김혜옥, 솟대문학 발행인 방귀희, 체육인불자연합회 회장 이기흥, 방송인 이수근, 육군참모총장 김상기, 패션디자이너 故앙드레 김을 선정했다.

김혜옥 불자는 우수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 최고의 연기자로 인정받으며 방송과 영화를 통해 불법홍포에 앞장서 왔다. 불교방송 '아름다운 초대' 메인 MC로 6년간 꾸준히 활동하며 늘 정진하고 수행하는 자세로 불법홍포에 앞장서 후배 배우들에게 귀감이 됐다는 평이다.

방귀희 불자는 동국대 불교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불자 장애인으로서 우리나라 유일 장애인 문예지 〈솟대문학〉을 20년간 발행해 장애인 문학의 지평을 열어 왔다. 또, 전문방송가 및 작가로 활동하며 불교의 인간존엄과 평등의 사상을 실천한 공로가 인정됐다.

이기흥 불자는 체육인불자연합회를 창립하고 태릉선수촌과 올림픽공원에 법당을 개원하는 등 불자 체육인들의 신행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불자대상 선정위원회는 "불자 체육인들의 심신의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바탕으로 지도해 온 결과 2010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선수단장으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쾌거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수근 불자는 젊고 성실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으면서도 불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소신 있게 불교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연예인 불자이다. 대중 연예인으로서 조계종 신도증 모델로 활동하는 등 적극적 신행활동을 바탕으로 불교 대중화에 이바지해왔다.

김상기 불자는 육군참모총장으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군인의 책무를 다하며 모범적인 신행활동으로 군 포교활동을 선도해왔다. 또한 주요 부대 지휘관을 역임하면서 군내 종교시설 개선에 주력하는 등 젊고 패기 있는 군인불자들에게 불법을 전하는데 앞장서 왔다.

故 앙드레 김 불자는 생전에 한국 패션계를 선도하는 디자이너로 존경받았다. 자신의 작품에 불상을 그려 불교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등 조용하지만 심지 굳은 불자로 활동했다.

불자대상 선정위원회는 "금년도 불자대상은 방송, 복지, 체육, 군 포교, 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년에 비해 그 인원이 증가했다. 앞으로도 불자대상 선정에 있어 지속적으로 분야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자대상"은 불법홍포에 공로가 큰 불자와 한국불교 위상제고에 공로가 큰 불자, 불자의 자긍심 고취에 공로가 큰 불자, 종단 발전과 홍보에 공로가 큰 불자, 국가 및 사회발전에 공로가 큰 불자로 선정을 선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가 여덟 번째이다.

불자대상 시상식은 오는 5월 10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진행된다.

조동섭 기자

"삼오 모텔, 법당 리모델링에 최선"

제20대 조계사 신도회 지 승 동 신임 회장



"우리 사회는 다문화 · 다종교 사회로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조계사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0대 조계사 신도회 회장으로 지승동 대명종합건설 회장이 취임했다. 지 회장은 현재 대명종합건설 회장, 태신개발주식회사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중앙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조계사는 4월 17일 대웅전에서 법회국장 법공 스님의 진행으로 제20대 신도회장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 날 지승동 회장은 취임법회에서 조계사의 발전이 종단과 한국 불교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신도회장으로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지 회장은 또 부처님 오신날과 도심포교 100주년 행사 등 큰 행사를 앞둔 상황에서 신도회장을 맡아 책임이 무겁다며 많은 신도들의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

"한국불교의 총본산인 조계사의 신도회장 소임을 맡겨주신 토진 주지스님과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계사가 더욱 밝은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획들을 추진할 것 입니다."

조계사는 삼오 모텔서 조계사 대웅전 부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2층에 장년층 법당을 건립하고 지하에는 어린이 법당 건립을 추진 중이다.

또한 불자들의 이용편의 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한 만발식당 리모델링도 계획 중이다. 지승동 회장은 조계사와 협력해 20대 신도회에서 이 사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계사는 성역화 불사의 일환이었던 삼오모텔 인수를 마치고 3월 7일 인수식을 가졌다. 수행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던 조계사는 앞으로 삼오모텔을 '도심포교 100주년 기념관'으로 활용하며 신도들의 수행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인수식에는 조계사 스님과 신도들이 참석해 조계사의 발전을 기원했다.

지 회장은 또 종단이 수행, 문화, 생명, 나눔, 평화 등 5대 결사를 통해 자성과 쇄신을 다하고 있다며 조계사 신도회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사 경내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기도하고, 수행하며, 마음의 평온을 찾아갈 수 있는 따뜻한 사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기범 기자

대구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식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대구 도심에 설치된 봉축탑이 불을 밝혔다.

대구봉축위원회(봉축위원장 성문, 동화사 주지)는 4월 16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공원에서 봉축탑 점등식을 갖고 부처님오신날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 날 봉축위원장 성문 스님(동화사 주지)은 "부처님의 신묘한 등불이 모두의 가슴 속에 점등돼 평화와 깨달음, 자비의 등불이 피어나길 발원한다"고 밝혔다.

천태종 대구 대성사 주지 도산 스님은 "자비와 광명으로 나투신 부처님의 고귀한 가르침을 받들어 대자대비를 실천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불을 밝힌 봉축탑에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스코트 '살비'와 육상을 하는 '동자승' 모습의 조형물이 설치돼 1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한편 점등식에는 성문 스님을 비롯한 대구지역 불교종단 대표자들과 김연창 대구시 부시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구 백화점 앞 야외무대까지 행진을 펼쳤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인천 황룡사 백옥대불 점안

인천 황룡사(주지 덕해)는 4월 18일 남북평화통일기원 백옥석가모니부처님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서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뛰어난 공덕을 지은 시방의 불자들이여 이제 거룩한 불사를 널리 회향하니 모든 중생 일승의 가르침에 들어 다함께 성불하여지이다. 계양산하 상서로운 복상지에 백옥의 부처님 나투시니 천태 도량 황룡사에 가피 가득하구나. 신통자재 찬탄하며 머리 숙여 귀의하여라"라고 법어를 내렸다.



황룡사 주지 덕해 스님은 봉행사에서 "남북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황룡사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애국도량이 되겠다"고 말했다.

백옥석가모니부처님은 좌대 2m, 불상 5m 등 총 7m 규모이다.

조동섭 기자

성훈따주기 강좌

1 1박 2일 강좌 (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① 일 정 : 2011. 4. 30(토) 오후 1시부터 ~ 5. 1(일) 오후 6시까지
  ② 수강료 : 10만원 (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 (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 (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 (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한국전통따주기공덕회

아름다운 이별여행 준비를 위한
제7기 호스피스 수강생 모집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정작 우리의 현대교육은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준비교육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각 전문분야의 최고의 강사진(대학 교수, 의료진, 현장전문가 등)을 모시고,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불교호스피스봉사자를 양성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 개강일자 : 2011년 4월 19일(화요일)
- 교육기간 : 2011년 4월 19일 ~ 8월 30일 (총20회) 매주 화요일
- 시 간 : 오후 7시 ~ 9시까지
- 장 소 :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 6층 강의실
- 수 강 료 : 15만원
- 문의전화 : 313-3060 / 010-2031-1233
  010-8293-3294 (담당 : 황경자)
- 협 찬 : BTN

대한불교 조계종
수 효 사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엠프 소리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ital Echo

• 고음질 무선마이크


고장난 마이크 완벽하게 수리해 드립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 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 일반 마이크 V-606LC

◇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 가격 : 135,000원 (일반형)
175,000원 (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삶의 주인이 돼라

정토회, 법륜 스님 2030청춘멘토링 '방황해도 괜찮아' …마지막 강의 '성공'

억대 연봉, 고급 승용차, 넓은 평수의 아파트…. 누구나 바라는 부의 기준이며, 성공의 척도이기도 하다. 허나 이러한 것들을 다 이뤘다고 해서 삶이 행복할까?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일지라도 자신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성공했다 말할 수 없다. 성공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진정한 성공이고, 성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걸까? 법륜 스님의 2030청춘멘토링 '방황해도 괜찮아' 마지막 강좌가 열렸다. 법륜 스님은 4월 21일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에서 '성공' 을 주제로, 젊은이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헤쳐 나가야할지에 대해 조언했다.

성공이 무엇입니까

Q: 27세 미혼 남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의 기준이 좋은 직업과 풍부한 돈벌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전에는 제 나이가 서른이 되면 연봉 3000만원이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꿈은 더 커져만 갔고, 1년 전에는 세무사가 되기 위해 준비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세무사 준비도 하지 않고, 그 보다 더 높은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저는 성공의 기준을 '시험 합격' 으로 잡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진짜 성공인지 궁금합니다.

A: 어린 아이들한테 "넌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니?"하고 물으면, "공부 잘하는 거요"라고 대답합니다. "공부 잘해서 뭐가 되고 싶니?"하고 물으면 "좋은 학교 갈라고요"말합니다. "좋은 학교 가서 뭐 할려고?"하고 또 물으면, "좋은데 취직 할려고요"라고 답합니다. "좋은데 취직해서는 뭐 할건데?"라고 다시 물으면, "좋은 집 사려고요"라고 말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성공은 왜 하고 싶은 겁니까? 돈은 벌어서 뭐 할라고 합니까? 큰 집에 살면 뭐가 좋습니까? 큰 집은 청소만 하기 힘듭니다. 남한테 과시하는 게 좋아서 그러는 겁니까? 남한테 과시하는 게 뭐가 그리 좋은 일입니까. 만약 시험을 준비하다 시험에 떨어지면 그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처음 시험에 떨어질 때는 오기로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야 있겠지만, 두 번 세 번 계속 떨어지면 그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평생 시험 준비만 하다 인생을 끝마칠 겁니까? 취직해서 돈 버는 것도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이면 평생 시험만 준비하다 결국 행복의 맛도 못보고 죽는 겁니다. 인생은 무엇을 향해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왜 일을 하는가? 왜 이 일이 좋은가? 이렇게 도전하면 어떤 상태에 도달하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걸림이 없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부를 한다면 공부하는 자체가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에 합격한 것은 행복해 하면서 공부하는 건 괴로워합니다. 마치 산을 오를 때, 산을 오르는 건 힘들어 하면서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만 좋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산 정상만 보고 싶으면 헬리콥터나 케이블카를 타지 힘들게 걸어서 왜 올라갑니까? 등산은 중간만 갔다 왔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등산은 그자체로 한 만큼 좋은 겁니다. 조금 걷다 내려와도 운동을 했으니 몸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삶은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과정 없이 결과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괴로운 것도 합격에 대한 즐거움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 아무리 합격기도를 올려봐야, 공부는 하나도 안하고 기도만 열심히 했다고 부처님께서 시험에 합격시켜 주실 거 같습니까? 그건 부정입학입니다. 부처님을 부정합격 시키는 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 집중력 있으면 성공하기 마련
>
> 자신이 놓인 상황에서 주인돼야

시험을 왜 봅니까? 시험은 그 분야에 능력이 아직 부족하고 좀 더 전문적으로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시험에 합격되면 '이제는 내가 이 일을 할 자격이 되는 구나' 라고 생각하고, 떨어지면 '아직은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10번을 해도 안 되면 그땐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딱 접으세요. 합격을 하기 위해 목숨 걸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시간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공부하던 게 억울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지식은 내가 살아가면서 간접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공부는 정말 원하고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진정한 공부입니다.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를 하는 것이고, 판·검사는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을 보살펴 주기 위해 판·검사가 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중세에는 농노가 있었습니다. 자본시대에는 노동자가 생겼습니다. 노동자는 돈의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와 노동자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노동과 놀이는 같은 행위이지만, 돈을 받으면 노동이 되고 주면 놀이가 됩니다. 노동을 놀이화하면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고 즐겁게 여기십시오. 친구를 만나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실 때에도 공부가 하고 싶어 미칠 만큼 재밌어야 합니다. 만약 열심히 공부를 하다 하기가 싫어지면 그땐 미련 없이 공부를 하지 마십시오.

삶의 주인이 돼라

Q: 저는 미술전공을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예술가로 계속 살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습니다. 예술가로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예술은 성공이 없습니다. 글을 쓰고 싶으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 적은 사람이 공감하면 실패가 되고, 많은 사람이 공감하면 성공이 됩니다. 이는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다수고, 소수인 차이 뿐입니다. 예술에는 성공도 실패도 없습니다.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면 그 뿐입니다.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할까 고민할 일도 없습니다. 그림이 좋으면 밤낮 가리지 말고 그냥 그림을 그리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그림도 베껴가면서 닥치는 대로 그리십시오. 계속 모방을 하다 어느 순간 틀리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그리다 보면 스스로 또 무언가를 창조해 내게 됩니다. 그렇게 혼신을 다해 그림을 그리고 나면 평가는 역사가 하는 겁니다. 본인이 미리 자신의 작품을 두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지만, 좋다 나쁘다고 평가하는 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좋으면 내 강의가 좋았던 거고, 듣기 별로였다면 내 강의는 별로였던 겁니다. 강의를 들을 때 '돈도 안 드는 강의를 들었는데, 스님의 이런 말씀들을 들으니 나에게 도움이 되는 구나' 라고 생각하면 바로 여러분이 이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항상 자신이 놓인 상황에서 주인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젊습니다. 그러니 일단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생각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잘못했으면 바로 사과하고 모르면 물으면 됩니다. 그러다 아니다 싶으면 관두십시오. 그렇게 자꾸 도전하고 실패하면 고치고, 또 다시 도전하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성공하기 위해 연구하게 됩니다. 연구하면 삶이 적극적이게 됩니다. 가능하면 늘 새로운 거에 도전해 보십시오.





단순히 돈벌이로 여겨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을 벌기위해 그림을 그리면 진정한 예술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예술에는 자긍심이 있어야 합니다. 혼이 담긴 작품은 몇 백 년이 지나도 언젠가는 인정을 받게 돼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십시오.

도전해라, 그리고 혼신을 다해라

Q: 저는 사범대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 사범대에 들어갔고 졸업한 후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임용고시 합격이 성공이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제 자신이 진정으로 선생님이 될 사람인지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공부를 중단하고 제 진로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A: 현재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에는 점점 더 선생님이란 직업을 갖기가 힘들어 질 겁니다. 일단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1~2년 정도를 정말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해 공부를 해보십시오. 나중에 시험에 떨어진다며, 그땐 공부를 하지 마십시오. 5년씩 목매달 이유가 없습니다. 2년 이상 공부에만 매달리는 것은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두번째는 선생님이 정말 하고 싶다면 이 나라를 떠나십시오. 인도나 필리핀에 가면 선생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배우고 싶어서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비록 돈을 못 벌겠지만, 선생님은 원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그 생활도 지겨우면 한국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떨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집중력이 있으면 성공하기 마련입니다. 학벌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는 법은 없습니다. 자신의 혼신을 다해 도전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정리=이은정 기자

奉 제1회 룸비니 세계불교 문화올림픽 行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도모집

입종을 희망하시는 분은 간단한 소정의 절차로 모십니다.
본 종은 창종한지 10년되었으며 현재 312개 사찰 및
비구, 비구니480명 이 등록된 전통 종단입니다.
년간분담금 일체받지 않습니다.

❖ 입종대상 : 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복사본 1매, 사진 1매
❖ 문 의 : 053)325-0400, 053)325-5288
팩 스 : 053)325-4848 / H.P : 010-3900-3050
다음까페 / 각황사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645번지 총본산 각 황 사
❖ 칠탑사 백성장로 임제종 문하 광덕사 정심장로 법제자
종정대행 : 석 능인 대종사

성지순례 신청문의 : 열린 여행사 代 055)333-6114
행사동참 문의 : 세계불교문화올림픽조직위원회
代 02)761-0410

<<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에서 세계불교융합 >>

증명대법주 만옹. 도성. 관산

증명법주 학운, 현블, 청암, 보각, 묘각
증명법사 범아, 법장, 원각, 혜승, 혜안, 지우, 동월, 진각, 효천, 혜월, 운암, 청산, 현덕, 도천, 용산, 인묵, 법공, 원통, 심공, 명석, 혜천, 청인, 길상, 종묘, 보승, 상호, 법륜, 진광, 각일, 법운

사무총장 : 능인 추진위원장 : 덕산 집행위원장 : 법장 운영위원장 : 일웅
심사위원장 : 묘각 기획위원장 : 담화 성지순례단장 : 현각 총괄 본부장 : 현광

■ 행사경연내용
· 의식 : 영산재,수륙재,예불 등 고유불교 의식
· 의상 : 출가자,재가자 의복 등 불교의상소개
· 음식 : 민족 전통불교 음식 소개
· 음악 : 영상음악,찬불가,독창,합창
· 무용 : 전통무,고전무,살풀이,사물놀이
· 영상 : 불교영화 및 다큐
· 무술 : 불교전통무예,
· 미술 : 탱화,조각,불상.(작품제출)
· 경전 : 독송 및 사경
· 범음범패 한국대표단 및 합창단 모집.
· 봉사단체 한국대표단 모집.
· 현지사정으로 행사일정이 11월로 연기되었습니다.

■ 룸비니 탄생지에서
1. 무차선 세계대회
2. 세계 불교연합 대법회
3. 불교문화재 EXPO박람회
4. 불교국가 미술대전
5. 유네스코 주관 문화재 보존세미나
6. 탄생불 불상조성 기공식
7. 석가모니 진신사리 및 10대 제자 사리 전시

• 주 최 : 네팔관광부,(사)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 주 관 : 세계불교문화올림픽조직위원회
• 후 원 : 네팔관광청, 룸비니개발위원회, NRN세계봉사단체, 네팔불교협회, 네팔불교청년회, 세계고승승가연합회, 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불교TV방송, 대한불교알평승가회
• 봉사단체 : 세계불교문화올림픽봉사단 (WBOV) http://cafe.daum.net/wbov [자원봉사단 신청 접수]
• 일 시 : 불기2555년(2011년) 11월 5일 ~ 2011년 11월 25일
• 개 막 식 : 11월 5일 • 폐 막 식 : 11월 25일
• 장 소 : 네팔 룸비니 부처님 탄생지 (동참인원 약 10만명)

보시 실현 이색전시 '인기'

부처님오신날 맞아 일산 동국대병원 법당, '붓다의 세계 나눔 전시회'



일산 동국대병원(의료원장 민응기)에서 보시와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이색 나눔 전시회가 열려 인기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일산 동국대병원 법당(지도법사 대엽)은 병원 1층 로비에 '붓다의 세계 나눔 전시회'를 열고 있다. 전시물품은 100% 기증받은 것으로 구성됐다. 전시품 판매기금은 의료사회복지기금으로 조성돼 승가의료복지기금,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국내외 의료봉사 지원금, 불자의료인 양성 장학금 등으로 사용돼 의미를 더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진행된 전시회는 불교용품을 중심으로 전시 판매되고 있다. 전시가 시작된 4월 18~19일에는 스님들이 쓰던 염주, 다기, 밥그릇, 숟가락 등이 삽시간에 동이 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병원 교직원 및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 자원 봉사자회, 간병인 연합회, 고양시 사암연합회, 중앙승가대, 한국전통서각예술협회 등을 중심으로 기증받은 물품에는 염주·그림·도서·서예·서각·법문 CD·법당 소장품인 위패, 기도초 등 불교용품을 비롯해 다기 세트, 의류, 도서, 의료용품 등이다. 그밖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스님들이 직접 그리거나 만든 보시물품을 기부해 나눔과 회향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전시회에는 중원 스님의 달마도 시연도 함께 진행돼 활기를 더하고 있다. 위독한 어머니를 위해 달마도를 그려가는 선금자 씨는 "달마도 그림을 보니 어머니 생각이 나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어머니가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다"고 말했다.

환자, 보호자, 방문객 등 스님의 그림을 받아가는 이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고영환 씨는 달마도 대신 가훈인 '중용(中庸)'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고 씨는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으러 와서 이 글을 받아가니 기쁘다. 병원 분위기가 따뜻하고 좋다"고 전했다.

중원 스님은 기복적으로 그림을 그려달라는 이들에게 "달마도는 병을 낫게 해 주는 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우고 고요하게 사는 것, 욕심을 줄이고 이웃을 위해 살라는 가르침이 담겨있다"며 짧은 법문도 함께 하고 있었다.

이번 전시회는 동국대병원 법당 지도법사인 대엽 스님이 지난 해 취임 이후부터 시작된 '묵은 짐 내려놓기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스님은 지난해 취임 후 4개월 여 만에 기증품을 받아 1900여 만원을 의료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365일 사용하지 않는 불교용품, 생활용품, 의료용품 등을 받아 연 4회 정기적으로 나눔 전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엽 스님은 "전시회는 종교적인 차원을 벗어나 문화로 접근하는 새로운 포교활동이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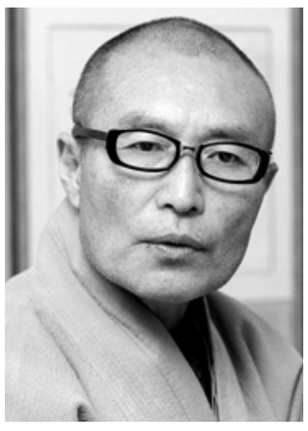
이어 스님은 "의료사회복지기금 중 불자 의료인 양성을 위해 연구지원비, 상급학교 지원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하는 것은 동국대 불교병원의 서비스 질을 높여 명품 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에서는 365일 의류·신발·문구류 등 생활용품, 의료용품, 불교용품을 받고 있다. (031)961-9222

이상언 기자

박 기 범 기자의 라후라존자를 찾아서

"인류애와 동체대비의 정신 실천"

위드아시아 이사장 지 원 스님, 내실있는 구호활동 강조



"새롭게 태어난 위드아시아가 나눔과 평등을 실천하고 고통과 기쁨을 나누는 동체대비의 정신을 실천할 것입니다."

위드아시아의 이사장 지원 스님이 4월 2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활동취지와 사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위드아시아는 2004년 부산불교계 사부대중을 중심으로 설립된 대북지원단체인 '참여불교운동본부'와 통합하면서 올해 통일부로부터 사단법인 위드아시아로 개명 승인을 받았다. 통합 전 부산 문수사를 중심으로 시작된 위드아시아는 인도와 태국에 학교 설립 등 제3세계 10여개 빈곤 지역을 위한 각 종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통합 후에는 그동안 '참여불교운동본부'가 추진하던 대북지원 사업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참여불교운동본부'는 북녘 어린이를 위한 자비의 신발보내기, 통일자전거 보내기 운동, 남북학생 미술 전시회 등을 개최해 왔다.

두 단체의 통합에 따라 지원 스님이 밝힌 위드아시아의 사업 방향은 국제구호, 대북지원, 국내소외계층 지원 등 크게 세 가지다.

위드아시아는 캄보디아에서도 빈곤층이 많은 지역에 안전한 식수공급, 위생시설 확보, 교육을 위한 공부방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달에 캄보디아 지부장을 파견했다. 캄보디아 쁘레이끄랑 마을에 마련할 계획인 '위드아시아 어린이공부방'에서는 비취학 아이들을 대상으로 문자와 기초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향후에는 초등학교, 마을 공동화장실, 공동우물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대북지원을 위해서는 북한 어린이를 위한 의약품 및 생필품 보내기 운동을 실시한다. 또한 '제1회 평화통일 염원 부산시민 걷기대회', '새터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내 문화탐방 프로그램' 등도 추진한다.

위드아시아는 '합천평화의집'을 통한 국내소외계층 지원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예정이다. '합천평화의집'은 위드아시아가 통합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설립에 함께해 온 곳이다. 올해는 원폭피해자 2세 복지지원센터를 개소했고, 추모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위드아시아는 합천평화의집 활동을 통해 방사능 피해자 전반에 대한 주도적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지원 스님은 "한국불교는 그동안 대승불교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지구적 차원의 빈곤문제에 대한 실천이 미흡했다. 위드아시아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불교계 전체의 구호 활동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인재불사 없이 불교 미래없다"

벽담장학회, 2011년도 장학금 전달



"인재불사 없이 한국불교의 미래도 없습니다."

하남 성불사(주지 학명) 산하 재단법인 벽담장학회(이사장 민경동)는 4월 16일 경내 대웅전에서 제10회 2011학년도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학인 스님과 청년불자 26명에게 2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벽담장학회는 동국대 불교대학에 재학 중인 학인스님과 재학생 11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광동고, 청담정보고 등 수도권 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 불자 15명에 1인당 8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벽담장학회를 설립한 학명 스님은 "인재 불사를 소홀히 한다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며 "더 많은 불자들이 인재불사에 동참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수를 앞으로 더욱 늘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명 스님과 민경동 이사장 등 성불사 불자들은 10년 간 인재불자의 원력으로 십시일반 장학금 모금에 동참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불자 학생들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전달된 장학금 총액은 1억 3000만원에 달한다. (02)400-5915

노덕현 기자

지거 스님 보건복지부장관상

'제3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서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관장 지거 스님이 '제3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4월 20일 백범기념관 컨벤션센터에서 '편견은 차별을 낳습니다. 배려는 평등을 낳습니다'란 주제로 기념식을 갖고 장애인인권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한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지거 스님은 장애인·사회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해 온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거 스님은 재가장애인뿐 아니라 노숙인, 아동, 여성 등 그동안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정진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사직을 맡고 있는 스님은 서울시 노숙인시설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노숙인 복지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지거 스님은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모든 분들을 대신해 수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밝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나은 기자

한국종교연합, 개최 평화포럼

한국종교연합(상임대표 박남수)이 '천주교와 종교와의 대화'를 주제로 제56차 평화포럼을 연다. 수운회관 해민재에서 4월 29일에 열리는 평화포럼은 다종교사회에서의 종교역할의 중요성을 점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날 포럼에는 성심여중고 교장인 김숙희 수녀가 발제에 나서고 토론자로는 김재완 민족종교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박기범 기자

불교환경연대, 숲해설가 교육

불교환경연대가 숲해설가 양성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5월 24일~11월 6개월 과정으로 실시되며 이론과 현장 교육이 병행된다. 이번 양성과정에서는 △숲해설가 소양 증진을 위한 환경철학 △집단 지도론 △생태론 및 개체 생태학 등이 교육된다. 교육 수료후에는 현장활동이 가능하도록 인턴쉽과 연계할 방침이다.

숲해설가 양성과정은 템플스테이 종합 정보 센터 교육장에서 이론 교육이 실시되고, 현장 교육은 의왕시 청계산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1박 2일 연수도 구성돼 있다. 140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수료증이 발급된다. (02)734-1915

박기범 기자

일본지진피해 성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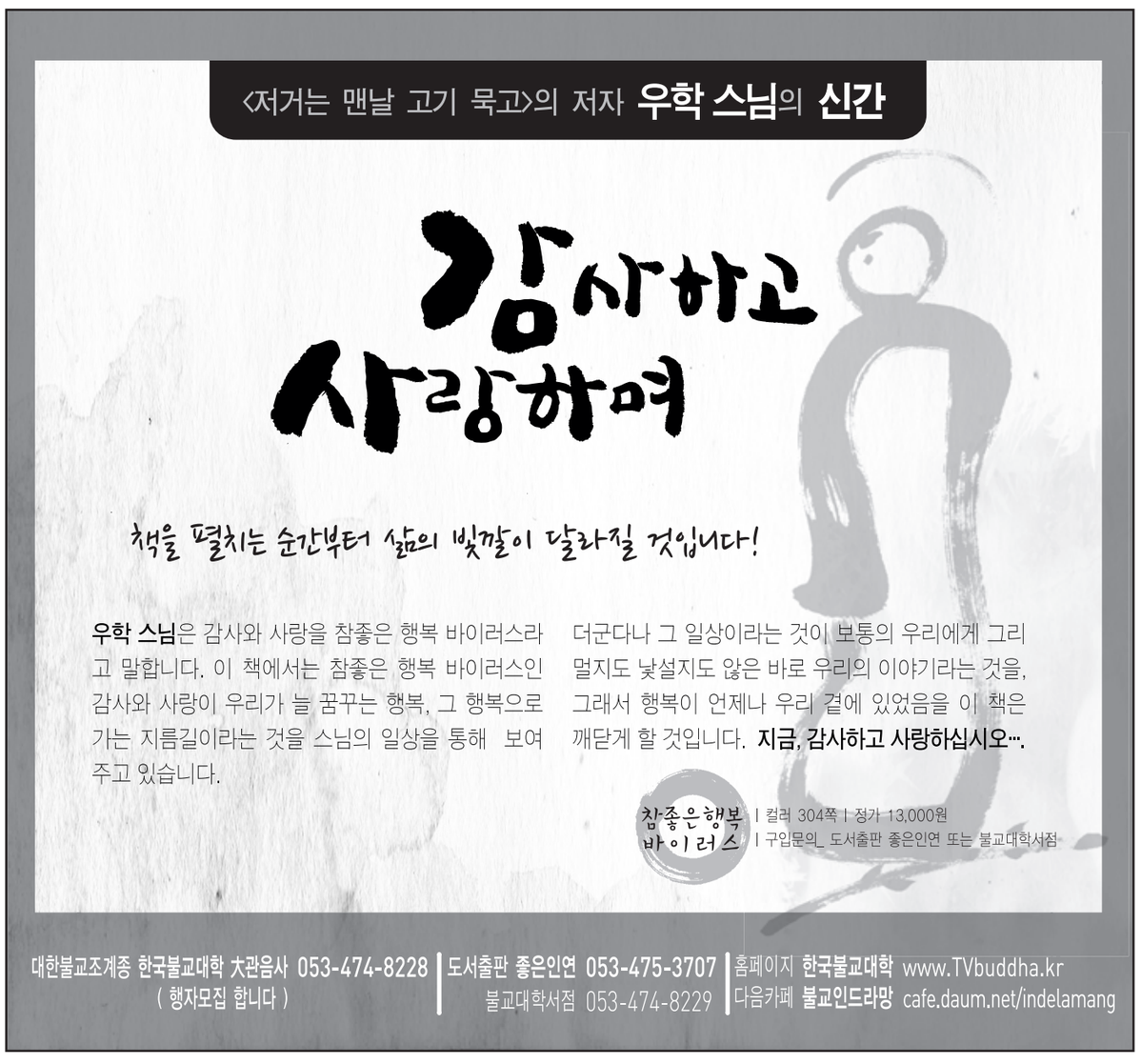
구본일 BTN 사장은 4월 20일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일본 지진피해 지원과 긴급구호를 위해 써달라며 8000만원을 전달했다.

약사사(주지 종민)도 같은 날 일본 지진피해 지원과 긴급구호를 위한 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주지 종민 스님은 "약사사에서 모금 등을 통해 마련된 기금이다. 피해 복구를 위해 잘 사용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대흥사(주지 범각)는 아름다운동행에 자비나눔 기금 3500만원을 전달했다. 대흥사는 교육불사 후원 1500만원, 군법당 설립 1000만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지원 '나눔의 집' 500만원, 국제구호단체 '지구촌공생회' 500만원 등을 지정 기탁했다.

박기범 기자





불교산업 점검 2 – 불교계 생활협동조합

불교계 생협 아직도 '걸음마'

천주교, 불교계 전체 매출액의 30배… 생명·평화 가치 지키며 활성화 모색 시급

2003년 창립한 인드라망생협은 불교계 생협 중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창립 초기 4억원이었던 인드라망생협의 매출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10억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현재 700명 정도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불교계 다른 생협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2009년 11월 창립한 대불청 '연꽃생활협동조합'의 연평균 매출액은 1억원이며 조합원수는 340명 정도다. 2007년 7월 창립한 대전불교생협은 5000만원 정도의 연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520명의 조합원이 참여 중이다.

그러나 불교보다 앞서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실천한 천주교와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생협매장 '하늘 땅 물 벗'의 지난 해 전국 총 매출액은 300억이며 조합원수는 2만명으로 인드라망생협과 비교해도 30배 가량의 차이를 보인다.

맹주형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는 교육기획실장은 "천주교는 교계 내에 생협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산돼 있다. 전통이 오래된 가톨릭 농민회와 가톨릭의 통일된 구조와 절차가 힘이 된다"라고 밝혔다.


인드라망생협 신정동 매장. 불교계 생협들은 스님과 불자들의 관심에 목말라 있다.

가톨릭 농민회는 1966년 창립된 농민운동 단체다. 이들은 종교적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농법, 자연농법 등 생명농업을 개발하고 실천해 왔다. 또한 1994년 출범한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와 함께 생명운동의 관점에서 생협을 발전시키고 있다.

가톨릭 생협은 무조건 낮은 단가를 고수하지 않는다. 지난 해 배추값이 폭등할 때도 가격을 무조건 올리지 않고 합리적 가격을 유지했고, 반대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때도 농민 보호를 위한 가격 정책을 시행했다.

가톨릭 신부들은 도시와 농촌 교구가 결연을 맺고 신부와 신도들이 농촌 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한다. 농부들은 함께 땀흘리는 신부를 보며 신앙적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한다.

생협 관계자들은 생협 발전의 3대 요소로 △종교 생협의 가치를 이해하는 생산자(농민) 조직 △생협의 정신으로 생산된 농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소비조직 △물류와 유통의 전문성 등을 꼽는다.

그러나 불교 생협은 모든 조건이 아직 미흡하다. 불교 역시 생협 활동의 교리적 근거가 충분하지만 미약한 조직력과 무관심 속에 10년 째 답보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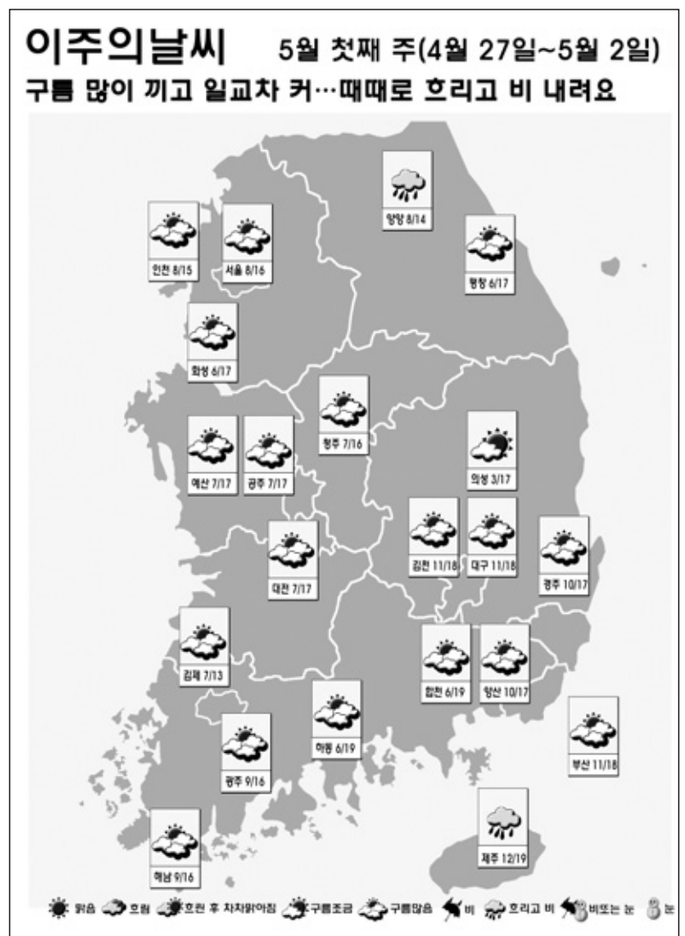
인드라망생협은 현재 100여 산지에서 물품을 납품받고 있다. 그러나 10년이 경과한 지금도 인드라망의 가치를 이해하는 농민들의 생산물은 7~8곳의 생산지에 불과하다. 대불청 연꽃생협은 농사를 짓는 회원 등을 통해 물품을 공급받고, 대전불교생협은 인드라망생협과 기타 생산처에서 조달하고 있다.

소비를 담당할 도심 불자들의 생협에 대한 낮은 이해도 불교 생협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또한 불교와 생협의 가치를 이해해도 시중가보다 다소 높은 가격 앞에서 망설이는 것이 스님과 불자들의 현실이다.

인드라망생협은 최근 '인드라망 제철 꾸러미'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인드라망 귀농학교 이수자들이 횡성에서 여성 및 고령의 농민들과 함께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이다. '인드라망 제철 꾸러미'에는 유정란, 손두부, 제철 채소 및 곡류, 밑반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소량 다품종 농사를 짓는 소농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땅과 농업을 지킬 수 있다.

대불청 연꽃생협도 생협 활동의 토대가 되는 생산자망 구축을 위해 전국 회원 중 농민들을 파악하고, 이달 안에 생산자 모임 결성을 추진 중이다.

이정호 인드라망생협 상무이사는 "생협이 단순히 건강한 먹을거리 운동이 아닌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사찰과 농촌이 생협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해 생태생명 시대에 불교가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주요 7개지역 날씨

지역	28일(금요일)	29일(토요일)	30일(일요일)	1일(월요일)	2일(화요일)
서울	구름조금 7/17	구름많음 6/18	구름많음 7/19	구름많음 10/20	흐리고비 10/20
부산	구름조금 10/17	구름많음 11/19	구름많음 11/19	구름많음 12/22	흐리고비 13/19
대구	구름조금 8/19	구름많음 10/20	구름많음 10/21	구름많음 12/22	흐리고비 12/19
대전	구금조금 3/19	구름많음 3/18	구름많음 4/19	구름많음 10/20	흐리고비 10/17
광주	구름조금 7/17	구름많음 8/19	구름많음 8/19	구름많음 11/21	흐리고비 12/18
강릉	구름조금 8/17	구름많음 9/19	구름많음 10/20	구름많음 9/20	흐리고비 10/17
제주	구름많음 10/18	구름많음 10/18	구름많음 11/19	구름많음 11/20	흐리고비 11/18

25개 교구사별 (해뜸/해짐)

조계사	05:42/19:18
용주사	05:44/19:19
신흥사	05:35/19:12
월정사	05:37/19:11
법주사	05:43/19:14
마곡사	05:43/19:14
수덕사	05:46/19:17
직지사	05:40/19:11
동화사	05:39/19:08
은해사	05:39/19:08
고운사	05:38/19:09
불국사	05:36/19:06
해인사	05:42/19:09
쌍계사	05:42/19:09
통도사	05:38/19:06
범어사	05:38/19:06
금산사	05:47/19:16
선운사	05:46/19:15
백양사	05:47/19:14
화엄사	05:45/19:12
송광사	05:45/19:12
대흥사	05:49/19:15
관음사	05:51/19:13
봉선사	05:44/19:19

25개 교구사별 날씨(℃)

조계사	구름조금 7/17
용주사	구름조금 7/16
신흥사	구름조금 8/17
월정사	구름조금 4/19
법주사	구름조금 6/18
마곡사	구름조금 3/19
수덕사	구름조금 3/19
직지사	구름조금 8/19
동화사	구름조금 8/19
은해사	구름조금 8/19
고운사	구름조금 5/18
불국사	구름조금 9/16
해인사	구름조금 5/19
쌍계사	구름조금 5/19
통도사	구름조금 9/16
범어사	구름조금 10/17
금산사	구름조금 6/16
선운사	구름조금 6/16
백양사	구름조금 7/17
화엄사	구름조금 7/17
송광사	구름조금 7/17
대흥사	구름조금 8/16
관음사	구름많음 10/18
봉선사	구름조금 7/16

25개 교구사별 강수량(%)

조계사	10
용주사	10
신흥사	60
월정사	10
법주사	10
마곡사	10
수덕사	10
직지사	10
동화사	10
은해사	10
고운사	10
불국사	10
해인사	10
쌍계사	10
통도사	10
범어사	10
금산사	10
선운사	10
백양사	10
화엄사	10
송광사	10
대흥사	10
관음사	60
봉선사	10

자료제공=케이웨더 www.kweather.co.kr (02)360-2200

특별기고 / 이 정 호 인드라망생협 상무이사

인드라망생협과 귀농자의 농촌마을 정착하기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불교사상에 입각해 생명평화운동을 진행한다. '연기법'에 입각해 사회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불교사회단체인것이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귀농학교', '대안학교', '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을 만들어 활동하면서, 주로 불교계에서 농업농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의 세월을 통해 불자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부분이 '불교귀농학교'와 '실상사귀농학교'를 운영한 것이다. 지금까지 인드라망생명공동체를 통해 귀농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1500여 명을 넘는다. 이 중 약 30%인 약 450명의 사람들이 귀농을 시도해 도시인에서 '농부'가 됐다.

귀농학교를 찾으시는 분들은 보통 2~3년의 준비기간을 염두에 둔다. 여기에 귀농 후 '초보농사꾼'으로 살면서, 자신의 지인들에게 먹거리를 나누어 먹는 수준을 벗어나기 위해 다시 2~3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자신이 정착한 지역에서 '영농조합'이나 '작목반'의 구성원이 되어 어엿한 '생산자'인 농부가 되려면 또 다시 2~3년의 시간이 걸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한 명의 도시인이 '귀농'에 뜻을 내고, 농부가 되어 지속가능한 생산의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6년, 길면 9년의 세월이 걸린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창립해 10여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다. 그래서 이제 귀농자들이 몇 개의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적게나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우리 불교계의 사회단체가 '친환경농부'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리고 이 분들이 영농조합이나 작목반을 중심으로 농촌마을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협동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생산과 가공 그리고 유통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있다.

지금부터는 '지속가능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귀농자들이 지속적으로 농촌에서 '친환경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함께 존재해야 한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이러한 소비자들이 '인드라망생활협동조합'을 통해서 친환경농산물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 '생협조합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농업을 천시하고, 농부를 줄여 왔다. 그리고 도시를 살찌워왔다. 그것이 사회가 '성장'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온 것이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각종 생태환경이 파괴되고, 먹을거리가 위태로워지고, 지역공동체가 파괴됐다.

이제 생명위기의 시대를 살면서 천천히 이런 삶의 방법론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우리사회는 우리 불자들에게 익숙한 '생명살림의 사회'를 향해 갈 수 밖에 없다. 인류가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한 유일한 선택이 '생명'과 '자연'과 '생태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문명을 찾는 길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농부를 만드는 일은 이러한 긴 걸음의 첫 번째 걸음이다. 이제 아직은 외로운 이 초보농사꾼들에게는 도시의 친구들이 필요하다. 우리 불자들이 이 분들의 손을 맨 처음 잡아주는 친구가 돼 주었으면 한다.

인드라망생협(www.indramangcoop.or.kr)과 불교계 생협 활동을 통해 잃어버린 '오래된 미래'인 마을공동체를 살려가는 일에 함께 했으면 한다.



부처님의 가피와 영험이 가장 많은
법화경 사경 및 독송!



행복을 부르는 법화경 사경 (한글·한문)
혜조 역 | 사륙배판 | 전7권 | 전체 1,760쪽 | 65,000원

우리말 법화경 사경
혜조 역 | 사륙배판 | 전5권 | 전체 940쪽 | 40,000원

독송용 우리말 법화경
혜조 역 | 국판양장 | 630쪽 | 18,000원

INDIA
한권으로 만나는 인도

불교가 탄생한 나라,
한권으로 정리된 인도 이해의 길잡이!
인류 정신문명의 요람, 종교와 신화의 보물창고,
방대하고 복잡한 역사를 가진 인도 사회에 대한
간결하고 핵심적인 안내서!



이병욱 지음 | 신국판 | 310쪽 | 값 13,000원

지관좌선법을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밝힌
모든 수행자들의 교과서!

천태대사의 『수습지관좌선법요』를 알기
쉬운 현대어로 번역하고, 상세한 주를
덧붙여 원문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천태소지관



"불교는 수행을 통해 열반을 증득하기 위한 방법이며, 그 방법은 지와 관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도를 닦으려는 자는 반드시 지관을 수행해야 한다!"

천태 지자대사 저 | 윤현로 역주 | 국판양장 | 276쪽 | 값 13,000원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사찰 VS 복지관 갈등 언제까지?

덕운사 "천혜원은 환경 파괴, 편법 설계, 국고 낭비"
천혜원 "어르신들은 절이 가까이 있어 더 좋아할 것"

부산 덕운사는 인근 사회복지법인 천혜원 노인요양원 건립과 관련해 3년째 갈등을 겪고 있다. 덕운사 주지 경산 스님은 4월 18일 대웅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요양원 건립 반대 입장을 고수할 뜻을 밝혔다.

경산 스님은 "요양원이 들어설 경우 1807㎡ 임야에 있는 고로쇠나무 46그루, 니키다소나무 72그루, 해송 33그루 등 151그루의 나무가 잘려나가 심각한 산림 훼손이 우려된다"며 "대웅전에서 4m 거리에 조성될 예정인 사회복지법인 천혜원(이사장 박시완) 노인요양원 건립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부산시에서 수십 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윤산 일대 테마공원 역시 망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산 스님은 "환경조사에서 높이 50cm 이상의 나무가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면 준공허가가 나지 않게 돼 있다"며 "환경조사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복지법인 천혜원(이사장 박시완)은 2009년 초 금정구로부터 노인요양시설의 준공허가를 받았다. 신축 예정된 노인요양원과 덕운사 대웅전을 둘러싼 담장과의 거리는 불과 4m내외다. 덕운사 주지 경산 스님은 산림 훼손, 구민 편의와 불법설계, 예산낭비 등을 이유로 금정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천혜원은 정부로부터 20억원 가량 정부지원금을 받아놓은 상태여서 3심까지 모두 승소했다.



부산 덕운사 경산 스님이 노인요양원이 세워질 산자락을 가르키며 건립 반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노인요양원 측은 사찰을 곁에 두고 있으면 요양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행복해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덕운사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박시완 천혜원 이사장은 전화인터뷰에서 "해당 임야는 천혜원 소유다. 애당초 부산시 금정구가 관내에 옮겨 심을 묘목을 기르기 위해 임대 중이며, 묘목은 착공 전 제3의 장소로 옮겨 심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덕운사는 "개원 이후에 법당 예불 소리를 소음이라고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산 스님은 "부산 어느 사찰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종소리가 시끄럽다며 더 이상 종을 치지 못하게 한 사례도 있다. 지금은 괜찮다고는 하지만 언제든지 목탁과 염불소리가 요양 중인 어르신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며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시완 이사장은 "오히려 어르신들은 절 가까이에서 염불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아하실 것"이라며 "종교를 떠나 어르신들은 산 속에 자리한 절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편안함을 느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시완 이사장에 따르면 덕운사도 복지사업을 계획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이사장은 "요양원 설계 단계부터 스님과 수차례 상의를 해왔다. 당시 스님은 덕운사도 노인복지 관련시설을 5년 후에 세울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그 후에도 스님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평당 8만원의 비용을 들여 3~4차례 설계를 수정한 바 있는데, 3년 넘게 요양원 건립을 문제삼을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경산 스님은 "복지법인 임야에 요양시설을 지을 경우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이용한 야욕에 불과하다. 국가예산 20억 원을 노려 요양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이다"며 "허가가 날 경우 법적대응을 해서라도 건립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교계 한 관계자는 "덕운사와 천혜원 사이 갈등으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 양측이 종교시설과 복지시설의 장점을 이용해 연계 시행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좋겠다. 노인요양원의 어르신이 돌아가실 경우, 덕운사에서 49재를 지내는 등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부처님과 인연의 싹 띄운 천진불

"보살계는 성불의 지름길이자 팔만사천법문의 요체"


부산 대광명사는 4월 17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어린이 특별 수계 법회를 봉행했다.

부처님오신날을 한 달 여 앞두고 부산 각지에서 어린이·청소년 등을 위한 수계법회가 잇따라 봉행됐다.

부산 해운대구 도심포교도량 대광명사(주지 목종)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불심을 심어주기 위한 특별한 수계법회가 열렸다.

17일 경내 대광명전에서 열린 '유아·어린이·청소년 수계법회'에서는 대광명사를 재적사찰로 둔 신도의 자녀 29명에게 수계했다.

목종 스님은 "수계를 받은 어린이들은 부처님과 인연의 싹을 틔운 것이다. 성장 후에는 자연스럽게 부처님 가르침을 삶의 지표로 삼아 불도의 길을 걷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는 4월 15~17일 제111회 범어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수계산림에는 전계대화상 흥교 스님, 갈마아사리 선래 스님, 교수아사리 통광 스님이 삼화상을 맡았다. 산중 대덕스님들이 칠증사로 4000여 수계보살에게 대승보살이 지녀야 할 '10중 대계'와 '48 경계'의 실천을 강조했다.

정여 스님은 "보살계는 성불의 지름길이며 팔만사천법문의 요체인 심지법문을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에게 전하기 위해 설한 수행법 중 최상의 덕목이다"이라고 강조했다. 범어사는 1904년 성월 스님이 금강계단을 설치하며 처음 보살계산림을 일으킨 이래 매년 보살계 수계산림을 열고 있다. 박지원 기자


4월 17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27회 연꽃문화제에서는 글짓기와 그림 그리기, 경연대회에 이어 염주알 꿰기, 풍선인형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이 이어졌다.

2011 부산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발대식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백명숙)가 4월 16일 부산학생문화교육회관에서 '2011년 신입생 환영회 및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발대식에서 중등부 회장에 범어사 지부 김희지 양이, 이정현(금정중3)·정호영(동해중3) 군이 각각 부회장으로 임명됐다. 고등부 회장에는 나상준(해사고2) 군이, 김영웅(해사고2) 군, 서은진(부산마케팅고2) 양이 부회장에 임명됐다.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5월 길거리봉사활동과 문화탐방, 7월 전국연합캠프, 8월 일본 사가현에서 한일청소년 국제교류 등 주요 사업을 진행한다. 박지원 기자

〈정정합니다〉
제832호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김상희 대한불교교사대학 교무처장은 제4회 불교어린이청소년 지도자연수에서 표창장을 수상했습니다.

'오늘은 천진불 세상'

부산 어린이법회 소속 어린이불자 450명 참가

천진불들의 축제 제27회 연꽃문화제가 450여 어린이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료했다.

동련(이사장 심산, 홍법사 주지)은 4월 17일 부산시청 녹음광장에서 제27회 연꽃문화제를 개최했다.

동련과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여·범어사 주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부산지구(회장 효선·공덕원 주지),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가 함께한 이번 행사에는 예년에 비해 150여 명이 더 늘어 부산 어린이법회 소속 어린이불자 4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축제에서 글짓기와 그림 부문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총 25명의 어린이에게 대상인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청소년위원장상'과 특별상인 '부산광역시장상' 등을 비롯한 총 5개 부문 25개 상이 수여됐다.

효선 스님은 "올해에는 부모님들의 참여도가 높다"며 "어린이법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린이법회별로 자모회가 구성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부처님 어서 오소서!"

부산시불교聯 봉축점등식

불기 2555년 부산연등축제 시작을 알리는 '봉축점등식'이 봉행됐다.

4월 15일 부산역광장 일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화산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삼광사 주지)과 정각 상임부회장(일붕선교종정, 미룡사 회주) 및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김정훈 한나라당부산시당위원장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지원 기자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 국내특허 제0751485호
•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평화와 화합 위한 한마음

전북 봉축위·광주불교사암연합회, 점등 법회 잇따라 개최

불기 2555년 '부처님 오신 날' 전라북도 봉축행사의 서막을 알리는 '세계평화, 민족화합 봉축 기원등' 점등 법회가 4월 16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 광장에서 열렸다.

이 날 점등 법회에는 봉축위원장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도광 스님, 선운사 총무 심학 스님을 비롯한 태고종, 진각종, 천태종, 보문종 등 각 종단 대표 스님들과 전북불교신도회 김백호 회장, 김진수 전북포교사단장, 한광수 전북불교대학 학장, 바라밀 합창단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가했다.

점등 법회에서 참가자들은 기원등을 점등하고 손에 등불을 들고 탑돌이를 가졌다. 탑돌이에 참가한 스님과 불자들은 세계평화와 민족의 화합, 국태민안과 전라북도의 발전을 기원했다.

전북 불교봉축위원장 원행 스님은 법어에서 "부처님의 가피력, 불자들의 원력으로 세계평화와 7000만 민족의 대화합과 국태민안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는 기원등을 밝히게 됐다. 지진해일 등 자연의 재앙과 무자비한 살상과 테러, 방사능의 공포와 불안감을 해소하고 질병과 이념갈등, 노인문제와 청소년 문제가 지혜롭게 해결될 때 까지 수행과 정진을 게을리 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전북 지역 스님들이 점등법회에 참석해 평화와 화합을 기원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 봉축위원회(위원장 현지)도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식을 4월 20일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봉행했다.

행사에는 현지 스님,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 호산 스님,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원 스님을 비롯해 합창단, 불교신행단체장 등 400여명이 참여했다.

봉축위원회 위원장 현지 스님은 "이번 등은 지역의 갈등을 넘어서고, 배려의 진심을 알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운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살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 앞서 광주전남포교사단 회원 100여명은 광주KBS에서 시청까지 3보 1배를 진행했다. 이번 3보 1배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일본에서 재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제역으로 매몰된 축생들의 왕생을 발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영광 약사선원 약사여래불 점안식



전남 영광 불갑면 응봉리에 위치한 약사선원(선원장 혜광)은 4월 17일 '자연석의 약사여래부처님 이운 및 점안 대법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의 대중이 참여한 이날 법회에는 자연석에 새겨진 약사여래부처님과 삼존석불상, 해수관음보살상에 점안식을 가졌다. 약사선원은 지난 2년간 선원장 혜광 스님이 기도 정진한 곳으로, 2005년 조경석을 세우던 중 갈라지면서 자연석에서 약사여래 부처님상이 출현해 관심을 모은바 있다.

선원장 혜광 스님은 "부처님 이운을 통해 영광 불자들에게 큰 희망과 신심을 증장시킬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장대사 100가지 음식공양 법회

전남 여수 지장대사(주지 정현)는 4월 17일 경내 지장대불 앞에서 '지장대불 100가지 음식공양 대법회와 무상 조성영가 천도법회'를 봉행했다.

'100가지 음식공양'이란 육법공양을 포함해 삶속에서 나오는 음식의 종류를 전부 올려 부처님을 찬탄하는 의식이다. 이날 법회에는 쌀, 과일, 과자, 전, 해산물 등 지역의 특산물 등이 신도들의 정성으로 부처님 전에 올려졌다.

지장대사는 2004년부터 매년 음력 봄과 가을 지장대불과 관음대불 앞에서 불자들이 십시일반 정성으로 마련한 100가지 음식을 공양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다.

주지 정현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보살님께 100가지 음식공양을 올리는 것은 가정과 사회의 평안을 바라는 최고의 공양이다"라고 밝혔다.

정현 스님은 또 신도들이 준비한 정성스러운 100가지의 공양은 세상을 밝히는 100가지의 인연으로 나타날 것이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완주 송광사 미륵불 다례재 봉행

범죄피해자 가족동참, 범죄없는 세상 발원

전북 완주 송광사(주지 도영)가 전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이사장 홍종길)와 함께 미륵불 다례재를 봉행하며 범죄없는 세상을 발원했다.

4월 16~ 17일 송광사에서 열린 이번 다례재에서는 올해 첫 수확한 햇 차를 미륵부처님께 올렸다.

특히 지원센터와 범죄피해자 가족 30여명이 참가해 직접 차를 덖고 차를 올리는 체험을 통해 범죄없는 세상을 미륵부처님전에 발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군산경찰서, 경승 위촉식 개최

군산경찰서(서장 나유인)가 경승 위촉식을 갖고 경승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4월 15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관음사 재곤 스님, 동국사 종걸 스님, 상주사 도연 스님, 성흥사 송월 스님, 내원암 자인 스님, 정안사 정안 스님, 은적사 성우 스님등이 참석했다.

관음사 재곤 스님은 "형식적인 경승 위촉에서 탈피, 내실있는 경승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처음으로 군산경찰서 불자회가 조직된만큼 활발한 신행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불총림 백양사, 민족문화수호결의대회 개최

불교의 자성과 쇄신을 위한 민족문화수호결의대회가 백양사에서 열렸다.

고불총림 백양사는 4월 20일 교육관에서 18교구 백양사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를 가졌다.

대흥사, 화엄사, 송광사에 이어 전남지역 교구본사 중 마지막으로 진행된 이번 결의대회에는 백양사 본사 및 말사의 스님과 신도 400여 명이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영광원자력본부, '사랑 나누미' 전달식

고창군노인복지회관(관장 도완)은 4월 20일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자력본부와 연계해 고창 지역주민과 저소득층 급식지원을 위한 '사랑 나누미(米) 전달식'을 진행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자력본부(본부장 김대겸)는 이번 전달식에서 복지관 어르신들과 저소득층 주민들이 풍족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200만원 상당의 쌀을 기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자력본부는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어려운 농촌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눔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도완 스님은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신 영광원자력본부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구소식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동자승 삭발식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동자승 삭발식과 세불의식이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 열렸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는 4월 20일 한국불교대학 대웅전 4층 대법당에서 스님의 실생활과 참모습을 배우기 위해 단기출가에 나선 동자승 10명의 삭발식과 수계식을 봉행했다.

한국불교대학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22일 장엄물 점등식, 27일 회주 우학 스님 수필 출판기념회, 28일 박수관 명창 초청 법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부처님오신날 행사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구에서 '백제의 미소' 선보여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상의 아름다움을 렌즈에 담은 〈준초이 展〉이 대구시 수성구 중동 갤러리 아소에서 4월 19일 개막했다,

금동미륵보살반가상을 독특한 시각으로 해석한 2101x160cm의 대형 사진이 선보인다. 작가 준초이(59 · 본명 최명준)는 지난 2005년 춘천 박물관장 이내옥씨와 함께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백제 유물을 담은 도록 '백제'를 펴내면서 이 사진을 촬영했다. 이 사진은 판매된 2점 가운데 1점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집무실에 걸렸다.

갤러리 아소는 이번 전시회를 아기자기한 야생화와 나무 속에서 '금동미륵보살반가상' 사진 1점만 선보이는 독특한 형식으로 마련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팔공산 부인사 선덕대왕숭모제

신라 선덕여왕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제25회 선덕대왕 숭모제가 4월 17일 팔공산 부인사에서 봉행됐다.

숭모제는 대웅전에서의 헌공의식을 시작으로 헌향, 헌다, 숭모사, 참봉례, 정제 등의 의식이 선덕대왕의 영정이 모셔진 숭모전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부주지 무위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선덕대왕의 뜻을 받들어 국론을 통합하고 민족문화를 보전하는데 앞장서자"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청도불교사암聯, 청도 유등제 개최



청도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광)가 지역 불자들을 화합하고, 외지인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청도 유등제가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펼쳐졌다.

'등은 무명을 밝히는 것으로 지혜와 깨달음의 상징'을 주제로 열린 이번 청도 유등제에서는 1만 여 개의 장엄등이 청도천을 화려하게 수놓았으며 매일 밤 장엄한 전통불교 예불의식과 유등 가요제, 불화 그리기, 감물 염색체험 등이 펼쳐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한 권으로 읽는 법화경

무엇이 부족합니까?

한 권이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부족할까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랑과 자비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한없이 솟아납니다.
이 무궁무진한 자비의 에너지를 일깨워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사람입니다. -본문 중

보경스님의 유쾌한 법화경 읽기
보경스님은 차근차근, 조목조목 법화경 구절 구절을 짚어주며 친절하게 강설한다.
스님의 종교를 넘나든 다양하고 감동적인 예화는 읽는 이의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한다.

보경스님의 경전강의 컨닝페이퍼
보경스님은 각 품마다 품의 구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법화경 경전읽기'를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지침이 된다.
스님은 손수 강의를 준비해 직접 강의를 하며 쌓은 자신만의 '법화경 강의 노하우'를 그대로 세상에 공개했다.



보경 강설 ● 884쪽 ● 25,000원
신국판 양장 ● 2011년 4월 11일 발행

민족사 | 구입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 전화: 02-732-2403~4 · 팩스: 02-739-7565 · 홈페이지: www.minjoksa.org · 이메일: minjoksa@chol.com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미국 University of the West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17년간 불교를 연구한 끝에
역편한 일아스님의 빠알리 경전 결정판!



일아 역편 / 신국판 / 양장제본 / 752쪽 / 값 28,000원

"수녀 출신 일아스님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펴내" 〈한국일보〉
"붓다의 가르침 『빠알리 경전』 번역한 일아스님" 〈중앙일보〉
"초기불교 책 펴낸 '수녀 출신' 일아스님" 〈한겨레〉
"수녀 출신 비구니가 본 '붓다의 가르침'" 〈서울신문〉
"수녀 그만 두고 출가, 美서 17년째 불교 연구" 〈경향신문〉

민족사



한국구술인물사 / 여 익 구 민족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③

민중불교 태동시킨 선지식, 탄허 스님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본 구술에는 HD급 촬영 카메라를 활용했다. 여익구 선생은 카메라 앞에서 6시간 동안 자신의 생애사를 구술했다. 그 가운데 이른바 '민중불교회'를 조직하고 출가해 승려가 되는 과정에서 탄허 스님과의 인연을 회고한 부분을 발췌했다.

①구산 스님 경봉 스님 당대에 뭐… 어르신이란 거는 다 찾아본 거죠. 그 때 최범술(효당) 스님도 찾아봤어요. "역사적인 것을 할 때는 불교인으로서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효당이.

②그 때 탄허 스님 찾아뵈니까, 탄허 스님도 최범술씨랑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③'민중불교회'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돌아와서. 그래 그 때 전재성이라는 아시나 모르겠네요.

④고준환 뭐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전에도 가끔 봤었으니까 불교학생회 하면서 최연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쭉 만나면서 우리 같이 독서서클을 하나 만들자 불교계에.

⑤저는 황석영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어요. 황석영이를.

⑥고은 시인. 찾아가지고 같이 '민중불교회'를 했어.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씩 탄허 스님 만나 (개운사) 대원암에서 공부하기로 하고 일종의 불교 엘리트 조직을 만들겠다고 그런 거죠. 불교역사 의식화를.

⑦안기부(중앙정보부)에 포착이 된 거야.

여익구는 1974년 민청학련에 연루되었다가 이듬해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그 때는 불교계의 고승들을 찾아 방문하던 시기였고, 또 전재성과 최연은 대불련의 중심 인물로 부상하던 때였다. 대불련에서 외연을 확대하려는 의도와 여익구의 활동이 맞아떨어지면서 탄허 스님을 중심으로 독서클럽이 조직됐다.



탄허 스님이 주석하며 〈신화엄경합론〉을 저술했던 서울 안암동 대원암, 이곳에서 독서클럽인 민중불교회가 결성됐다.

탄허 스님을 마을 사람들이 당대의 천재로 여겼던 것처럼 여익구도 말한다. 그 탄허 스님은 명석한 불교인 엘리트들을 키우고 싶어했다. 그렇게 해서 민중불교회가 조직된 것이다. 사실 처음부터 민중불교회라는 이름을 내 건 것이 아니었다. 여익구는 수사관들이 사건화시키기 위해 이름을 붙여준(?) 결과였다고 한다. 여익구의 구술에 따르면 제2의 민청학련과도 같은 사건으로 확대시키고자 했던 것이 당국의 의도라고 말한다.

탄허 스님의 뛰어난 필치, 그리고 감동을 주는 법석은 불자들과 세인들을 놀라게 했다. 많은 대중이 탄허 스님을 존경했다. 스님은 역사 인식과 함께 국가발전이라는 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민중들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탄허 스님의 이른바 엘리트운동은 여익구 등을 통한 민중불교운동의 지원으로 나타났다.

탄허 스님은 오랫동안 동국대학교 정각원과 동국역경원과 관계했고, 특히 삼보법회 단체를 지원했다. 삼보법회는 장학금을 조성하여 불교인 엘리트들을 양성한 요람이었다. 어찌보면 청년들에 대한 탄허 스님의 인식은 크게 이상한 것도 아니다. 엄혹했던 유신시절에 탄허 스님이 항거했던 방법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불교인 엘리트 양성. 민중불교회의 독서토론은 1975년 초봄부터 여러 달 동안 탄허 스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당국에 의해 해체되었다. 그러나 민중불교회의 씨앗은 1980년대 활발했던 불교운동으로 이어진다. '정토구현전국승가회' 등 크고 작은 불교단체들이 군부독재에 항거했다. 그 뿌리를 찾는다면 탄허 스님이 주재했던 민중불교회로 귀결된다.

이후 여익구는 출가하여 효당으로부터 불교학을 배우고, 다시 탄허 스님의 품에 안긴다. 1975년 당시 대불련 회장이었던 전재성은 활발한 불교운동을 주도했고, 최연은 이듬해 대불련 회장이 된다. 그 해 대불련은 전북 완주의 송광사 수련회에서 '민중불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불교계에 민중불교운동이 확대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경 봉 스님이야기 – 삼소굴의 향성④

잡초 속 하얀 연꽃 피우게 했던 승가의 결사

19세기 후반 불교계는 근대를 향한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었지만 그 내부에서는 불교의 존립과 전통적 신앙수행의 유지, 발전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 흐름으로 사찰계(寺刹契)와 신행결사, 선(禪)의 중흥 노력 등이 있었다.

경허 선사는 1899년 해인사에서 정혜결사(定慧結社)를 시작한 이래 1903년까지 통도사, 범어사, 화엄사, 송광사 등의 선원을 복원하고 선수행을 이끌었다.

근대선원의 최초라 할 수 있는 해인사 퇴설선원은 경허 선사를 조실로 모시고 1899년 11월 동안거에 17명의 정진대중으로 개설됐다. 이는 근대선원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사찰계와 신행결사는 어려운 사찰의 재정을 지원해 가람을 중수하고 사찰 전답을 늘리는 데 힘을 보탰다. 공동체적 신앙활동을 유지하는데에도 큰 기여를 했다.

만일염불회(萬日念佛會)는 만일동안 즉, 28년간 염불하는 대중적 결사로, 건봉사 신계사 유점사 화계사 흥국사 등에서 만일염불회가 열렸다.

이러한 흐름은 훗날 경봉 선사가 통도사 극락암에서 1925년 10월 '염불수심(念佛修心)'과 '광도중생(廣度衆生)'을 목적으로 정한 '양로염불만일회(養老念佛萬日會)'를 결성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1945년 해방을 맞이한 불교계의 과제는 친일적 요소의 제거와 교단의 혁신문제였다. 이후 불교정화의 기간인 1954년에서 1970년 대처 측의 태고종 등록이 완료된 시점까지의 기간을 맞이한다.

해방 이후 불교계는 총림(叢林)이 건설되고 새로운 선풍(禪風)이 일어나고 많은 불교교육기관, 불교단체, 불교 언론 등 다각적인 면에서 발전돼 왔다.

이때 통도사를 중심으로 한 구하 스님(1872~1963)과 경봉 스님의 활동은 불교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다.

만일회 원주소임을 3년간 맡았던 정보우(鄭普雨) 스님이 그만두는 것에 대하여 1928년 10월 일지에 경봉 스님은 아쉬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뜰 앞에 잣나무 몇 년이나 꺾었던가
우연히 선사를 만나 함께 누대에 올랐네
결사(結社) 당시엔 잡초만 우거졌었는데
일을 이룬 지금엔 백연(白蓮)이 피었네
시냇물은 굽이 돌 때 소리가 요란하고
사람은 시비에 늙고야 도의 맛이 나네
천지가 내 집인데 어찌 이별 있으랴
밝은 달아래 한 잔 먹세 그려.



정도 스님(통도사 포교국장)

일 묵 스님의 위빠사나 수행이야기3 –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의 운전법을 배워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각을 느끼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 무엇에 의해 아는 것일까? 이런 의문은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보았을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을 불교는 연기(緣起)적으로 설명한다. 즉 적당한 조건을 따라 아는 작용이 일어나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각을 느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이때 '아는 작용을 하는 바로 그 자체'를 이름 하여 마음(citta, 心)이라고 한다. 즉 '대상을 아는 것 자체'가 바로 마음이다. 여기서 마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의할 점을 몇 가지만 언급한다.

첫째, 마음은 영원한 실체나 자아(自我)가 아니라 조건을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형상을 볼 때는 보는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소리를 들을 때는 듣는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지난 일을 회상할 때는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이처럼 하나의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면 바로 다음 순간에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이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를 마음이 찰나생(生), 찰나 멸(滅)한다고 한다.

둘째, 마음이 찰나 생, 찰나 멸하면서 진행되지만 앞의 마음과 뒤의 마음은 무관하지는 않으며 서로 연관되어 있다. 마치 도장을 찍었을 때 도장에 새겨진 것과 종이에 찍힌 것이 서로 다른 것이지만 연관되어 있고, 초에서 초로 촛불이 옮겨질 때 앞의 촛불과 뒤의 촛불은 다른 것이지만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과 같다.

셋째, 마음은 물질이 아니다. 현대의 과학자들 중에서 마음은 대뇌의 작용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마음과 물질은 서로 의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것으로 이해한다. 마음이 눈, 귀, 코, 혀, 몸, 심장토대 등의 물질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마음과 물질은 다른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일어나는데 대뇌라는 물질이 주요한 조건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지만 대뇌가 마음은 아니다. 씨앗과 열매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씨앗과 열매가 같은 것은 아닌 것처럼, 물질과 마음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물질과 마음이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물질 없이 마음만이 존재하는 무색계(無色界)에 대해 경전에 설명돼 있는 것을 보면 대뇌가 마음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음이 대상을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마음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불행을 느낄 수 있으며 마음을 통해서 범부가 될 수도 있고 부처가 될 수도 있다. 이는 마음이 대상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마음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마음을 쓰고 살면서 마음을 쓰는 방법도 모르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마치 매일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자동차의 운전법을 모르고 운전하는 사람처럼 매우 위험하다. 안전하게 운전을 하려면 바른 운전법을 배워야 하듯이 삶을 행복하게 살기위해서는 마음의 운전법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끝으로 미얀마에서 딸을 가진 부모님들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그

아는 작용을 하는 그 자체가 '마음'이다
마음의 대상 어떻게 아느냐에 행복 달려

들은 사위가 될 사람이 자신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 결혼 승낙을 받으러 찾아오면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 "자네 욕심과 성냄을 다스리는 방법을 아는가?" 만약 안다고 대답하면 흔쾌히 승낙을 해준다. 만약 모른다고 대답을 하면 "자네는 욕심을 다스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내를 배려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것이고, 화가 나면 화를 다스리지 못해 아내에게 화를 퍼부을 텐데 자네를 어떻게 믿고 내 딸을 시집보내겠는가? 자네에게는 내 딸을 줄 수가 없네"라고 거절을 한다고 한다. 우리는 욕심과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아는가? 자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일묵 스님(제따와나 방배선원장)



이재복 지음(280면)
정가 12,000원



이재복 지음(280면)
정가 12,000원

※ 누구든지 그림을 보고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폐결핵,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쫓겨나서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 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빛 살림
정正골骨요법

침, 뜸, 부항, 물리치료, 척추교정, 무중력 감압치료, 수술, 경락, 지압 등 대증치료를 오래도록 받았어도 증상이 계속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책을 읽고 오셔서 한번만 체험해보시면 대번에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전신의 상쾌함을 곧바로 몸이 느끼게 됩니다.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운동법이 사람을 살립니다.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어깨통증, 오십견, 협착증, 좌골신경통, 목 뻣뻣, 수족냉증, 갑상선, 안면마비, 휜다리, 암, 교통사고 후유증, 우울증, 불면증
당뇨, 아토피, 부정맥, 류마치스, 협심증, 두통, 심근경색증, 생리통, 발기부전, 전립선, 체온저하증, 골병으로 인한 통증, 적취**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꽉차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 요법.
자궁근종, 암수술전 · 후. 항암치료 마치신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책. 강력하고 놀라운 디톡스로 몸속을 대청소한다.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싹~ 뽑아내서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 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www.chgg.co.kr/b1020

**책 구입시
『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 정골본가(이영숙) 서울 성수동1가 14-35(우영B/D 4층) ·제2010-서울성동 0204호 ·207-01-43500

■ **도서구입안내**
빛살림 요법 강좌세트(2권). 책값 20,000원을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 **농협계좌 : 농협 : 751017-52-024285 김순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책신청 : 054)637-9810

전국 곳곳에서 부처님 만나세요

조계사 등 전국 사찰 가족단위 프로그램 다채

전국은 봉축 열기로 가득하다. 4월 11일부터 시작된 봉축준비는 4월 26일 서울시청 앞 점등식을 시작으로 그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 봉축축제는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

4월 27일 조계사에서는 독거노인과 재소자 등 소외된 이웃에게 자비선물을 전달하고, 포교사단은 4월 30일과 5월 16일에 동대·건대·삼성병원에서 어린이 환우들을 위한 공연을 펼친다.

5월 1일 조계사에서 장애인 및 다문화 가정의 합동결혼식, 5월 3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소록도의 군자병과 재소자, 독거노인을 위문 방문한다.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행사도 다양하게 준비됐다. 광명사 전국어린이 웅변대회, 월정사 어린이 출가체험, 파라미타청소년 전국 청소년 사경 디자인 공모전 등이 개최된다.

목아불교박물관에서는 전국어린이 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 도선사에서는 어린이 사생대회, 대구봉축위원회에서는 어린이 율동 경연대회와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를 각각 개최한다.

부산불교연합회에서는 비보이 경연대회도 열어 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어린이·청소년 잔치 한마당이 진행 된다.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회도 전국에서 펼쳐진다. 서울에서는 4월 29일 니르바나필하모닉 공연이 KBS홀에서, 5월 10일 종교평화음악회가 조계사에서, 홍천과 울진에서는 산사음악회가, 부산·거제·상주·예천 등에서도 봉축 음악회를 준비했다.

연등행렬은 5월 7일 동국대 앞에서 시작해 조계사까지 이어지며, 8일에는 조계사와 그 일대에서 공연마당, 무대마당 등 풍성한 볼거리로 온 가족 주말 나들이에 제격이다.

불자가 아니라도 즐겁게 참여 할 수 있다. 5월 8일 외국인 등만들기 체험에 미국, 네덜란드 러시아 등 해외 각지의 200여 명의 외국인도 참여한다.

정리=천진영 기자


2010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지역별 봉축행사 일정

서 울

날 짜	행사명	장소	연락처
4월 25일~30일	봉은사 봉축 특별 초청법회	봉은사 법왕루	02)3218-4810
4월 27일~30일	조계사 작은 음악회 '가피'	조계사	02)732-2183
4월 29일	제4회 보리수 아래핀 연꽃들의 노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	011)2367-2611
4월 29일~5월 22일	제5회 청소년 디지털사진 공모전	조계사, 도선사, CBL갤러리	011)341-9411
4월 30일~5월 16일	어린이날을 위한 환우 잔치 마당	동국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건국대병원	02)9027-0589
4월 30일~5월 1일	조계사 화합한마당	조계사	02)732-2183
5월 1일	조계사 다문화가정 결혼식	조계사	02)720-4528
5월 1일	제41회 부처님오신날 웅변대회	광명사	02)732-5509
5월 2일	조계사 효음악회 및 경로잔치	조계사	02)732-2183
5월 2일	도선사 어린이 사생대회	도선사	02)993-3161
5월 3일~15일	봉은사 전통등 전시회	봉은사	02)3218-4810
5월 5일~10일	봉은사 봉축템플 문화한마당	봉은사	02)3218-4810
5월 6일	봉은사 독거어르신 돕기	성북, 강남구 일대	02)3218-4810
5월 7일	도선사 거리탁발	강북구 일대	02)993-3161
5월 7일	봉축 어울림 마당	동국대 대운동장	
5월 7일	연등행렬	동국대-조계사 앞	
5월 7일	회향 한마당	보신각 사거리	
5월 8일	외국인 등만들기 대회	조계사 앞길	
5월 8일	불교문화한마당	조계사 앞길	
5월 8일	공연마당	조계사 앞길	
5월 8일	연등놀이	조계사 앞길, 인사동	
5월 8일	제11회 청소년 음악놀이 페스티벌	조계사 앞길	02)723-6165
5월 28일	봉축 특별세미나	동국대 덕암세미나실	02)2260-8508

경기도

날 짜	행사명	장소	연락처
4월 26일	양평 관등문화축제 점등식	양평군청	031)772-8776
4월 30일	수원 연등축제	수원 화성행궁, 용주사	031)226-3488
4월 30일	용인 연등축제	용인중학교	031)332-1374
4월 30일	안산 봉축점등식 및 탑돌이	안산 로데오거리	031)403-0108
5월 1일	오산 이주민돕기 후원바자회	오산역 광장	031)334-5702
5월 3일	인천 봉축지도자법회	인천 하버파크 호텔	032)434-9910
5월 3일	인천 경승단 봉축법회	인천지방경찰청	032)434-9910
5월 3일	이천 연등축제	이천 공설운동장	031)632-7721
5월 4일	고양 연등축제	화정 중앙공원	031)969-0108
5월 6일	인천 자비쌀 전달식	인천시청	032)434-9910
5월 7일	의정부 연등축제	의정부 행복로 특설무대	031)875-6214

충청도

날 짜	행사명	장소	연락처
4월 26일~29일	청주 불교미술전시회	청주 예술의전당 소전시실	043)267-0108
4월 29일	부여 연등축제	부여 정림사지	041)688-4583
4월 30일	공주 연등축제	공주고~연문광장	041)857-8981
5월 1일	대전 중앙탑 점등식	서대전광장	042)526-1080
5월 3일	계룡 연등축제	계룡 남선리	041)857-8981
5월 5일	계룡 삼군본부 연합 봉축법회	삼군본부	041)857-8981
5월 5일	천안 연등축제	천안 제일고	041)581-5581
5월 5일	충주 중앙탑 점등식, 봉축법회	충주실내체육관	043)851-8477
5월 6일	청주 구제역 축생천도재 및 문화행사	무심천 행사장	043)647-2840
5월 7일	대전 연등축제	서대전광장	042)526-1080
5월 14일~15일	공주 마곡사 신록축제	마곡사	041)841-6221

〈제주도〉

날 짜	행사명	장소	연락처
5월 7일	제주 연등행렬	관음사	064)724-6830
5월 9일	부처님 오신날 전야제	관음사	064)724-6830

강원도

날 짜	행사명	장소	연락처
4월 30일	속초 연등축제	속초 엑스포광장~동명항	033)636-7393
4월 30일	원주 연등축제	원주시내	033)765-4848
5월 1일	강릉 연등축제	남대천변	033)643-2985
5월 3일	평창 월정사 어린이 출가체험	월정사 적멸보궁	033)339-6800
5월 3일	평창 연등축제	진부시내	033)339-6800
5월 6일	홍천 연합봉축법회	홍천 화랑사	033)433-1815
5월 6일	동해 연등축제	동해시내	033)534-7661
5월 7일~8일	제1회 신흥사배 축구대회	속초 신흥사	033)636-7393
5월 10일	춘천 연등축제	춘천시내	033)253-6542

경상도

날 짜	행사명	장소	연락처
4월 11일~5월 10일	영천 은해사 군부대 위문법회	13개 군부대 및 교도소	054)335-3318
4월 29일	경주 점등식 및 연등축제	경주역 광장	054)746-9912
4월 29일	의성 연등축제	의성문화체육회관	054)833-2324
4월 30일	김천 연등축제	김천시내 및 직지사	054)436-6174
4월 30일	울산 무차만발공양	태화강 둔치	052)266-3318
4월 30일	울산 태화강연등축제	태화강 둔치	052)266-3318
4월 30일	울진 점등식 및 산사음악회	울진 북녕사	054)783-5004
5월 1일	거제 연등축제	거제 실내체육관	055)634-0408
5월 1일	부산 문화한마당	부산 용두산공원	051)867-0501
5월 1일	상주 봉축음악회	북천둔치 야외음악당	054)535-2881
5월 1일	예천 연합봉축음악회	예천읍 고수부지	054)635-1365
5월 1일	대구 어린이율동경연대회	달서구 청소년수련관	053)623-6388
5월 3일	거창 점등식	거창읍 로터리	055)942-8687
5월 3일	창원 봉축음악회	마산운동장 광장	055)222-1393
5월 3일	경산 연합봉축법회	경산 실내체육관	053)816-8762
5월 7일	마산창원진해 연합 연등축제	창원시청 앞	055)222-1393
5월 7일	밀양 연등축제	밀양시내	055)255-4518
5월 7일	부산 연등축제	구덕운동장~용두산공원	051)867-0501
5월 7일	대구 연등행렬	대구 두류야구장~반월당	053)982-0101
5월 8일	거창 연등축제	거창읍내	055)942-8687
5월 9일	대구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대구 두류야구장	053)623-6388
5월 9일	대구 봉축전야제	대구 천태종 대성사	053)623-6388
5월 10일	대구 자비광명기원 타종식	대구 경상감영공원	053)623-6388

전라도

날 짜	행사명	장소	연락처
4월 25일~5월 10일	남원 장엄등 전시회	남원 요천수	063)636-4883
4월 30일	남원 연등축제	사랑의 광장	063)636-4883
5월 1일	보성군민화합한마당연등축제	최동선음악당	061)857-2328
5월 3일	해남 연등 축제	대흥사	061)534-5502
5월 4일	전주 6탄 약창 연등제	6탄약창장영사	063)548-4441
5월 5일	구례 봉축 어린이날 행사	구례둔치	061)783-7600
5월 6일	김제 연등축제	김제시청옆쌈지공원	063)548-4441
5월 6일	광주 빛고을 연등축제	광주시내일대	062)376-3223
5월 7일	전주 연등축제	전주시청광장	063)548-4441
5월 7일	봉축 경로잔치	구례노인전문 요양원	061)783-7600
5월 8일	익산 연등축제	익산경기장	063)836-8047
5월 10일	고창 보은염 공양	선운사	063)561-1422



부처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성 지 순 례
마하연 투어 여행 상품 안내

미 얀 마
■ 출발일 : 6월 8일, 6월 21일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1,690,000원
■ 출발일 : 5월 18일, 5월 27일
– 양곤 | 바간 | 헤호 6일
1,590,000원
■ 양곤 | 바간 5일 1,090,000원
* 모두 포함된 일정, 추가요금 없습니다.
* 확정된 날짜 이외에도 출발 가능합니다.

중국 · 티벳
■ 5월, 6월 출발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 항주 5일
1,090,000원
– 관음도량
구화산 | 보타산 | 황산 6일
1,140,000원
– 마음은 다시 티벳으로
하늘열차 티벳 8일

태국 · 캄보디아
■ 출발일 : 5월 18, 19, 22, 24, 29, 31일
방콕 | 파타야 5일 599,000원
특전 : 초특급리조트, 태국특식 3회, 다양한 관광
■ 출발일 : 5월 20, 21, 24, 28일
씨엠립 (앙코르왓) 특급 5일
499,000원
특전 : 특급호텔, 곤돌라투어, 특식
* 유류세 및 각종 팁 불포함

미얀마 종교성 관련 전문여행사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마하연투어
☎ 02)365-7747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벳]

LEADER

미얀마 양곤 신도시 나인따야에 위치한 5만평 대지
코리아 기술 종합 대학교



2010년 12월 12일 신축 공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학교 관리자는 미얀마 종교성 장관이 자동으로 선임되고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에서 운영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후진국 빈곤 청소년들에게 살아가는 삶 자체를 바꾸어 주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중생의 지팡이가 되시고자 하시는 참다운 불자, 숨은 봉사자를 찾습니다.

초 빙 안 내
총장, 명예 교수 겸 운영이사

자 격 : 부처님의 제자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 1년에 1주일이상 학교에 머물며 학교 건축 및 운영 전반에 직접 참여할 모든 종단 및 남녀불문하고 스님 및 재가자를 모시고자 하며, 총장 선임자는 교육계 정년 퇴임자 중 헌신 봉사할 불자를 찾습니다.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외교법인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이사장 목탁 혜은 합장 대표 전화 02)733-5665, 011-229-6061
국 제 불 교 지 도 자 협 회



윤창화의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㉚

하안거와 동안거

결제는 정진해 부처되자는 무언의 결의



2009년 화엄사 선등선원 하안거에서 스님들이 참선을 하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안거(安居)'란 곧 우안거·하안거의 약칭으로서 몸과 마음을 고요(靜止)하게 하여 일정 기간 정주(定住)함을 뜻한다. 산스크리트어로는 바르시카(varsika)·바르샤(varsa)라고 하고, 팔리어로는 밧사(vassa)라고 하는데, 모두 우기(雨期)를 뜻한다.

우기가 곧 안거임을 뜻하게 된 것도 인도의 기후와 관련이 있다. 인도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가량이 몬순(monsoon:계절풍)기로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린다. 저지대는 모두 물에 잠기고, 서식하는 벌레·개미·파충류 등 생물들은 모두 고지대로 이동한다. 이때 수행자들이 다니면 위험하고, 많은 생명을 밟아 죽이게 된다. 그래서 일정한 곳에 모여 정주(定住)하면서 외출을 금하고 좌선 수행토록 했는데, 이것이 안거제도의 기원이다. 본래 바라문 사이에 행하던 것을 불교에서 채용한 것이라고 한다.

인도에서는 본래 하안거만 있었고 동안거는 없었다. 동안거가 생긴 것은 불교가 중국·한국 등 북방으로 전해진 이후인데, 북방에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동안거를 신설해 하안거 때와 같이 일정 기간 한 곳에 정주(定住)하면서 좌선 수행토록 한 것이다. 동안거를 일명 '설안거(雪安居)'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에서 처음 동안거를 실시한 것은 여러 종파 중에서도 선종(禪宗)이라고 한다. 〈범망경〉에는 하안거와 동안거에 대해 함께 서술했지만, 실제 선불교 이전에는 동안거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의 선승 도원(道元:1200~1253)은 〈정법안장〉 '안거'장에서 "〈범망경〉에는 '동안거'라는 말이 있지만 그 법(동안거)은 전해지지 않았으며, 다만 구순안거(九旬安居, 하안거) 법만 전해졌다(梵網經中, 雖有冬安居文, 其法不傳, 但九旬安居法傳焉(선림상기전, 3권, 冬安居)"라고 말하고 있다.

우기 때 해충 피하려 안거 시작

북방에선 폭설 영향 동안거 신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동안거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일본에서는 '영평 도원 이후'라고 한다. 도원(道元, 1200~1253)이 묵조선의 본산 천동사에서 4년간 수행하고 돌아온 이후인데, 이로 본다면 중국에서도 선종 이전에는 실제 동안거가 실시되지 않았던 것 같다. 동안거는 현재 중국·한국·일본에만 있고, 동남아는 물론 티벳트에도 없다. 다만 선불교에서 언제쯤 처음 동안거를 시작한 것인지는 앞으로 고증해 볼 필요가 있다.

하안거를 '좌하(坐夏)' '좌랍(坐臘)'이라고 하며, '일하구순(一夏九旬, 여름 90일)' '구순금족(九旬禁足, 90일 동안 금족함)'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안거가 시작되는 것을 '결하(結夏, 하안거를 맺다)' '결제(結制, 일정한 기간을 묶다)'라고 하고, 안거가 끝나는 것을 '해하(解夏, 하안거를 풀다)' '해제(解制, 묶은 것을 풀다)'라고 한다.

안거 90일을 2분(二分)해 앞을 '전안거(前安居)', 뒤를 '후안거(後安居)'라고 하고, 또 90일 가운데 반(半)이 되는 45일을 '반하(半夏)'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반결제' 또는 '반살림'이라고 한다. 시작이 반인데 이미 수행기간의 반을 채웠으니 나머지 기간도 아무런 마장(魔障)없이 공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안거 결제일은 해제일·동지·정월 초하루와 함께 총림에서는 4절(節) 가운데 하나일 만큼 큰 행사다. 결제날에는 총림의 모든 대중과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제법어·다회(茶會)· 대중공양 등 많은 행사가 이어진다. 특히 이날 점심공양은 보기 드문 성찬이다. 결제의식은 석 달 동안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원만히 안거를 마칠 것을 발원하는 행사이며, 동시에 열심히 수행 정진해 부처가 되자는 무언의 결의가 담겨 있다.

청규에서도 결재의식 당일 날 어떤 행사를 했는지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선원청규〉 2권 '결하(結夏)'장과 〈칙수백장청규〉 '결제예의' 장에 나와 있으나 주로 상견례가 많다.

결제날이 되면 새벽 예불 후 수좌·유나·감원 등 대소 소임자들과 대중들은 모두 방장실로 가서 삼배를 올린다. 대중들은 "안거가 되어 건병(巾甁, 수건과 물병, 즉 방장화상을 모시게 됨을 뜻함)을 받들게 됐습니다. 오직 방장화상의 법력에 의지하오니 난사(難事) 없기를 바라나이다"라고 하면, 주지는 답례로 "다행히 함께 안거를 하게 되었소. 또한 바라건대 모든 대중들도 서로 법력을 도와서 어려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라고 한다. 이어 아침 공양을 마치면 법당에서 주지의 결제법문이 이어진다. 그리고 각 소임자들과 대중들은 돌아가면서 상견례를 하는데, 그 대상과 과정 등이 매우 복잡하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것은 결제 동안 다툼 없이 원만하게 안거를 회향하자는 의미다.

당송대에는 안거 기간에 '오참상당(五參上堂)'이라고 하여, 매월 5·10·15·20·25·말일 이렇게 여섯 차례 상당법어가 있었다. 그리고 인도불교에서는 결제 기간에는 보름에 한번씩 '포살'을 통해 모든 대중이 모여 법문을 듣고 파라제목차[戒조목]를 낭송했다. 또한 각자 계율에 저촉되는 일이 있으면 참회했다. 해제일에는 대중들로부터 잘못을 지적받는 자자(自恣)의식도 함께 행했는데, 선원총림에서도 이런 의식이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선원청규〉와 〈칙수백장청규〉 등에도 언급이 없다. 율장이 중국에 전해지기는 했어도 그대로 시행되지는 않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런 행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해제일의 의식은 결제 때와 비슷하다. 아침 공양 후 해제법어가 끝나면 모든 대중들은 승당에 모여 해제 인사를 한다. 먼저 수좌·감원·유나 등 6지사와 6두수들이 방장화상에게 "법(法)은 원만했으며, 일체 난사(難事)는 없었습니다. 이는 생각건대 모두 방장화상의 도력 때문입니다. 그 은혜 감당할 수 없나이다"라고 하면, 방장화상도 "원만히 안거를 마치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한다.

그런 다음 6지사와 6두수가 다 함께 대중에게 고한다. "대중들께서는 모름지기 다탕(茶湯, 차 공양)을 드시고 행각 길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뜻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다음 대중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석별(惜別)의 차(茶)'를 마신다. 덕담(德談)을 나뉘어 가며 차 공양이 끝나면 대중들은 소임자와 문도 등 일부만 남고 모두 행각 길에 오른다. 총림에서는 떠나는 납자들에게 짚신 2~3켤레 정도의 노자(路資)를 준다. 납자들의 행각은 단순한 행각이 아니라 수행의 연장선상에서 만행(萬行)을 하고 훌륭한 선승을 찾아가서 그동안 공부한 것을 절차탁마하는 기간이다.

하안거 결제일은 총림 4절 중 하나

납자의 행각은 공부의 절차탁마

여기서 유명한 해제 법어를 하나를 소개한다. 취암영참(翠巖令參)선사가 해제날(夏末)에 설한 법어로서, '취암하말(翠巖夏末)' 또는 '취암미모(翠巖眉毛, 취암선사의 눈썹) 공안'이라고 한다. 〈벽암록〉 제8칙에 나온다.

취암화상이 하안거 해제일에 법상에 올라가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 속은 필자의 해설, 또는 삽입어이다.

"여름 결제 동안 줄곧 나는 형제(대중)들을 위하여 설법했소. (고사에 법을 잘못 설하면 눈썹이 빠진다는 말 있는데…) 자, 보시오. 아직도 내 눈썹이 남아 있습니까?"(선의 세계는 개구즉착이다. 당연히 눈썹이 남아 있을 리가 없다). 보복(保福) 화상이 말했다 "도둑질한 놈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하였다.(취암화상은 개구즉착임을 뻔히 알면서도 석 달 동안이나 살금살금 언어로 도둑질 했으므로…) 이에 대해 장경(長慶) 화상은 "눈썹이 점점 더 자라고 있군"이라고 했다.(훌륭한 법문을 했으므로 오히려 자라고 있다는 것) 운문(雲門) 화상은 "관(關, 관문)"이라고 했다. 그 자체가 활구법문이라는 뜻이다(翠巖,夏末,示衆云. 一夏以來,爲兄弟說話,看翠巖眉毛在麽.保福云.作賊人心虛.長慶云.生也.雲門云.關).

동안거 때는 12월 1~ 8일까지 7일간 용맹정진을 하는데, 중국 선원총림에서는 이것을 '선칠(禪七)'이라고 하여 하루 3시간 정도만 자면서 정진한다. 우리나라는 전혀 잠을 자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12월 8일 새벽 별을 보고(見明星) 도(道)를 깨치셨으므로 그것을 기념해 우리도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의지이다.

납자로서 하안거를 무사히 마치는 것을 '과하(過夏)'라고 하고, 금족(禁足)의 규칙을 깨고 밖으로 다니는 것, 또는 중도에 탈락하거나 안거를 그만 두는 것을 '파하(破夏)'라고 한다. 스승의 입적이나 부모의 사망, 또는 건강상 이유 없이 파하를 하면 당사자의 이미지에 크게 손상이 간다. 그리고 안거를 마치면 해당 총림에서는 '좌하유(坐夏由)'라고 하여 안거증명서를 준다. 좌하유는 다음 괘탑(掛塔, 입방)시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된다. 이것이 없으면 다음 안거 때 입방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따른다.

결제 때에는 소임을 정해 그 명단을 벽에 붙이는데 그것을 '집사단(執事單)'이라고 한다. 집사(執事)란 소임자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용상방(龍象榜)이라고 하며, 깨달아서 용상 같은 존재가 되라는 뜻이다.

결제일에 대해서는 4월 15일~ 7월 15일까지와 4월 16일~ 7월 15일까지 두 가지 기록이 있다. 시작하는 날에 하루 차이가 있는데, 각각 문헌적 근거를 갖고 있다. 〈사분률산번보궐(刪繁補闕)행사초〉에는 "안거(하안거)는 4월16일에 시작해 7월15일에 마친다"고 기록돼 있으며, 이 기준을 따른다면 동안거는 10월 16일부터 다음 해 1월15일까지가 된다. 물론 인도에는 동안거가 없었다.

그런데 중국 선종사원에서는 이와는 달리 4월 15일~ 7월 15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선원청규〉 2권 '결하(結夏)'·'해하(解夏)'장 그리고 〈칙수백장청규〉 '월분수지(月分須知)'장에 기록돼 있는데, 두 곳 모두 동안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것은 동안거가 정식 안거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하안거 결제일에 준하면 동안거는 10월 15일부터 다음해 1월 15일까지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안거는 4월 15일~ 7월 15일까지, 동안거는 10월 15일부터 다음해 1월 15일까지로서, 중국 총림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hanghwa9@hanmail.net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㉗ 뤄양의 용문석굴

당나라 옷을 입은 용문석굴



뤄양의 용문석굴은 높이 20m로 당나라 불교미술의 최고 걸작이라 할 수 있다.

뤄양(洛陽, 낙양)은 중국 불교가 꽃피던 북위시대의 정점에 서있었다. 정관(貞觀) 원년(627)에 뤄양은 전란의 상처를 딛고 당나라 동쪽의 수도라는 뜻의 '동도(東都)'로 불리며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특히 측천무후 시대에는 엄청난 활력을 가진 도시로 탈바꿈 했다. 측천무후의 본래 고향이 뤄양인 탓도 있었지만, 장안(長安)과 떨어진 곳에 새로운 정치적 흐름을 만들고자 한 의지도 결합됐다. 이런 흐름이 용문석굴에 담겨있다.

지금도 용문석굴을 찾는 이들은 그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불상은 20m크기로 그 모습은 당나라 불교미술의 최고 걸작이라 할 수 있다. 단단한 석회암을 파고들어가 용문석굴 중앙에 높이 새겨진 노사나불(盧舍那佛)의 모습은 경외심이 들게 한다. 불상의 북쪽 대좌에는 불상을 조성한 연유가 담긴 '대노사나상감기(大盧舍那像龕記)'가 새겨져 있다.

용문석굴, 뤄양에 불교문화 다시 꽃피워

당나라 시대의 불교 신앙의 흐름 보여줘

불상은 '당의 고종과 측천무후가 함형(咸亨) 3년(672)에 발원해 상원2년(675)에 완성됐다'고 기록돼 있다. 불상의 높이는 20.16m이며, 좌우에는 가섭과 아난, 두 분의 협시보살상, 천왕상이 새겨져 있다. 용문석굴은 인도로부터 넘어온 불상의 양식이 중국적으로 수용돼, 새로운 불교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용문석굴은 북위시대 태화 19년(495)에서부터 영희 4년(535)년 까지 조성됐다. 총 200여구의 불상이 조성됐는데, 석가모니불이 43존, 미륵상이 35존, 관음상은 19존 정도가 조성됐다. 이런 불상조성은 북위시대 사람들이 현실에 대한 구원과 미래의 대한 기대감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나라 시대에는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에 대한 조성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앞선 시대의 신앙적 흐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화엄 신앙인 노사나불이나 정토신앙에 바탕을 둔 아미타불, 밀교와 연관이 있는 불상들이 용문석굴을 통해 당나라 신앙의 흐름을 보여준다.

특히 미륵정토를 신앙하던 모습이 아미타불을 신앙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은 신앙의 흐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말법신앙의 유행과 더불어 시작된 지장신앙도 이러한 불교신앙의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노사나불 같은 불상이 조상된 것도 국가적으로 성행한 화엄 신앙에 힘입은 것이다. 이밖에 선종에 영향을 받은 나한상들도 용문석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용문석굴은 정관 15년(641)에 소규모로 개착됐으나 끝을 다 맺지 못해, 빈양북동과 남동에 당나라 흔적이 남겨지게 됐다. 용문석굴은 당나라 시대로 들어오면서 화려한 종파적 특색을 지니게 됐다. 중국불교의 모습과 인도와 중국적 변용을 거친 불교미술이 혼재하면서 새로운 신앙의 흐름을 보여준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김양수의 **선화(禪畵) 읽기**



꽃바람

훈훈한 바람과 따스한 햇살은 꽃을 피게 합니다.
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피지 않을 것이며
향기 또한 자신을 위해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가꿔 나누고자 하는 큰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름다운 꽃들 앞에서 흐트러진 옷맵시와
마음을 다듬어 봅니다.



한국화가(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

한국의 **선시감상**⑨ **조선 청허휴정 선사의 '사야정(四也亭)'**

나와 자연이 둘이 아닌 경지

水也僧眼碧 (수야승안벽) 물은 스님의 푸른 눈
山也佛頭青 (산야불두청) 산은 부처님의 푸른 머리
月也一心印 (월야일심인) 달은 한 마음의 도장
雲也萬卷經 (운야만권경) 구름은 만권의 경전

조선 청허 휴정(淸虛休靜: 1520~1604) 스님은 오랫동안 묘향산에 머물렀으므로 서산(西山)이라고도 한다. 보우 스님이 부활한 승과(僧科)에 합격해 선교양종판사가 됐으며 임진왜란을 당해 승병을 일으켜 호국불교사상을 드높이기도 했다. 〈선가귀감(禪家龜鑑)〉 등 다수의 저술을 남겨 선교겸수(禪教兼修)를 주창하는 등 조선후기 불교사상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스님은 "모든 병은 중생의 마음에 있으니 어찌 수고로이 많은 글자를 모으겠는가. 오언절구의 시로 평생의 뜻을 다 쓸 수 있다"고 여겨 오언절구를 즐겨 지었다. 때문에 선가문학의 집성자라고 할 만큼 시문으로 주목받는다. 이 시는 스님의 작시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기교나 수식에 힘쓰지 않은 간결함과 진솔함이 돋보인다.

물에서 눈 밝은[碧眼] 스님을 보고 산에서 부처님의 삭발한 파르스름한 빛을 본다. 물은 항상 흐르며 번뇌를 청정하게 씻어준다. 성성하게 깨어있는 눈 푸른 납자의 모습이다. 산은 움직이지 않고 항상 여여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동함을 비유했다. 달은 불성 · 자성을 상징한다. 하나의 달이 천강에 각각 비추되 그 달은 하나일 뿐[月印千江]이다. 구름은 항상 변화하며 실체가 없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희고 깨끗해 조금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마음의 체를 상징한다. 청산과 백운과 수월은 모두 심인(心印)의 표상으로서 상(相)과 체(體)를 중첩시켜 중생과 불(佛)이 다르지 않은 불법의 요체를 해맑은 아이의 시상(詩想)으로 간결하면서도 쉽게 보여주었다. 봄날 산수(山水)를 찾아 이 시를 읊조려 보자. 나와 자연이 둘이 아닌 경지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원법 스님(성균관대 문학박사)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국제 선 불교 조계종

회장 : 목탁 혜은 부회장 : 금당 법성
포교원장 : 불도 천장 교육원장 : 현담 송광 감찰원장 : 일해 공심
대표전화번호 : 733-5665, 011-229-6061

“이제 그대의 끝없는 무명번뇌는 멀리 날아가 버렸네!”

보봉사 ②

2차 순례 길에서 야단법석 때마다 수불 스님 좌우에서 자리를 지켜온 두 분 도반스님을 소개할 때가 온 것 같다. 한 분은 철오 스님인데 가끔 수불 스님의 안경알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는 모습에서 스님의 진심이 드러나는 것 같아 인상적이었고, 또 한 분은 하루를 접고 숙소에 들었을 때 어김없이 따뜻한 차를 우리는 모습에서 도반 간의 우정을 느끼게 했던 법일 스님이다.

마조 대사 사리탑에서 전해지는 기운을 받아서인지 수불 스님은 신바람 나게 법문을 하신다. 앞뒤 자르고 아무 곳을 들어도 법문의 핵심이 그곳에 들어 있다. 선지(禪旨)를 체득하고 설하기 때문에 회통하고 있지 않나 싶다.

“ 스님, 요즘 어떠십니까.”
“일면불! 월면불!”

여전히 새소리는 귀를 맑히고 왕대나무 숲의 바람은 눈을 시원하게 씻는다. 법석의 자리가 더 없이 상쾌하다. 순례자 일행 모두 법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

“마조 스님께서 이쪽을 거닐면서 많은 말씀을 남겼고 돌아가실 즈음에 일면불 월면불 하는 얘기도 이쪽 장소에서 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조록〉에 나오는 ‘일면불 월면불’의 공안은 이렇다. 당 정원 4년 정월에 마조 대사가 석문산에 올라 숲속을 거닐다가 허물어진 동굴을 보고서는 시자에게 말했다.

“다음 달 나의 육신이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마조 대사는 산에서 돌아와 곧 몸져누웠다. 원주가 와서 물었다.

“스님, 요즘 어떠하십니까.”

이에 마조 대사가 말했다.

“일면불(日面佛)! 월면불(月面佛)!”

일면불 월면불의 근거는 보리유지(菩提流支)가 번역한 〈불설불명경(佛說佛名經)〉 제7권에, ‘또 한 부처가 있는데, 이름은 승성(勝聲)이라고 한다. 승성불의 수명은 백억 세에 이른다. 승선세존을 지나면 다시 한 부처가 나타나는데, 그 이름은 월면이다. 월면불의 수명은 하루 낮 하루 밤이다. 월면세존을 뒤로 하고 나아가면 다시 또 한 부처를 만나게 되는데, 일면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처이다. 일면불의 수명은 1800 세에 이른다’라고 나온다.

이를 참고로 ‘사람의 수명은 여러 가지다’ 정도로 이해되어 왔으나 마조 대사가 왜 하필이면 일면불 월면불을 말씀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내 나름대로 허물을 지어보자면 마조 대사의 가풍인 ‘평삼심이 도다’를 또 다르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볼 뿐이다. 수불 스님은 스님 나름대로 선해(禪解)를 하신다.

“일면불 월면불 하는 소리에 골탕 먹은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여기 오면 혼날까 봐 흔백이라도 가까이 못 올 겁니다. 여러분은 일면불 월면불에 대해서 좀 아시겠습니까. 남들은 뭐 해와 달이라고도 하고 낮과 밤이니 하고 별 의미를 다 붙이지만 허망한 소리지요. 마조 스님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일면불 월면불 하고 얘기하신 겁니다. 부처 불자는 왜 붙였는지 일면 월면 해도 그만일 건데.

마조 스님의 유적지에 와서 한때를 보낸다는 사실이 어찌 보면 무겁기도 해요. ‘평상심이 도다’라는 마조 스님의 가풍을 우리가 잘 써야 하는데 스님께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조 스님은 한두 마디 말로도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었고, 발길로도 깨닫게 해주었는데 말입니다.”

마조 대사의 발길질에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은 수로(水老)화상의 선화다. 수로가 마조 대사를 친견하고 난 뒤 물었다.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마조 대사가 말했다.

“절부터 하라.”

이에 수로가 절을 하려고 하는데 마조 대사가 느닷없이 발길질로 걷어찼다. 순간 수로는 문득 깨달았다. 수로는 법열에 겨워 손뼉을 치며 앙천대소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참 멋지구나! 멋져! 백천의 삼매(三昧), 일체의 묘의(妙義), 이 모두가 오로지 한 터럭 끝에 있어, 문득 그 근본을 뚜렷이 깨달을진저.’

수로는 마조 대사에게 절하고 물러나 대중에게 고했다.

“대사님께 한 번 차이고 나니 이렇게 웃음이 한이 없습니다.”

수로 화상에 대해서는 홍주에서 살았고 마조 대사의 제자로 알려져 있을 뿐 생몰 연대는 미상이라고 한다. 아무튼 이 공안에서 묻는 사람에게 인정사정없이 치고 밀치는 임제의 가풍이 마조 대사로부터 비롯되었음이 느껴지는 선화다.

마조 대사는 한 마디 말로써도 많은 수행자들을 깨닫게 했으니 다음과 같은 선화도 선가에 많이 알려져 있다. 마조 대사는 건양의 불적령에서 잠시 머물다가 무주(강서성 임천현)의 서리산으로 옮겨 갔는데 그 무렵에 사냥꾼이었던 석공 혜장(石鞏 慧藏)을 만났다고 전해진다. 〈마조록〉은 혜장이 마조 대사를 만나 제자 가 되는 장면을 다음과 전하고 있다.

어느 날 혜장은 한 떼의 사슴을 쫓다가 마조 대사가 주석하고 있는 암자에 이르게 되었다. 마침 혜장은 밖에 나와 있던 마조 대사와 마주쳤다. 그때 혜장이 물었다.

“혹시 사슴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사냥꾼입니다.”

“화살을 잘 쏘겠구먼.”

“예.”

“화살 한 대로 몇 마리씩 잡는가.”

“한 마리요.”

“신통치 않군.”

“스님은 잘 쏘십니까.”

“암, 잘 쏘지.”

“한 번에 몇 마리씩 잡습니까.”

“한 번에 떼거리 전부를 잡지.”

정작 이 말의 속뜻은 한 번에 짐승을 잡는다는 말이 아니라 대중의 마음을 단번에 꿰뚫어 굴복시킬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었을까. “이도 저도 다 생명이 있는 것들인데 한 떼씩 잡아도 되는 겁니까.”

“그러한 것을 알면서 왜 그대 자신(무명번뇌)은 잡지 않는가.”

“저 자신(무명번뇌)을 잡으려 해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아, 이제 그대의 끝없는 무명번뇌는 멀리 날아가 버렸네!”

“이런 굴벙이 같으니라고!
절은 해서 어디에 쓰려는가.”

혜장은 그 자리에서 화살을 꺾어 버렸다. 그리고는 스스로 머리를 깎고 마조 대사 밑으로 출가했다.

20세 때 대중 스님들에게 〈열반경〉을 강의할 정도로 경에 밝았던 분주 무업(汾州 無業)선사도 마조 대사를 친견하고 난 뒤 대사의 한 마디에 비로소 깨닫게 된다. 〈마조록〉을 요약해 옮겨본다.


경내를 비질하는 보봉사 대중 스님.


마조 대사 사리탑 앞에서 안국선원 순례자들이 야단법석을 펴고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다.

무업이 마조 대사를 참방했다. 그의 풍채는 당당했고 목소리는 종소리같이 우렁찼다. 마조 대사가 무업에게 말했다.

“당당한 불당(佛堂) 안에 부처가 없군.”

그러자 무업이 무릎을 꿇어 절을 하고 말했다.

“삼승(三乘)에 대한 공부는 대강 해 마쳤습니다. 그런데 선문에서는 즉심시불이라 한다는 얘기는 전부터 들어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확실히 무슨 뜻인지는 아직 짐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마조 대사가 말했다.

“아직 짐작도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그밖에 별 다른 것은 없다.”

“달마 대사가 이 땅에 와서 비밀히 전한 심인(心印)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별 사소한 일에 신경을 다 쓰는군.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하게!”

이에 무업이 법당 밖으로 나가려 했다. 그때 마조 대사가 그를 불렀다.

“여보게!”

무업이 고개를 돌렸다. 순간 마조 대사가 한 마디를 던졌다.

“이것이 무엇인가.”

마조 대사의 이 한 마디에 무업은 홀연히 깨달았다. 무업이 큰 절을 올리자 마조 대사가 볼멘소리로 말했다.

“이런 굼벵이 같으니라고! 절은 해서 어디에 쓰려는가.”

이후 무업은 절도사 등이 귀의해 왔으나 명리를 피하여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머물었고 목사 동숙전(董叔纏)의 간청으로 개원사로 돌아와 20여 년간 승속을 교화하였다고 한다. 그 사이에 현종의 부름을 두 번 받았으나 모두 거절하였고, 목종이 즉위하여 다시 불렀으나 응하지 않고 입적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많은 수행자를 깨닫게 한 마조 대사야말로 육조 정신의 계승자라고 수불 스님은 평한다.

“일찍이 육조 혜능 대사가 회양에게 ‘인도의 반야다라(般若多羅)가 예언한 바, 네 발 아래서 망아지 한 마리가 나와 천하 사람들을 다 밟아 죽일 것이다’라고 했어요. 마조 스님이 나와 천하 사람들을 깨닫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지요. 이를 보면 당시 성행하던 도참설에 기대어 육조의 정신적 계승자가 마조 스님이 될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조록〉을 강의한 지가 벌써 십 몇 년은 된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다면 훨씬 더 충실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수불 스님은 〈육조단경〉과 〈마조록〉의 차이를 짚는다.

“〈마조록〉은 〈육조단경〉에 비해 변화가 극심해요. 〈육조단경〉에 나오지 않는 변화가 〈마조록〉에 보이는 것을 보면 〈마조록〉이야말로 선종 어록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조록〉을 보면 몸과 몸이 부딪치는 역동적인 느낌이 듭니다. 육조 스님은 육신보살로서 아주 위엄 있게 부처님 법을 또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었다면, 마조 스님은 단도직입하는 입장에서 그냥 바로 일러라 하는 식의 수단을 제시하곤 합니다. 그런 모습이 〈마조록〉 가운데 많이 나옵니다.”

수불 스님이 마지막으로 〈마조록〉에 나오는 ‘고승이 된 마조 스님이 60세쯤에 고향 땅에 갔다가 한 노파에게 ‘대단한 스님이 오시나 했더니 겨우 키장이 마씨네 강아지로구먼’ 하는 소리를 듣는 일화를 들려주신다. 일화를 듣는 동안만큼은 마조 대사가 옛 조사가 아닌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인간적인 느낌이 든다.



순례자 일행은 선 채로 마조 대사 사리탑을 향해 삼배를 한다. 언제 또 다시 올지 모른다는 아쉬움을 일행 모두가 탑돌이로 달랜다. 〈계속〉

글=정찬주, 사진=유동영

since 1999 행복한 禪여행 아제여행사
다음검색 “아제여행사” ☎ 02) 730-4008
선사들의 서릿발 화두기가 지금도 강하게 흐르는 옛 선사들의 선적지!!
최고의 노하우 아제아제바라아제 아제여행사 !!!
초조달마대사 육조혜능선사 마조도일선사 백장회해선사 위산영우선사 양기방회선사 대혜종고선사 고봉원묘선사 무상선사
대만공승제에 초대합니다.
* 주요일정 : 타이페이 – 공승제 – 불광사 – 자재기금회 – 타이페이
* 행사일정 : 2011년 8월 18일 ~ 22일 (4박 5일) – 1차
2011년 8월 20일 ~ 24일 (4박 5일) – 2차
* 동 참 금 : 1,190,000/1인 (기사 가이드 팁 40불 / 1인 불포함)
중국 강호선종사찰 8일 (11분 선사)
남악회양 / 마조선사 / 백장선사 / 대우선사 / 황벽선사 / 위산선사 / 앙산선사석상선사 / 양기방회 / 석두희천 / 동산선사
• 출 발 : 6월 20일
• 동참금 : 1,590,000원 ~ / 1인
※ 뜰앞의 잣나무 (정찬주 작가) 증정
불탑의 나라 미얀마
(가사불사)
›› 5월22일~27일(6일)
›› 동참 : 1,690,000원
-100m 쉐다곤대탑
-탁발공양의 스님들
상해 / 항주 / 무석 / 보타산 6일
– 6월 3일 출발
– 1,090,000원 / 1인
지장보살 화현처 구화산 / 천하비경 황산
– 5월 26일 (5일)
– 1,090,000원 / 1인
부탄을 제일 잘아는 여행사
희말라야 은둔왕국 부탄 / 다질링 9일
차의지방 다질링 – 파로 – 수도 팀푸 – 여름왕궁 푸나카 – 파드마삼바바 수행동굴 탁상
출발 : 6/9, 7/14, 8/18 (월, 목 출발가능)
3,090,000 / 1인
▷ 홈페이지 일정참조 (http://www.ajetour.co.kr/)
great adventure!!
밀라레빠 파드마삼바바 아티샤 성인들의 이야기
티벳으로 떠나는순례
* 지구상 최고도를 달리는 청장 고원 하늘열차
* 달라이라마 정교일치의 궁 포탈라궁
(티벳 / 하늘열차)
▶ 6월 14일 출발 – 1,790,000원
▶ 7월 10일 출발 – 1,890,000원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61〉

알아차린 무엇이 있다면 깨져 죽는다

학승이 물었다.
"나무눈이 트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냄새라도 맡은 즉시 머리가 깨진다."
학승이 말했다.
"냄새를 맡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한가함을 공부하는 자는 없어."

問 萌芽未發時如何
師云 嗅著即腦裂
云不嗅時如何
師云 無者閑工夫

나무눈이 트기 전은 천지가 갈라지기 전,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의 본래 자리를 말한다. 즉 만물이 나오기 이전 근본 자리는 어떠한가 묻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조주 선사는 그것에 대해 어떤 낌새라도 알아차리는 것이 있으면 곧바로 머리가 깨어져 죽어버린다고 말한다.

근본은 볼 수 없고, 냄새도 없으며, 느낌으로도 알 수 없다. 그것이 본질이다. 만일 약간이라도 알아차린 '무엇'이 있으면 그것은 벌써 조작한 것이다. 근본과 10만8000리나 멀어진 것이다. 그것에 대해 무엇인가 알고 표현하면 곧 어긋난다.

전혀 낌새도 알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알아차리지도 못할 때가 평화로운 것이다. 진실에 가까이 다가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 것도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해도 역시 틀리다. 이 역시 본질에다 '알지 못한다는 상'을 세운 것이기 때문이다.

냄새도 없을 때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 아무 것도 없는 한가함을 굳이 공부해서 무엇 할 것인가. 아무 것도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야 말로 근본에 돌아간 사람이다. 부처의 마음바탕을 깔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알았으면 다만 일어나는 마음만 쉬어라.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수량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근본은 알 수 없는 것이라
안다면 근본과 먼 것이다

"1 2 3 4 5."
학승이 말했다.
"수량에 구속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1 2 3 4 5."

問 如何數量
師云 一二三四五
云數量不拘底事如何
師云 一二三四五

'1 2 3 4 5'. 이것이 수량이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 '1 2 3 4 5'. 이것이 수량에 구속되지 않는 말이다. 수량이 크다, 적다, 모자란다, 남는다 하고 집착하지 않는 도인도 수에 대하여 '1 2 3 4 5'하고 말한다.

학승이 물었다.
"어떤 세계가 낮과 밤이 없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즉금(即今)이 낮이고, 밤이야."
학승이 말했다.
"즉금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렇다면 노승이 어찌 무엇이라 하겠는가."

問 什麼世界即無晝夜
師云 即今是晝是夜
不問即今
師云 爭柰老僧何

밤과 낮은 항상 즉금(현재 이 순간)에 처해있다. 지금 이 순간은 밤 아니면 낮이다. 현재가 낮이면 가장 현실성 있는 순간이다. 현재가 밤이면 이 순간이 가장 현실성 있는 순간이다. 사람은 항상 낮 아니면 밤의 현재에 처해있다. 낮도 현재이고 밤도 현재이다. 그래서 조주 스님은 즉금이 밤이고 낮이라고 말한 것이다.

낮도 없고 밤도 없는 세계는 현재의 반대 세계이다. 알겠는가? 이 외에 더 이상 부연하지 않겠다.

무불선원 선원장

선어록 해제 41 한국선과 선어록 12 태고화상어록(太古和尙語錄)

자각과 개혁을 위해 보살행을

고려후기에 활약한 태고보우(太古普愚: 1301~1382)는 19세 때 만법귀일(萬法歸一)의 화두로 입참해 수행을 하고 38세 때 크게 깨쳤다. 46세 때 원나라에 들어가 임제종 제19세인 석옥청공(石屋淸珙: 1272~1352)을 참문하고 인가를 받아 중국의 임제종맥을 이었다. 48세 때 귀국해 공민왕의 왕사가 되었으나 신돈(辛頓)과 불화가 있었다. 이것은 당시에 신돈을 중심으로 하는 화엄계통과 태고를 중심으로 하는 선종과의 세력대결이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순수불교의 전통을 이어가려는 세력과 정치를 배경으로 한 세력과의 대결이기도 했다.

시자인 설서(雪栖)는 〈태고화상어록〉 2권을 편찬했다. 그 구성은 한국불교전서 제6권에 수록된 판본에 의하면 1385년 7월에 쓴 이색(李穡)의 태고화상어록서, 1387년 7월 27일에 쓴 숭인(崇仁)의 태고어록서, 목록, 권상, 권하, 부록 등으로 나뉘어 있다. 내용은 상당, 시중, 법어, 가, 송, 명, 음, 게송과 찬과 발, 그리고 부록에 수록된 석옥화상의 글[石屋和尙書], 석옥화상에게 올리는 글[上石屋和尙書], 석옥화상의 답서[石屋和尙答書], 대도의 제산의 장로들이 조정에 아뢰어 개당할 것을 청하는 글[大都諸山長老告朝廷請開堂疏] 등이다.

조사선을 중심으로
간화선 수행에 중점
염불과 정토도 강조

태고어록에 드러난 가르침은 자성미타의 염불선을 가르치는가 하면, 잡화삼매의 화엄선과 호법교화와 보은우세를 위한 원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것이 태고보우의 진면목이고 가치이며 선사상에 공헌한 의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특히 조사선의 가풍을 중심으로 한 간화선의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구자무불성화(狗子無佛性話)를 내세워서 이를 위해서 오매일여하고 성성력력하게 의단을 지닐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간화선을 강조하면서도 그에 머무르지 않고 온갖 근기를 상대로 갖가지 수행법을 제시했다. 특히 염불과 정토에 대해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염불의 중심은 아미타불이었다. 이 말은 본래 생사가 없는 무량수(無量壽)이고 깨침의 양태임을 나타낸 말로서 사람 모두에게 안락자재한 본성을 구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무량수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아미타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터득한 자가 불(佛)이고 그것에 대해 설한 것이 교(敎)이므로 자성의 미타를 깨치는 것은 오직 자심의 청정을 각성하는 것이라 했다. 이로써 내내 아미타불을 염하는 마음이 화두를 참구할 때의 염념불매(念念不昧)이고 상상불매(常常不昧)였다.

태고 스님이 설법전에 들어와서 주장자를 한 번 내리치고 말했다. '이 한 번의 소리는 부처와 조사를 삶아버리는 큰 용광로이고 풀무이며, 삶과 죽음을 단련시키는 수단이다. 그러니 마땅히 이 주장자 앞에 오는 자는 간담이 싸늘하고 혼이 나가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 노승에게 인간적인 면목마저 없다고는 여기지 말라.' 다시 한 번 주장자를 내리치고 말했다. '이 한 번의 소리에 백 천의 제불도 일시에 얼음이 녹고 기왓장이 무너져내리듯 기도 펴지 못할 것이다.' 다시 주장자를 한 번 내리쳤다가 다시 주장자를 치켜세우며 말했다. '바로 이 주장자여, 고래가 바닷물을 모두 마셔버리니 산호가지가 줄줄이 드러났구나.'

참으로 주장자 한 번에 온갖 번뇌와 사회의 구조적인 비합리성을 한꺼번에 녹여버리는 그의 선풍이 잘 드러나 있다. 그 주체로서 우리들이 부여받은 이 몸뚱아리를 비롯해 일체의 현상계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그러나 은근하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두루 통하며, 가운데에도 없고 바깥에도 없으면서 시방세계에 고루 사무친다.

그 본래성은 정갈하고 청정해 온갖 덕성을 머금었고, 고요하고 편안해 모든 상서를 담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이 몸과 마음은 치켜들면 하늘처럼 높아지고 땅처럼 두터워지며, 내려놓으면 바다같이 아늑하고 강물처럼 맑다. 이 몸과 마음은 부처와 조사도 알지 못하고 귀신도 헤아리지 못한다. 하늘과 땅으로부터 생겨난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얻어진 것도 아니다. 전생에 신라를 행각할 때에 전단원에 가서 그림자 없는 나무아래서 잡으려 했을 경우에도 실마리도 없었고 맥도 추지 못한다. 그래서 만길 벼랑에 이르러서 온 몸을 통째로 내던져 완전히 죽었다가 홀연히 소생하여 가볍게 날아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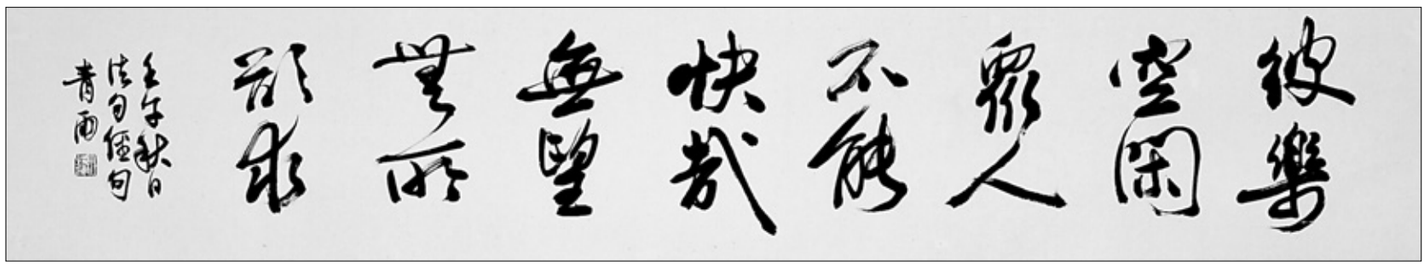
이처럼 태고보우는 그 주인공의 제일의제(第一義諦)야말로 곧 석가모니의 이후와 미륵의 이전에 현성해 있는 정법안장이고 열반묘심이라고 말한다. 그 주인공이 자신의 마음이고 자신의 몸이며 주장자이고 가사이며 자성미타이다. 그래서 마치 천상세계의 별들이 모두 북극성을 향해 있고, 인간세계의 물들은 모두 동쪽바다로 흘러가고 필경에 물은 바다를 향해 흘러가고 구름은 필시 산을 찾아 돌아가듯이 자성의 미타를 깨치는 것이 자신과 일체중생에 대한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몸이 때로는 범천왕의 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제석천왕의 몸이 되기도 하여 보살행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라 말한다. 그것이야말로 태고보우가 평생 동안 자심의 자각과 사회의 개혁을 향한 제일구였다.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윤상민의 서화산책⑨ 법구경



청법임욕무무쾌불중공피
우구오구소망재능인한락
경추
구일

彼: 저 피
閑: 한가할 한
快: 쾌할 쾌
哉: 어조사 재
望: 바랄 망

바라는 바 구하는 바 없도다

彼樂空閑 衆人不能 快哉無望 無所欲求(피락공한 중인불능 쾌재무망 무소욕구)
그는 공한을 즐기나 보통사람은 능히 그러하지 못하네. 쾌재로다. 바라는 바도 없고 구하는 바도 없도다. (위없는 즐거움을 즐기도다)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작가)



바 른 정 법 . 바 른 인 연 Ⅲ

아직도 말을 붙들고, 화두 붙들고 앉아 있습니까?
언제쯤 세상에 몸을 나투실겁니까?

우리는 얼마전 모방송사에서 방송되었던 이태석 신부님을 보았을 겁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감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감동과 감응의 배경은 육적 (여섯 도적)을 가시밭길과 불구덩이에 머무는 바 없이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직자로써 실천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종교는 달라도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닐까요? 믿음도 가르침도 꼭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이나 가르침은 죽은 것에 불과합니다. 실천하는 그 선봉에 성직자가 당연히 실천 수행하는 모습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교를 한답시고, 어려운 문자나 난해한 용어를 쓰는 것이 불교인양 비쳐지고 있는데..... 부처님의 말씀은 아주 평범하고 보편적인 것임을 불교를 공부해 본 사람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 절집은 세계 최대 부처님 조성에 경쟁적으로 혈안이 되어 있고,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절집을 키우고, 납골당을 짓고, 부처님 몸속 법당이니, 00신통도량이니, 00영험도량이니, 00쌀바위 도량이니 등등..... 불교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것에서 부터 닦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영험 신통 도량이라니..... 또, 법당안을 들여다 보면 큰 등은 무엇이며, 작은 등은 무엇인지..... 법당이라 함은 '법이 있는 집'이란 뜻인데, 법에도 크고 작은 것이 있는 것인지.....

또, 인등을 비롯해서 각종 등을 켜는 비용과 산으로, 바다로 방생을 한답시고 쓰이는 비용과 성지순례 한다고 국내외로 부처님을 찾아 여기저기 쫓아 다니지 말고, 그러한 막대한 비용으로 지금 우리 주위에 수술비가 없어서 병고로 사경을 헤매는 이들을 찾아 **'인간방생'을 하심이 어떨는지.....** 그 베품에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듯이 -- 절대 사찰 이름이나 얼굴을 알리는 일이 없어야 하며, 타인이 알아주기 위해 하는 짓은 성인들의 가르침이 아니지요. 이러한 가르침의 바탕에는 실천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성직자가 입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중생을 이끌어야 합니다.**

백장회해 선사와 같이..... 그는 실천수행자로써의 삶을 사신 분이지, 앉아서 말로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이미 말에 빠진지 오래고, 말로는 불.조사를 뛰어 넘고 있지 않는가?

이 도리를 찾고, 저 도리를 찾고, 이 뭣고? (이 무엇인고?) 말고 무엇이 있는가?

요즈음 어느 개그 프로에 나오는 유행어를 인용하자면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

시도 때도 없이 부처님 명호를 불철주야 불러보니 부처님 말씀이 들립디까? ..... 아니면, 보입디까? ..... **우리는 불보살님의 권능을 갖기 위해 실천적인 수행을 생활화 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도덕.바른생활을, 또 국민윤리를 공부한 기억이 다 있다.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이 이와 다른 바가 있던가? 다만 실천하지 않기에 어려웠을 뿐이다. 그럼, 왜 말로는 실천을 얘기하면서 실천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불합시다'. 다들 성불하셨나요?
성불하고자 하는 이유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목표는 성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웃을 이익되게--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 -- 바로 중생제도입니다. 성불은 중생의 이익을 위한 필요한 과정일 뿐이지 결코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중생을 이익되게 하지 못하는 -- 그것은 방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가시밭길을 걸으신지 6년만에 성불하셨다고 하지요.
세상의 이치를 다 아심은 물론, 육신통을 얻고 나서 중생의 곁에서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다 가셨는데.....

자, 부처님은 6년 수도 끝에 여섯가지 신통을 얻으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세납이, 법납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몇통이나 얻었나요? 부처님과 조사가 남기고 가신 지침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하고 수행하기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굳이 얘기하자면, 부처님 보다는 성불하는 시간이 빨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 제자들도 각각 신통을 얻으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함은 무엇인지.....

모든 가르침은 식, 답이 없다..... 앉아서 식, 답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행원보살로써..... 실천수행자로써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실천(행)에서 얻어지는 결과(증)인 것입니다.**

불 . 법 . 승 . 정 법 . 실 천 도 량
주 소 :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11-1
전 화 : 055)633-6555

연 등 사 (선재불교대학)
대 중 일 동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 호 남 063-288-5623 | 대 구 053-566-1116 | 울 산 052-260-1037
부 산 051-441-0111 | 경 남 055-932-5877 | 제 주 064-755-7588 | 전북익산 063-854-1060
지리산 063-635-5112 | 해운대 051-757-9990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웃음은 나누면 두 배, 눈물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



"스님이 강원도 오두막에 가신 뒤 광주에서 뵌 적이 있었어요. 그때 혼자 사시는 스님이 걱정이 되어 '손전화기 하나 사드릴 테니까, 아플 때 전화나 하시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무슨 손전화냐며 손사래를 치시더군요. 스님은 제가 무례하게도 '외로우시면 결혼이라도 하시라'는 농담도 건넬 만큼 친근하게 보듬어주시던 정감어린 분이셨어요. 나이가 조금 조금씩 들면서 느끼는데 사람답게 사는 일이, 일상에서 거짓말 덜 하고 남에게 피해 덜 주고 상식에 맞게 살고, 시대 흐름을 너무 무시하지 않고, 지나치게 냉소하거나, 애써 좋은 척하지도 않는 삶. 굳이 말하면 중도라면 중도이고, 자연스러움이라면 자연스러움인데, 그렇게 잘 정연되어 계시면서도 티를 내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수준 높여서 다가서려 할 필요도 없이 있는 그대로 대해도,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상대를 받아내는 부분이 훌륭하다기보다는, 그냥 상대방이 편안하게 해주셔서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워낙 자연스럽게 대해주셔서, 스스럼없이 이어져 왔어요. 세상을 두루 꿰시는 어른이, 끈 짧은 제 말씀을 듣고도 '거 참, 그 이야기 좋네.' 하시고, 제가 비아냥거리는 투로 이야길 해도 웃으면서 잘 받아주셨어요. 단점도 많으세요. 틀린 꼴 못 보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우린 그 분이 위대한 성자이길 기대한 적도 없고, 외려 그런 모습이 좋았어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만한 분이 없다.' 그런 느낌보다는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삶에 큰 지표가 되는 어떤 그림이랄까, 제가 떠올릴 수 있는 그림 가운데 하나가 스님이죠." 담담하게 털어놓은 노일경 목사 눈매가 선선하다.

> 그만한 분 없다, 그런 느낌보다는
> 사람은 저렇게 살다 가야겠구나

법정 스님은 돌아가시기 두 해 전, 노일경(55) 목사에게 FTA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서 농민을 생각한다면 FTA는 문제가 있다. 4대강 파헤치기는 자연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말씀했다.

"스님이 참 고마워요. 스님은 이 정권이 짜증나리만큼 의도를 가지고 한쪽으로 몰아가는 사회 문제에 거칠게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FTA가 농민들에게 뭐가 좋겠느냐? 4대강 사업이 자연에게 좋을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하나하나 되짚으시며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계세요. 스님은 쉬운 말로 글을 쓰지만, 그런 글이 절대 평범한 사고만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글이 펄펄 살아 숨 쉬는 까닭은 복잡한 생각을 다 거치고, 많은 고민과 깨우침 끝에 나온 결정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건 아니지.' 하는 말씀은 치열한 검증을 거쳐서 나온 말씀이예요. 세게 말씀하든 부드럽게 말씀하든, 시냇물이 흐르듯이 사회에 건강한 생각이 계속 흐르게끔 늘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목회는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저는 중학교 시험을 마지막 보던 세대예요. 학교나 부모 제게 심어준 가치관은 '죽어라, 공부해서 성공하라!' 였어요. 저는 그런 가치관에 적응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교회를 갔는데 이제껏 귀에 박히게 들어온 얘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들판에 핀 들꽃을 봐라. 그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차려입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답이라고 하는데도 있구나.' 충격이 컸어요. 그랬어도 그냥 그뿐이었어요. 오래도록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왔는데…. 제가 80년 5월 30일에 군에서 제대를 했어요.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처참했어요. 제 고향이 광주거든요. 돌아와서 쉬어야 할 안식처인 고향이 다 부서져 내렸어요. 이 정권, 전두환 이 사람을 향한 분노에 앞서 사람이 있을 데가 없다는 허탈감. '아, 사는 일이 참 힘든 거구나. 산다는 게 뭘까?' 되돌아보게 되더군요. '세상일이 내 뜻과는 상관없이, 강요하는 질서나 가치에 의해 나란 존재는 그저 끌려갈 뿐이구나. 그렇지 않아도 남북갈등 동서갈등으로 쪼개진 겨레가 또 참담한 역사를 기록하는구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다 망가지고 처절하게 부서져 내린 고향 앞에서 저 또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 하늘을 나는 새나 들꽃은
>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않는다

노일경 목사는 이제 남는 일은 가장 기본이 되는 생계,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 싶었다. 그러나 물질 가치는 얼마든지 추구하면 된다지만, 몰아닥치는 정신 가치 공황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에 이리저리 헤매는데, 누가 〈꿈을 비는 마음〉이라는 문익환 목사님 시집을 줬다. '개똥같은 내일이야 꿈 많은데 어려워 마라…' 이렇게 시작되는 통일시였다. 그 시가 젊은 노일경 사유를 뒤흔들었다.

"큰 울림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다니던 교회는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사랑도 하고 착하게 살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좋은 삶이라고 가르쳐왔어요. 현실 갈등과 겨레가 겪어야하는 문제와 상관없이 늘 현실과 동떨어지게 좋은 인간을 지향하는 도덕만 알리고 실제 삶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5.18 같은 큰 재앙이 있을 때 과연 무엇을 했을까?' 되돌아봤어요. '교회란 그냥 허울 좋은 장식에 불과할 뿐이구나.' 실망하면서도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갑갑증을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랬는데 문익환 목사님 시를 보고 예수 삶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통일 문제를 신앙 과제로, 인생 과제로, 기독교인 과제로 여겨 하나님 뜻을 말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이라면 참 멋지다. 돈이야 언제든지 악착같이 벌려고 덤비면 벌 수 있으니까. '존재 공허함을 뚫고 나가려면 신학을 한 번 해봐야겠다.' 마음먹고는 한신대를 갔어요. 문익환 목사님이 한신대에서 교수로 계셨거든요." 5·18을 겪어 황폐해진 청년 노일경 가슴에 문익환 목사가 뿌린 씨가 삶을 뒤바꿨다.

"지나고 보니 기독교 안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삶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기존 종교에 등을 돌린 채, 아주 급진 혁명가가 되어 혁명에 가까운 삶에 뛰어들기도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혁명을 지향하는 신학자는 있어도 삶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는 더 어렵고, 갈등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85년도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하지 않았어요. 7년여 동안 공무원 노릇도 하고, 사업도 하고, 사회과학도 공부를 했어요. 딱히 방황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가려던 길을 가다 멈추고 덤빈, 돈 버는 일이나 직장생활 모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 노일경 목사에게 부인 김학희 여사가 말한다. "아무래도 당신은 교회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라고. 그때 노 목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난 예수를 떠올렸다.

"예수와 만남은 제겐 큰 분기점이었어요. 학교도 부모도 세상도 내게 줄 수 없는 '새로운 가치'를 심어준 인물 예수. 2000년이 넘는 세월을 건너뛰어 나를 설득하는 인물이라면 기꺼이 같이 가보자. 싶었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 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8-10강해지는 휘나핫 온열경영은 3-4년 전 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 통하여 많은 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핫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와는 비교가 않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것입니다.(2020년까지)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 김상목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m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숱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엇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어요. 꽃이나 새, 바람 같은 자연과 통합되고 가장 살기 어려운 사람이랑 통합되는 사랑이 대안처럼 느껴졌어요.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남을 짓밟고 눌러서 뭘 어쩌자는 거지?' 그건 아니다 싶었어요. 저도 남한테 지기도 싫고, 부딪히면 이기고 싶은 사람이지만, '나한테 깨진 사람은 또 어떻게 되나?' 싶었고 저도 그렇게 깨지면 참 살맛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때 젊은 예수가 던진 말씀은 아주 서투른 설교들이었을 텐데, 저한텐 큰 감동이었어요. 그 여진이 여태까지도 남아있어요. 그게 종교 원류라면 남을 깎아내리고, 적으로 돌리고, 증오하는 일

사람 예수를 쏘옥 빼닮은 십자가

사람 냄새나는 도타운 예배 풍경

과는 아무런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92년도에 돌아왔죠." 결국 노일경 삶을 뿌리째 뒤흔든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였다. '만남은 눈뜸이다!'

교회로 돌아온 노일경 목사는 먼저 섬으로 가 전도사 생활을 했다. 그리고 도시로 돌아와 부목사 생활을 6년 한 뒤, 시골교회 목회를 맡아서 7년 동안 봉직했다.

"서울에 온지 한 10년쯤 됐어요. 돌아와서 뭐 특별하게 큰 교회나 작은 교회 지향하려 들진 않았어요. 세상과 종교, 사회에 대해 환멸을 거친 뒤니까, 이제는 무엇인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주어진 일에 보다 성실하고, 그게 작든 크든 간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차근차근 하나하나 일궈나가려고 해요."

2월이 저물어 가는 어느 일요일. 노일경 목사가 목회를 하는 월곡교회를 찾았다. 차도 들어가지 않는 좁다란 골목 안에 있는 교회에 들어서면 예배당 앞 화단에 십자가가 땅에 뿌리 내리고 서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보통 교회 십자가는 지붕 위나 높다란 벽에 걸려있는데, 이렇게 땅을 디디고 서있는 '사람 예수'를 쏘옥 빼닮은 십자가를 만나기는 처음이다. 새롭다. 예수님을 가깝게 뵙는 느낌이다. 교회라고 해봐야 작은 건물 두 동이 전부다. 그 가운데 조금 큰 건물이 예배당이고, 그 곁에 딸린 두어 평 남짓한 작은 건물이 식당이다. 신도로 등록된 가정이 모두 50여 가구 남짓한 자그마한 교회다. 교회 안에 들어서니 마주치는 신도들마다 밝은 눈인사로 나그네를 맞는다. 그 살갑고 푸근함에 처음 간 곳이란 사실을 잊고 오래도록 친숙한 이웃을 만나는 느낌이 들었다. 단출하고 소담스런 성가대가 찬송을 이끄는 대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소박한 예배 풍경이 정겹고 도탑다.

월곡교회는 1955년 8월 15일에 시작해 57살이나 된 역사 깊은 교회로 처음부터 독재와 불의에 맞서 '빨갱이 교회'라고 낙인찍힐 만큼 반독재 투쟁과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 왔다. 2005년 5월부터 목회를 이끄는 노일경 목사는 '신도들이 스스로 어깨동무하는 신앙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2004년부터 '창동노인복지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이 교회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을 연지 올해로 19년째로, 2007년부터 공부방을 월곡지역아동센터로 바꾸어 노일경 목사 부인 김학희 여사가 센터장을 맡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안에 사는, 소득이 적거나 결손 가정, 맞벌이 가정 자녀를 보듬어 안아 방과 후 공부방을 열고, 급식을 해주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따로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배당 옆에 딸린 두어 평 남짓한 작은 식당이 바로 지역아동센터다. 어린이 책을 비치해 놓은 도서관이기도 한 이곳은 평일에는 어린이 놀이방이자 방과 후 공부방이고, 일요일에는 어린이 예배를 보는 작은 예배당으로 바뀐다. 또 이곳 어린이들은 모두 큰 예배당을 피아노교실이라고 부르는데 예배당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니 예배당이고 지역아동센터고 모두 변신 잘하는 트랜스포머다. 어린이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틈틈이 배우고 갈고 닦은 솜씨를 해마다 지역아동센터 생일을 맞아, 서툴면 서툰 대로 잘하면 잘 하는 대로 솜씨 자랑을 한다. 올해로 열아홉 돌을 맞은 월곡지역아동센터 생일 잔칫날,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은 입 모아 '우리는 친구'를 불렀다.



노일경 목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일궈나가기 위해 늘 노력 중이다.

웃음을 나누면 두 배 되고
눈물을 나누면 절반되듯
기쁨으로 나누는 우리는 하나, 하나~

너와 나 서로를 이해하고
너와 나 서로를 용서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는 하나, 하나~ 친구

친구들아 손에 손 마주잡고
한 소리로 높은 꿈을 노래하자
친구들아 불타는 태양을 향해
파도처럼 춤을 추며 달려가자

어두운 바다의 등대처럼
광막한 사막의 생수처럼
희망으로 빛나는 우리는
하나, 하나~ 친구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랑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소리를 듣고 깨달아

깨달음의 방법은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대상을 보고 깨닫는 것이요 또 하나는 소리를 듣고 깨닫는다 하겠다.

부처님의 경우 별이란 대상을 보고 기연을 만나 깨달음을 얻었다. 역대 조사들은 다수가 소리를 통해 기연을 만났다.

물론 예외가 있기도 하다. 고려말 나옹(懶翁) 선사는 회암사에서 정진 하다가 매화꽃이 핀 모습을 보고 깨달았다. 서산 스님은 남원 어느 마을을 지나며 닭 울음소리에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보면 깨닫는 것에는 처소가 한정돼 있지 않음이 분명해 진다.

깨치는 도량이란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숨 쉬고 발 닿는 곳곳이 수행도량이 된다. 산에서 수행했다고 해서 산기도 했다고 한정할 수 없는 일이고, 강가에서 수행했다 해서 용왕기도 했다고 한정 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 니련선하(尼連禪河)에서 수행한 부처님은 분명 용왕기도 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도량(道場)은 깨달음을 연 장소이고, 도를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범어로 Buddhagayā라고 한다. 부처님과 많은 다른 부처님들이 도를 증득한 성스러운 곳으로 비하르주에 있는 가야라는 도시를 말한다. 또 하나는 pṛithiviya maṇḍa이다. pṛithivi는 '지구' 혹은 '넓은 세상'이고 maṇḍa는 공양을 지을 때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밥물'이란 뜻이 있고 '장식' 혹은 '장엄'을 나타내는 말이다. 도량은 우리가 숨 쉬고 걷고 팔을 펴는 공간으로 그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공간이다. 작열하는 태양과 두렷하게 떠오른 보름달 속에도 기연이 깃들어 있으니 도량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서산 스님은 9세에 어머니를 잃고 10세에 아버지를 여의어 의지처를 잃고 말았다. 그러던 스님은 글 재주가 비상하고 총명함이 뛰어났고, 이를 알아본 고을의 원님이 데려다가 성균관에 넣어 주었다. 그 후 스승을 따라 전라도로 나섰던 서산 스님은 스승이 부모님 상을 당해 한양으로 올라가자 글방 친구들과 같이 산천구경을 나섰다. 그 길로 쌍계사 숭인(崇仁) 스님을 만나 불경을 배우고 부용영관(芙蓉靈觀) 선사에게서 선을 익혔다. 이후 서산 스님은 낮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대오했다. 당시 스님이 읊은 시를 보면,

발백심비백 髮白心非白
머리 희어도 마음은 청춘이라

고인증루에 古人曾漏洩
일찍이 고인이 말했다고 하네

금문일계성 今聞一鷄聲
닭 울음소리 한 번 듣고

장부능사필 丈夫能事畢
대장부가 할 일을 다 마쳤다네

서산 스님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예순 아홉의 노구를 이끌고 승의병(僧義兵)을 일으켜 구국의 선봉에 섰다. 이 모습을 보고 명(明) 나라 이여송(李如松)은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공명을 마다 하고 도만 닦더니 나랏일 위급하니 큰 스님 나오셨다네.

도량이 청정해야 삼보천룡이 그 곳에 깃든다고 했다. 우리 주변이 청정한지 살펴보자.

내 신념 지나치면 이웃에게는 큰 독
말에는 신뢰, 행동에는 양보 갖춰야

우리는 혹여 신념의 노예가 아닌가.

신념이 지나치면 이웃에게는 큰 독이 될 수 있다. 신념은 여백을 지닐 여유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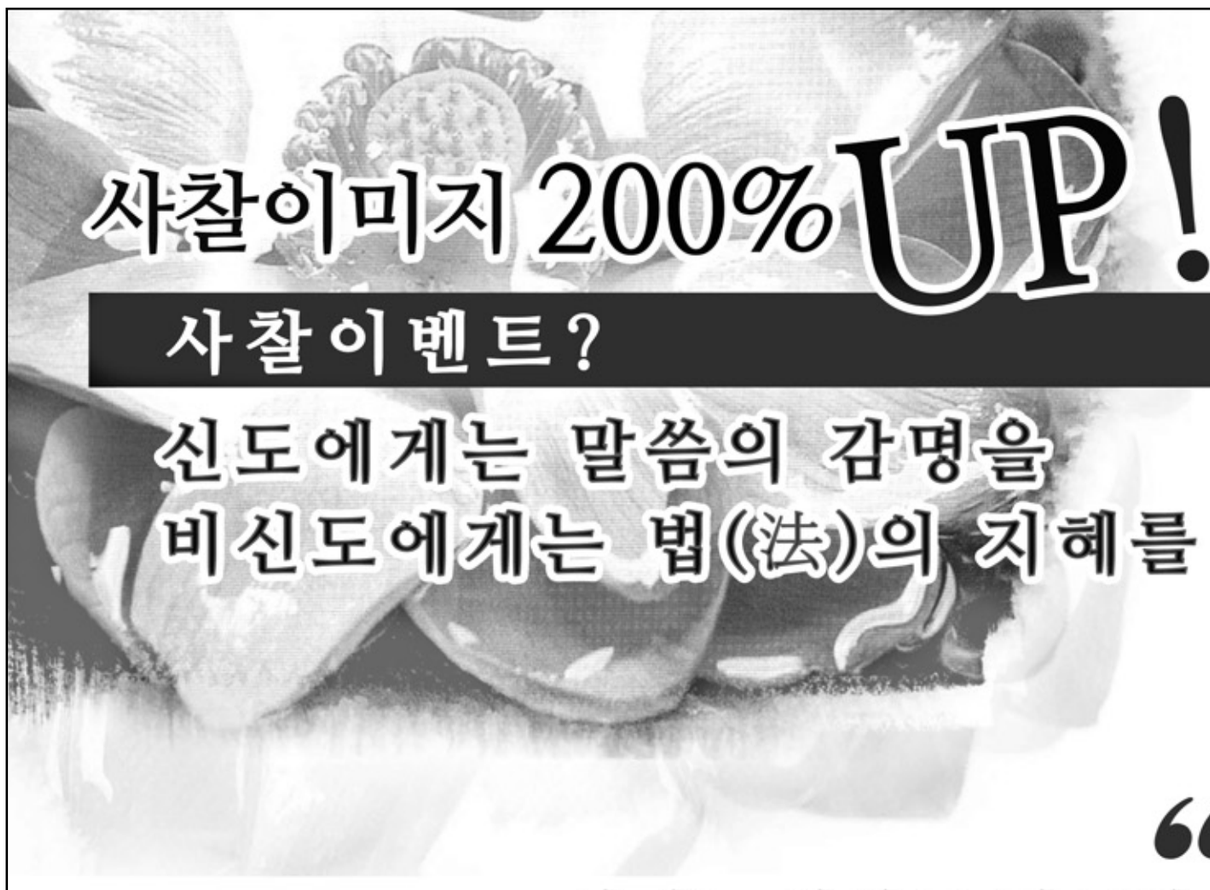
또 우리는 결핍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을까. 신뢰의 결핍이다. 사람의 말에는 신뢰가 결여되어 있다. 행동에는 양보가 결핍되어 있다. 언어에는 겸양이 결핍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인에게 가식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실루엣 마냥 윤곽만 드러나고 이목구비는 묻히고 말았다.

우리가 버르적거리는 것은 육신의 덫 때문이 아니고 번뇌의 덫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 치유방법은 도처에 있다. 하찮은 소리에도 도의 이치가 깃들어 있고 삼라만상 두두물물에도 만연해 있다. 산야에 나뒹구는 볼품없는 지질버력 가운데에도 배우고 익힐 것들이 있으리라. 삼복에 갈증이 심해도 갑시지 않게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마시는 지혜를 익혔다. 독자는 꽃이 지는 소리에 밤을 지새며 뒤척인 적이 있는가.

동국대 선학과 교수







사찰이미지 200% UP! 法果 법과

사찰이벤트?

신도에게는 말씀의 감명을
비신도에게는 법(法)의 지혜를

"
이제는 사찰도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의 사찰이벤트와 만나십시오
"



법과활용(Application)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3,000여 곳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점차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십시오.

법과란? (Buddha Cookie)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적이고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또한, 최고급 재료만을 사용하고 전자동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고급 식품입니다.

법과 이벤트(Event)

'법과(法果)' 속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이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 를 활용한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앞면 – 사찰안내 또는 행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뒷면 – 현대어로 재편집된 생활법구경이 들어갑니다

法句經 법구경

미움은 미움에 의해서 풀어지지 않습니다
미움은 미움이 없을 때에만 풀어집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法句經 법구경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호법자(護法者)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것은 적더라도
몸으로써 그것을 분별하고 진리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참으로 진리의 수호자인 것입니다

法句經 법구경

허공에는 길이 없고,
외도(外道)에는 수행자가 없습니다
현상계에는 영원한 것이 없으며,
깨달은 사람에겐 흔들림이 없습니다

法句經 법구경

건강은 가장 큰 은혜이고 스스로를
만족해 하는 것은 가장 큰 재산입니다
믿고 의지함은 가장 귀한 벗이고
열반은 가장 높은 행복입니다

※ 500개 이상부터 주문가능하며 원하시는
이미지 / 문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법과문의
TEL 02)2004-8216
FAX 02) 737-069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제3회 한국·대만 불교문화교류 현장 ②–자제공덕회

한 사람의 손이 1000명을 움직인다



자제공덕회 자원봉사자들이 도시 내에 자리한 환경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일이 색색으로 분리 수거된 단추, 플라스틱 생수병은 폴리스터 섬유로 된 담요와 의복 등으로 재활용돼 재난 지역에 보내진다. 자제공덕회는 또 자원 재활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불교케이블 TV를 운영하고 있다.

자제공덕회는 대만에서 규모가 가장 큰 민간자선기구로 전 세계에 지부와 연락사무소를 갖고 있다. 33개국에 자제공덕회 사무소를 설립하고 있으며 38개 국가에 183개 지부가 있다. 자제공덕회 회원은 400여 만명에 이르며 2010년 예산만 해도 6000여 억원에 달한다.

자제공덕회의 가장 큰 특징은 '대나무 저금통'으로 대표된다. 바로 십시일반 불자들의 노력이다.

한해 예산이 6000억 원

5원씩 모은 저금통서 출발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한 제3회 한국 · 대만불교문화교류에서 불교문화교류단은 4월 1일 자제공덕회 타이페이 환경보호센터와 4월 3일 화이렌시의 자제공덕회 정사정사와 자제종합병원을 찾았다.

불자 개개인의 노력 사회 변화를 이끈다.

'대나무 저금통'은 자제공덕회 전신인 불교극난극복자제공덕회 회원 30명이 매일 5원씩을 모았던 모금함이다. '한 사람의 손이 천 명을 움직인다(一手動時千動)'는 믿음으로 자선, 의료 등 8대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자제공덕회의 원동력이다.

현재 대만 6개 도시에 설립돼 있고 세계 4대 골수병원으로 손꼽히는 자제병원. 이 자제병원의 설립 당시 한 일본교포 독지가의 거액 후원을 증엄 스님이 거절한 일화는 유명하다. 거절 사유는 놀랍다. 바로 십시일반 불자들의 공덕을 헛되이 할 수 없다는 뜻 때문이었다. 지금도 자제공덕회는 정부예산 및 거액 후원을 배제하고 소액 보시의 생활화로 기금을 모으고 있다.

또 정사정사의 스님들은 수공업 등의 경제활동을 통해 자급자족하고, 공덕회 자제위원들은 자원봉사로 자제공덕회의 각 사업을 운영한다. 승가의 재정 자립과 재가의 사회활동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인 것이다.

이러한 독특한 재원 마련은 투명성으로 이어진다. 자제공덕회의 모든 경비는 특정 후원이 아닌 순수 민간자금으로 운용되고 또 그 후원자들이 봉사자로 집행하기 때문에 기부 · 보시금을 가장 잘 감시하게 된다. 후원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전 세계 400만 후원 회원에게 사용내역이 공개되며 이는 국내외 대중들의 신뢰와 지지로 이어졌다.

자제공덕회는 이런 바탕하에 40여 년 동안 자선사업을 필두로 의료, 교육, 인문 사회 분야에 있어서 사회 영향력을 발전시켰다.

자 · 비 · 희 · 사(慈悲喜捨)는 자제공덕회 사회사업의 실천이념으로 '자'는 자선과 국제구호, '비'는 의료와 골수기증, '희'는 문화와 지역사회사업, '사'는 교육과 환경보전사업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자선, 의료, 교육, 인문 4대 사업은 연결고리를 이루며 서로 보완 발전했다. 그 외에도 골수기증, 환경보호, 지역사회복지, 국제구호사업 등 8개 복지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이를 '한걸음 여덟 발자국'이라고 칭했다.

노력·자원봉사 등 생활화

투명 재정 관리로 회원 증대

시신기증의 활성화, 세계4대 골수병원 토대

화이렌시 자제종합병원 로비에는 '불타문병도(佛陀問病圖)'가 자리하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병자를 위문하는 모습이 새겨진 타일벽화로 1972년 빈민무료진료소를 설치로 의료사업을 시작한 자제공덕회 정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986년 화이렌시에 병상 800개 규모로 개원한 자제종합병원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치료비를 받지 않는다.

자제공덕회는 남화련 옥리분원, 태동분원 등 대만 전역에 6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시설이 낙후된 동부산악 지역에만 병원을 건립하고 있는 자제공덕회는 이 지역 35만 명의 의료수요를 소화해 내고 있다.

이는 증엄 스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스님은 1963년 '인간불교'를 제창한 대만 불교계의 최고 원로 인순(印順:태허) 대사의 가르침을 받아 1966년 화이렌을 찾았고 지역 진료소에 큰 깨달음을 얻는다.

한 원주민 임산부가 난산으로 왔다가 의료비와 보증금이 없어 다시 들것에 실려 결국 길에 태아를 낳은 것을 보고 스님은 생명 존중사상을 펼친다.

스님은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고통과 재난을 구해주듯 자비심을 가진 500인이 각처에 흩어져 원력을 다하면 한 분의 천수 관세음보살을 중생의 모습으로 살려내는 것이란 원력에 병원을 건립한다.

이 같은 생명존중 사상은 자제공덕회가 운영하는 교육사업 전반에 투영되어 있다. 이를 위해 자제공덕회는 94년 개교한 자제의학원을 2000년에 인문사회, 생명과학, 교육, 의학 등 4개 단과대학으로 확대해 4년대 정규 종합대학으로 승격시키는 한편, 인문학과 생명학 중심 대학으로 특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제공덕회 회원들은 사후 시신 기증을 생활화 하고 있다. 이는 자제병원이 세계 4대 골수 수술 병원으로 자리하게 된 원동력이 됐다.

자제대학 의학교과과정은 '계용의식(啓用儀式)'이란 과정이 있는데 바로 시신기증자의 뜻을 기리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교과과정이다. 해부실습을 하기 전에 학생들은 유가족을 방문하고 학생들은 고인의 행적을 조사해 프로필을 직접 작성한 뒤, 스님 · 교수 · 학생 등이 참여하는 계명의식을 치른다.

생명 존중 사상을 시신을 기증하는 이, 수술을 집도하는 이, 수술을 받는 이가 모두 실천하는 것이다.

현지 토착화 끊임없는 관심 자제인 만들어

자제공덕회의 또 다른 특징은 현지 토착화로 '자제정신'을 전파한다는 점이다. 자제공덕회는 태풍, 지진, 수해, 교통사고 등의 재난이 있을 때마다 자제인을 긴급 동원하고 막대한 인력과 물자를 투입해 재해지역으로 가서 도움을 준다. 현지 언론에서는 자제공덕회의 이런 모습을 '푸른 옷의 천사'로 부르기도 한다. 이 같은 노력은 이재민이 정착하고, 가정을 재건할 때까지 계속되며 끊임없는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로 이들을 다시 자제인으로 이끈다.

자제인은 현재 대만과 중국 뿐만이 아니라 남아프리카, 몽골, 아프가니스탄, 체첸, 터키, 코트디부아르 및 동남아와 중남미 각국에 물품, 의복, 집짓기 및 양로원, 아동복지원, 학교건립 등 구호사업을 펼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자제공덕회는?

자제공덕회는 1966년 증엄(證嚴) 스님이 대만 화이렌(花蓮) 지방에 불교극난자제공덕회를 설립하며 시작됐다.

병원 건립자격을 얻기 위해 1980년 1월 16일 '재단법인 불교자제자선사업기금회'라는 이름으로 정식허가를 받았다. 1981년 다시 정부에 전국사단법인으로 등록해 1994년 인가를 받았다.

1999년 9 · 21 대만 대지진 때, 사랑의 가옥 2 만 가구를 건립 기증하는 등 국내 자선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1985년 국외 각지에 거주하는 자제인이 자제사업을 해외로 확장시켜 현지의 사랑, 자원을 한데 모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1991년 방글라데시 허리케인 재난 구호사업을 시작으로 해외구호사업을 개시한 자제공덕회는 2011년 일본대지진 피해복구 등 유럽,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 65개국에서 구호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98년에는 북한 통일기업과 합작해 북한 수재민 돕기에 70만 개의 동계 의류와 식료품, 우유 등을 기증하는 등 활동에 나서고 있다.





색색 분리수거 단추



시신 기증자 선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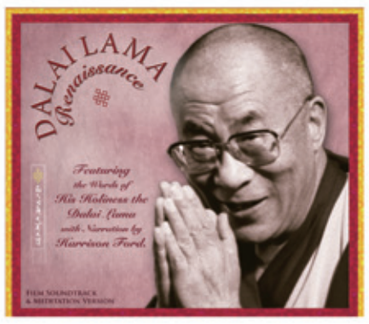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운주사
● 불교서적/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삶의 성찰과 치유의
불교명상CD

달라이 라마 르네상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14대 달라이 라마에 관해 국내 최초로 출시되는 음반! 세계 12개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영화 〈달라이 라마 르네상스〉 사운드트랙에 '명상용 버전'을 포함한 2CD 패키지로 2011년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내발매!



음악 속에는 달라이 라마가 구현하고자 하는 경험에서 우러난 지식과 우주의 진리가 녹아 있다. 불교의 찬트에서부터 티베트, 인도, 이란, 아메리칸 인디언의 명상적 사운드와 미국의 컨트리 음악에서 아프로-쿠반 리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이 지성 혹은 평화라는 하나의 컨셉으로 귀결된다. 14명의 세계 월드뮤직 및 명상음악 뮤지션들이 참여한 이 앨범은 신비하고 즐거우며, 가벼운 묵상이나 명상을 위해서도 좋다.
2CD | 16,000원 | 콘텐츠코리아

팔상도
부처님의 '탄생부터 열반까지' 부처님 일생을 8장면의 극적인 사건으로 표현한 불화 〈팔상도〉를 음악으로 그려낸 불교 국악 명상음악!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기념음반!



중요무형문화재 30호 김영기 선생님의 여창구음, 창작국악실내악단 슬기둥 단원이자 KBS 국악관현악단에서 활동중인 대금 연주자 한충은, 그리고 해금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일조하고 있는 해금 연주자 강은일 등. 한국의 국악 및 인도의 전통민속악기 명연주자들이 참여한 국내 최초의 〈팔상도〉 국악 명상음악 앨범! 부처님의 생애는 우리들에게 다시없는 인생의 귀중한 나침반이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음악공양을 통해 부처님의 참된 생애와 그 가르침을 시방세계에 널리 전한다.
1CD | 15,000원 | 콘텐츠코리아

옴 챈팅 명상음악 (깊은 명상음악)
우주와 생명의 궁극적 소리 – '옴' 챈팅



최근 전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는 '깊은 명상과 요가 수련, 마음 치유와 휴식 음악'
1CD | 15,000원 | 콘텐츠코리아

티벳 주발 명상음악 (깊은 명상음악)
'각성을 유도하는 빛에 가까운 소리' 티벳 주발 명상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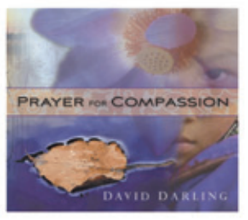
음반출시 이래 〈아마존〉과 〈아이튠즈〉 뉴에이지/명상 차트 상위권 차지
1CD | 15,000원 | 콘텐츠코리아

반야심경 (상해 소년소녀 방송 합창단)
삶의 진정한 지혜를 배우는 명상음악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반야심경〉의 심오한 진리가 담긴 불교 범패 명상음악 & 아동 보리원 시리즈
1CD | 15,000원 | 콘텐츠코리아

자비의 기도
2010년 그래미 〈최우수 뉴에이지 앨범상〉 수상 화제작



세계적인 첼리스트 데이빗 달링의 뉴에이지, 명상, 클래식 음악 경계를 넘나드는 '삶의 성찰과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첼로'연주의 명상적인 작품
1CD | 15,000원 | 콘텐츠코리아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전화 (02) 3672-7181 팩스 (02) 3672-7186 www.unjusa.com

법정 스님의 무소유 가르침, 봄날을 적시다

자기만의 꽃을 피우게 하는 마음기행
맑고향기롭게 이사장 현장 스님 서평

법정 스님의 법구를 모셨던 다비장의 불꽃이 아직도 처처(處處)에서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내게 스님의 빈자리는 너무나 크다. 스님의 절제된 행동과 말씀 속에 배인 간명한 가르침의 향기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른다. 나는 이 순간 스님을 나보다도 더 그리워하는 한 거사의 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다. 스님으로부터 무염(無染)이라는 법명을 받은 정찬주 작가가 쓴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가 그것이다.

지난여름 작가는 대원사로 나를 찾아온 적이 있다. 차담(茶啖)을 나누던 중 내가 작가에게 무소유 사상을 화두 삼아 법정 스님의 수행처들을 순례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을 했는데, 서로 공감했던 것 같다. 그러고 보니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는 나의 생각을 작가가 절절하게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긴 결과물이다. 정찬주 작가는 법정 스님과 도타운 인연을 맺은 재가제자인 동시에 깊고 꾸준한 수행과 공부로 고승 전기소설과 암자기행 산문집을 이미 십수 권 펴낸 불교전문 작가이다. 작가는 상좌스님들을 만나면서 한편으로는 만행하는 수행자처럼 묵묵히 법정 스님의 숨결이 스민 절과 암자들을 찾았던 모양이다.

이 산문집에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가르침이 화엄의 꽃으로 피어났던 송광사 불일암, 스님이 깨우친 바를 대중들에게 아낌없이 회향했던 길상사, 수행자의 진면목을 온전하게 드러냈던 강원도 오두막 수류산방 등 스님이 정진했던 아홉 곳의 수행처에



서 건져 올린 저자의 사유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산문집의 첫 인상이 아름다웠던 까닭은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라는 책제목과 '법정스님의 자기다운 영혼은 무엇인가?' 라는 부제의 흡입력이 무엇보다 컸던 것 같다. 나는 이 문장들이 선가(禪家)의 금언처럼 마음에 든다. 법정 스님의 정체성을 가장 핵심적으로 짚어낸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스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자기다움을 잊지 말라고 경책하셨다. 그것은 참나[眞我]를 찾는 동시에 걸림 없는 자유에 이르는 길이라고 설하셨다. 중생들은 입신, 부귀, 권세, 영화, 출세 등 얼마나 많은 세속적 가치에 둘러싸여 있는가.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자기다움 없이는 한낱 허깨비에 지나지 않는 법이다. 헛것을 두고 집착하고 다투는 시비의 사연들이 참으로 어리석지 아니한가.

저자는 법정 스님이 늘 침묵을 당부하셨던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저자는 입을 다무는 것만이 아니라 시비를 가리고 분별하려는 마음까지도 쉬게 하는 것이 진정한 침묵이라고 말한다. 침묵은 자기다운 영혼을 바라보는 행위다. 스님이 불완전한 중생을 위해 맑고 향기로운 글로 소통하셨던 것 역시 자기다운 개성과 인간성 회복을 위한 기꺼운 축원(祝願)이 아니었을까. 각자 주어진 삶을 자기답게 활짝 꽃피우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는 스님의 가르침을 작가는 자신이 내딛는 걸음걸음으로 순일하게 전한다.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 | 정찬주 지음 | 열림원 | 1만5000원









스크린으로 보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영화 '법정스님의 의자' 5월 12일 개봉

2010년 개봉 된 '울지마 톤즈' 에 이어 '내 이름은 칸', '바보야' 까지 극장가에는 종교를 소재로 다룬 영화들이 연이어 상영되고 있다. 특정 종교에 관계없이 영화에서 말하는 종교적 가르침과 종교인들의 삶의 이야기는 이 시대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살아생전 '무소유' 라는 위대한 가르침을 남기고 떠난 법정 스님의 일대기가 영화로 만들어져 사람들의 관심이 또 한 번 모아진다.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 '법정스님의 의자' (감독 임성구)는 5월 12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배우 최불암이 나레이션으로 참여해 영화는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됐다.

영화 제목이자,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의자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이 깃든 상징적 물건이다. 일명 '빠삐용 의자' 라 불리는 이 의자는 법정 스님이 영화 '빠삐용' 을 보고 영감을 얻어 만든 것. 참나무 장작개비로 만든 이 의자는 법정 스님이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고 참된 행복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휴식과 치유의 의자였다.

법정 스님은 승려이자 문필가로 평생을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며 청빈의 도를 따랐다. 영화 '법정스님의 의자' 는 스님이 출가하게 된 이유, 그를 청빈의 삶으로 인도했던 효봉 스님과 그밖에 인연이 된 사람들과의 일화들이 담겨있다. 영화는 스님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스님이 말하는 무소유 정신을 전한다.

법정 스님은 많은 이들에게 정신적 위안과 휴식을 전해주며 행복의 삶으로 인도했다. '법정스님의 의자' 는 그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을 깊은 여운을 남기며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 준다.

"가치 있는 삶이란,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의미를 채우는 삶이다."

영화는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을 일깨워 주며 험한 세상을 헤쳐 나갈 용기와 희망을 선사한다. 법정 스님이 말하는 참된 행복과 무소유에 대한 가르침이 따스한 봄날의 햇살처럼 감동으로 다가온다.

이은정 기자



윤남진 특별기고

익숙한 이야기 구조로 설득하라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한 달에 수 십 회의 크고 작은 회의를 한다고 한다. 문제의 발견과 해결책의 수립, 해결책의 실행 점검,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었는지에 대한 평가, 해결책이 효과가 없었을 경우 원인의 규명 등을 위한 다양한 회의가 있다. 그때마다 누군가는 책임자가 돼 먼저 아이디어를 정리해 내놓고 얘기를 꺼내야 토론이 시작된다. 프레젠테이션은 이처럼 다양하고 중요한 용도로 활용된다.

책의 저자는 '7장의 슬라이드로 끝내는' 이라는 제목에서 느끼는 것처럼 간결함을 추구하면서도 그 간결함의 배경으로, 이야기구조화를 통해 완벽을 추구하는 프레젠테이션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 이라는 것은 이야기구조를 갖는 간결하면서도 완결적인 의사전달(설득) 방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왜 7장의 슬라이드로 끝내야 하고, 이야기구조이어야 하는가? 저자는 그 이유를 뇌의 기억능력과 기억방식에 대한 인지과학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설명한다. 사람들은 1초에 약 1000권 이상의 책에 해당하는 정보를 스캐닝하고, 필요할 때에 다시 불러다 쓸 수 있게 수천 개의 표상으로 정보를 저장한다. 하지만 어떤 정보를 기억 속에 담아둘지 결정하는 단기 기억의 처리 속도는 1초에 18비트로, 단기기억에 담아둘 수 있는 요소는 7개 뿐 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주민번호, 통장 계좌번호를 외울 때, 한 번에 한계치인 '7' 을 넘는 정보를 외면 전체 메시지를 모두 잊어버리므로 '7' 이내의 정보그룹으로 묶어서 기억한다는 것. 이럴 경우 (-)가 정보그룹을 구분해주는 기호 역할을 한다. 또한 표상의 예로 대표적인 것은 개념, 습관, 두려움 같은 것들인데, 사람들은 새로운 데이터가 기존의 표상과 일치하면 수용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도전과 저항을 하게 돼 설득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인간의 뇌는 사실이 아닌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졌고, 오래 전부터 인류는 스토리가 아이디어와 사실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저자는 '성공스토리의 5단계 구조' 를 프레젠테이션에 구조화해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일종의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플롯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제-핵심갈등-긴장감-전환점-해결책' 의 5단계 구성이다. 저자는 이 5단계를 이야기 구조로 7장의 슬라이드로 편제할 것을 제안한다.

도전하고자 하는 과제는 무엇인가?(핵심갈등) →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되었는가?(배경스토리) → 무언가를 하면 어떻게 될까?(긴장감의 조성) → 핵심통계 등으로 긴장의 강화 → 갈등해결을 위한 선택안의 제시 → 해결책의 제시 → 그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질문에 대한 추가 스토리)

필자는 최근 어느 창업공모사업에서 프레젠테이션 창업기획서 등을 접했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자신의 강점을 제대로 전달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고, 정보가 많고 슬라이드가 화려한 것 보다 간명하면서 진정성이 있는 프레젠테이션이 의사소통과 설득에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불교는 대체로 공(空)에 기초해 현실 세계가 마음에 의해 가립(假立)된 것으로 보고 그 실체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서 번뇌를 멸하라고 가르친다. 반면에 서양에서는 인지과학의 성과, 신화와 문학 같은 것이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으로 부단히 도구화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둘이 극단으로 가면 결국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 | 폴 J. 켈리 지음 | 멘토르**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연구위원장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 13~19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한 권으로 읽는 법화경	보경	민족사
3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4	붓다의 치명적 농담	한형조	문학동네
5	백일법문(상)	성철	장경각
6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7	선방일기	지허	불광출판사
8	이판사판 화엄경	성법	정우서적
9	한권으로 만나는 인도	이병욱	너울북
10	초기불교이해	각묵	초기불전연구원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주얼드림 은(銀)의 모든것

주얼드림은 은(銀) 99%로 만든

염주 · 단주 · 금강저 · 반지 · 목걸이 · 핸드폰줄 ·
백옥 · 청옥 · 자수정 · 호한석 등 기타 다양한 제품생산 기업입니다.

제품소개를 지면으로 다하지 못하오니
연락주시면 책자(카다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얼드림(석도) JEWELDREAM · 본사 공장 및 영업부 :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793-2번지
031)969-9495 / 070-4128-9495 / 011-441-9495

인터넷 쇼핑몰 NAVER 주얼드림 검색 www.jeweldream.co.kr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기발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판화로 엿보는 부처님 세계

치악산명주사 고판화박물관 '판화로 보는 불화의 세계' 기획특별전 개최

중국, 일본, 티베트, 몽골 등 세계 각국의 불화판화들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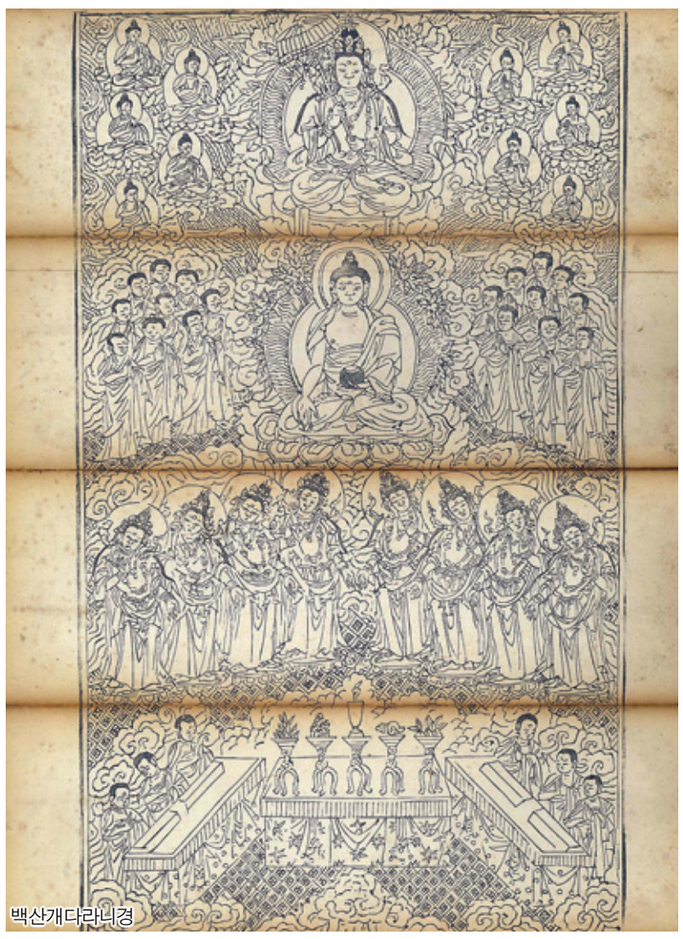
치악산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16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불화판화들을 한 자리에 모아 '판화로 보는 불화의 세계'展을 7월 15일까지 연다. 이번 특별전에는 한국, 중국, 일본, 티베트, 몽골 등의 불화판화 80여 점이 전시된다.

고판화박물관 한선학 관장은 "작년에 열린 '고려불화'전에 자극을 받아, 박물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집한 판화 500여 점들을 특별히 엄선해 이번 전시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통 판화불화는 민중들이 각 집안에서 예배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된 경우가 많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나라의 민중 생활불교를 살펴보고, 각국의 판화불화들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전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들은 관세음보살을 비롯해 8대보살판화와 6지장보살판화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불화판화의 종류와 수량이 극히 적다. 이 작품들은 강희 42년(1703)에 제작된 북한 묘향산 보현사 불화판화로 한국에서 제작한 보기 드문 불화판화이다. 한선학 관장은 한국에 불화판화가 적은 것에 대해 "조선시대 억불숭유 정책으로 인해 민중의 생활불교가 없어지면서, 자연스레 예배용으로 쓰이던 판화불화들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국 불화판화 중 '양유관음도' 역시 이번 전시에서 주목할 작품 중 하나다. 이 작품은 당나라 최고 인물 화가인 염립본이 제작한 '양유관음'을 목판으로 제작해 판화로 찍어낸 것이다. '양유관음도'는 중국에서도 보기 드문 작품이다.


백산개다라니경


묘향산 보현사 불화판화


금강산사 대찰전도

전시에는 한국과 중국이 밀접한 문화교류가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작품들도 다수 선보인다. 청나라 도광 26년(1846)에 제작된 '오대산성경전도'는 천에 찍힌 대형불화판화로,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금강산사대찰전도'(1899)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사대찰전도'는 불교 성지인 금강산의 4대 사찰을 중심으로 금강산 전경을 판화로 제작한 작품이다. 경주대 정병모 교수는 "19세기 말에는 금강산 그림이 판화로 제작될 정도로 금강산 기행의 수요가 급증했다. 작품은 '오대산성경전도'와 같은 중국의 판화에 영향을 받아 안내지도와 같은 전도형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문수신앙의 영향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오대산 관련 목판 중에는 조욕지(澡浴池)에서 문수보살이 조나라 왕을 목욕시켜 주는 장면이 새겨져 있다. 조욕지는 문수보살이 내려와 목욕을 했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삼국유사〉에는 지장 율사가 이곳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부처님 사리와 가사를 받아 우리나라로 돌아왔다는 내용이 전한다.

동국대 김상현 교수는 "중국 오대산 조욕지 관련 목판들은 우리나라에서 문수동자가 세조를 씻겨 준 설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어 학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고 말했다.

일본은 여느 나라보다 불화판화가 다양하게 발달했음 엿볼 수 있다. 극락세계를 표현한 '태장계만다라판화', 지옥세계를 표현한 '16관경판화' 등은 마치 한 편의 만화를 보는 듯하다. 이는 일본이 그만큼 민중에서 생활불교가 발달됐음을 짐작케 한다. 티베트와 몽골은 이동시 간편히 하기 위해 비단이나 면에 찍은 불화판화들이 다수 등장해 유목민들의 불교생활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강희2년(1663) 오삼계(吳三桂; 1612~1678)를 위해 공덕경으로 제작한 108권의 〈백산개다라니경〉은 티베트 경전과 한적 경전의 형태가 결합된 독특한 형태의 경전으로 중국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귀한 사료다. 작품은 변상도 부분이 4장으로 연결돼, 탱화 형태를 지닌다. 중국 고판화 전문 학자이자 북경 수도도서관 부관장인 주심혜는 "중국에서도 보고되지 않은 희귀본으로 티베트와 중국 불교 관계를 연구할 수 있는 국보급의 귀중한 자료이다"고 평가했다.

한선학 관장은 "판화를 통해 불교의 신앙심을 고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033)761-7885

이은정 기자

문화소식

'달빛에 걸린 부처님 바람이 되어'展

꽃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모습을 현대적 시각으로 화폭에 담는 김옥연의 '달빛에 걸린 부처님 바람이 되어'展이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5월 3~8일 열린다. 김옥연은 불교를 상징하는 부처님, 연못, 탱화, 동자승, 비천, 탑 등을 통해 자신의 구도적 정신인 선(禪)의 세계를 작품을 통해 구현한다. 김옥연은 붓 대신 칫솔로 그림을 그려, 마치 마음자리를 닦아 모는 번뇌를 물리치듯 단아하고 성스러운 느낌이 들게 한다. 전통적인 회화양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표현 기법들을 선보인다.

제16회 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전

제16회 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전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29일~5월 22일 열린다.

불교사진협회는 1995년 창립돼 현재까지 부처님 말씀이 담겨 있는 영상을 통해 불교포교를 실천해왔다. 불교사진협회는 이번 전시에서 '탑'을 주제로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부처님의 담아냈다.

전시는 4월 29일~5월 3일 서울 동숭동 예총회관갤러리(02)744-7871, 5월 4~7일 서울 우이동 도선사 경내(02)993-3161~3, 5월 8~12일 조계사 경내(02)732-2115, 5월 17~22일 대구문화예술회관(053)606-6114에서 열린다.

칸타타 담마파다II

니르바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봉축기념 정기연주회 '칸타타 담마파다II'를 4월 29일 오후7시 30분 KBS홀에서 개최한다. 수준급 전문예술단체 서울그랜드합창단과 불자 전문성악인들을 비롯해 대한불교소년소녀 어린이합창단이 함께 아름다운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칸타타 담마파다II'는 법정 스님이 번역한 〈법구경〉을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시조시인 서공석이 작사하고, 작곡가 김대성이 70여 분의 대형 칸타타로 불교음악과 부처님 말씀을 융화시킨 새로운 공연이다. 공연은 최선용의 지휘로 음악감독 김의명 교수와 소프라노 심민정, 여창가곡 강원순, 뮤지컬배우 박철호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02)718-4599

천진영 기자의 문화산책 ⑤ 영화 미트 페어런츠 III

장인어른과 간호사 사위의 공업(共業)



오락가락 하는 날씨 탓에 봄은 언제 오는가 싶더니 어느 덧 5월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에 결혼식도 유난히 많다. 극장가에도 가족영화가 풍성하다. 영화 미트 페어런츠3 (Meet the Parents 3)는 한 가장의 모습을 통해 우리 시대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재미있게 그려냈다. 동서고금을 넘어 똑 닮은 우리네 가정의 모습을 담아 재미를 더했다.

"I'm watching you!" (지켜보겠어)

장인 잭(로버트 드니로)이 사위 그레그(벤 스틸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간호사 사위에게 내 딸을 내어 준 것이 여전히 아깝기 때문이다. 그 덕에 사위는 사랑은커녕 인정 한번 받아보지 못했다. 그레그는 장인 앞에서 기 한번 못 피는 불쌍한 사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인은 사위에게 자신의 뒤를 이어 집안의 '대부(大父)'가 되어 줄 것을 부탁한다. 사위 그레그는 완벽한 가장(家長)으로 인정받기 위해 밤낮 없이 일에 전념한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아이들에게 최고급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완벽한 아버지 '대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가족은 함께 공업 쌓고
> 또 풀어 가는 공동체

우선 그는 두 남매를 사립학교로 보낸다. 비싼 등록금을 내야하는 사립학교를 최고의 교육이라고 여기는 우리들 모습 그대로 말이다. 그는 두 아이의 등록금을 감당하기위해 일을 두 배로 늘리고, 투잡을 뛴다. 그는 이제 너무 바빠서 가족들 얼굴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부인 팸(테리 폴로)은 자꾸 귀가가 늦어지는 남편을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완벽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아빠의 잔소리에 아이들도 지쳐간다.

그가 완벽한 가장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그와 가족의 삶은 엉망이 되고 만다. 마침내 그레그는 장인에게 당당히 대부(大父) 자리를 포기한다고 선언한다. 아니. 새로운 대부(大父)상을 외친다.

"나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은 가족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레그를 보면 우리들의 아버지 모습이 떠오른다. 그레그가 함께 짊어지고 풀어야 할 업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기에 탈이 나듯, 우리네 가정에서도 그랬다. 우리 아버지들은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하면 할수록 희한하게도 가족들로부터는 멀어졌고, 소외됐다.

가족은 서로가 공통의 과보를 받고 또 받게 하는 업을 가지고 살아간다. 공통의 업을 지닌 평등한 집합체이다. 하지만 우리는 오랜 세월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 혹은 남편에게 그 짐을 지어줬다. 모든 책임은 그에게 있다고 생각해 왔고 규정지었다.

가족은 공업(共業)중생이다.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가장(家長) 혼자만의 숙제가 아니다. 공동의 업이고 몫이다. 아주 유능한 선장이 한 명 있다고 해서 항해가 안전한 것이 아니듯, 가정도 마찬가지다. 가족이 함께 책임을 나누면 아버지는 막중한 부담도 짊어 질 필요도 없고 소외될 일도 없다.

문득 아버지가 떠오른다. 한 집에 살아도 밥한 끼 함께하기 힘든 가족들의 얼굴도 떠오른다. 이번 5월에는 직접 만든 음식과 따뜻한 포옹을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 특별한 날에만 하는 일회성 행사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할 기회이기도 하다.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면서 올해는 꼭 소리 내어 말해보자 "사랑해요", "고마워요"라고.

법정스님 뵙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진정한 행복이란 자기만의 꽃을 피우는 일이다


불일암에서 법정스님의 법문을 듣는 정찬주 작가

재가제자 정찬주 작가가
법정스님의 수행처를 찾아 깨달은 명상의 글


법정스님의 빠삐용 의자

작가는 법정스님이 수행했던 암자와 절을 순례하며 우리들에게 자기만의 꽃을 피우자고 손을 내밉니다. 법정스님의 자기다운 영혼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를 길벗 삼아 법정스님의 자취를 찾아가는 '무소유 성지순례길'을 걸어보면 어떨까요? –현장스님

스님의 수행처를 다 순례하는 동안 나는 스님의 무소유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스님은 꽃피듯 물 흐르듯 사는 것을 무소유의 삶이라고 사유하신 것이 분명하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므로 진정으로 홀가분해지고 자기다워지는 삶이 무소유의 삶인 것이다. "나도 없는데 하물며 내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셨다. '귀속의 귀'가 열려야만 들을 수 있는 가르침이다. 스님, 뵙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정찬주

그대 만의 꽃을 피워라

법정스님의 자기다운 영혼은 무엇인가?



정찬주의 마음기행

문의 (02)3144-3700 | www.Yolimwon.com 열림원

지혜의 샘

자타카 이야기 4

– 사냥꾼처럼 행동하는 나무 –



구성-김흥인





























몰랐다. 이토록 확실한 완치법인 줄은!



신비한 벌침요법시술

흘려 지나쳤던, 미심쩍던,
그러나 현대과학에 의해 그 미증유의 치유 메커니즘이
속속 규명되어 마침내 동서의학의 새로운 총아로 떠오른
벌침요법의 경이로운 효능!
'어떤 질병도 반드시 치유법이 있다'는
고래(古來)의 명제에 닿아있는 순기능적이고도 강력한 천연의학,
그 천혜의 치유법에 관한 제대로 된 독보적 텍스트!!

쉽고도 오차없는 완벽시술을 위한 기획! 따라 해보세요, 놀랍도록 낫습니다

▶**교본1권**[개요 및 질환별 시술법]+▶**DVD4장**[교본(책)의 한계성을 극복, 질병별로 치유력 극대화를 꾀한 최적의 시술법을 누구나 쉽고 정확히 배워 상용케 한 생생한 실감의 동영상 시청각교재]/ 강철형(대한벌침요법연구회장)편저/ 잔여분 **특별보급가 14만원(정가 32만원)**/*시술용 벌(꿀벌)은 시중에서 값싸게 구입할 수 있으며 연락하시면 별도 우송도 해드림.

–수록 질병–

관절통 · 관절염/ 디스크(허리 · 목)/ 요통/ 팔다리 · 손발 차고 저림/ 견비통(오십견)/ 엘보우(상지통)// 우울증/ 불면증/ 치매/ 각종 두통/ 간질/ 각종 신경통 · 신경쇠약/ 안면신경마비// 간염/ 간경화/ 변비/ 위경련/ 위염 · 설사/ 위 · 십이지장궤양/ 장염/ 신경성소화불량//전립선염/ 발기부전/ 조루/ 불임/ 냉대하(생리불순 · 생리통 · 자궁내막염)// 감기/ 기관지염/ 천식/ 편도선 · 후두염// 당뇨/ 비만/ 갑상선염/ 유선염// 고혈압/ 저혈압// 방광염/ 야뇨증/ 요실금// 잇몸질환 · 치통/ 치질/ 알레르기비염 · 축농증/ 안과질환(백내장 · 녹내장)/ 난청/ 어지럼증 · 귀울림/ 중이염/ 무좀/ 습진/ 티눈/ 탈모/ 기타 질병

제대로 한번만이라도 경험해 보라. 반드시 신봉자가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벌침요법의 임상적 응용은 급속 확산추세이며, 많은 의사들에 의해 임상적 효과가 확인되었고 과학적 연구도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각종 난치병치료에 활용가치가 충분하며, 비용부담이 적고 시술법이 간단하다는 장점 등은 이에 대한 연구와 임상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당위성이기도 하다. 벌침요법의 질병별 치료법과 경험방이 담긴 본 '신비한 벌침요법'은 벌침요법의 연구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전세일(포천중문의대 대체의학대학원장)–

"벌침요법은 벌침의 물리적 작용과 벌침액의 화학적 작용이 이루어져 일침(一鍼) 이구(二灸) 삼약(三藥)의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 강력한 소염작용을 비롯 청혈, 용혈, 신경부활, 살균, 조직생성 작용 등의 효과를 낸다. 벌침요법의 효과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속속 밝혀지고 있고 난치병 해결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영수(실로암한의원장)–

"벌독이 세포 내 염증 신호전달경로와 관계된 유전자를 억제해 염증을 막아준다" –경희대 · 자생한방병원 연구팀–

"류머티즘, 만성관절염, 패혈병, 악성종양의 치료에 벌독을 사용한 결과 98% 이상의 경이로운 효과를 얻었다" –부로드만(의학박사 · 미국) '벌독(BEE VEONOM)' 중에서–

"벌침은 화학약품과는 달리 가장 안전하며 이보다 훌륭한 주사침은 어디에도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구할 수 없다" –Roy, J, Rence(미국 의학지)–

"경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벌침액은 화학항생제보다 약효가 1,200배나 높아 돼지와 소의 염증성 질환을 조기 치료했고, 생체면역 및 생체리듬을 좋게 만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질병발생 감소로 인한 생리작용 활성화로 경제 수명연장 등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전화하시면 우송해드리며 대금은 수령 · 검토 후 송금하시면 됨. **주문 : T.02-2618-0700, 070-8811-5775** 학술편수관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 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GI 낮은 식품으로 건강 지키자

혈당을 낮춰주는 저(低)GI 식품



그림 · 오영식

피로가 가시질 않는다.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눈도 침침해 진다. 안 걸리던 감기도 달고 산다. 췌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다. 당뇨병을 의심해 볼 차례다.

암을 제외한 단일 질병으로 당뇨병은 한국인 사망원인 3위에 이른다. 당뇨병의 원인은 유전적요인, 스트레스, 고혈압, 운동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서 비만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비만은 현대문명이 만들어낸 심각한 건강 문제다. '맛' 좋은 음식을 위해 자연그대로의 식품을 섭취하지 않고 가공 · 정제하면서 현대인의 영양학적 문제가 시작됐다.

당지수가 낮은 음식은 포만감을 유지해 식욕을 줄여주고 인슐린 양을 조절해 체중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식품의 당지수를 알고 적절히 섭취하면 당뇨병을 예방할 뿐아니라 치료에도 유용하다. 그리고 당뇨병의 합병증도 예방한다.

많은 사람들이 체중감량을 목표로 배고픔과 싸우고 있다. 배고픔도 당지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통스럽지 않고 맘 편히 먹을 수 있는 저(低)GI 식품들을 소개한다.

당수치 높으면 살찐다

뇌는 오직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배고픔은 뇌에서 포도당이 부족할 때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다.

음식을 섭취하면 혈중 포도당이 증가한다. 췌장에서는 포도당을 금방 알아차리고 인슐린 호르몬을 내보내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적절히 사용 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 속 포도당이 뇌와 몸에 에너지원으로 공급되지 못하게 된다. 이때 포도당을 공급 받지 못한 뇌는 자꾸 음식을 섭취하라고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면 혈중 당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소변으로 당이 배출되는데 이것이 바로 당뇨병이다.

GI 지수 60 이하를 먹어라

당지수(GI, Glycemic Index)는 식품이 가진 단맛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식품 섭취 후 혈액 속 당 수치를 측정한 것이다.

GI는 포도당을 100으로 보고 70이상을 고(高)GI 식품으로 55이하를 저(低)GI 식품으로 분류한다. 체중 감량에는 GI 60이하의 식품이면 충분하다. 고GI 식품은 빨리 소화 흡수 되어 혈당치를 급격하게 상승시킨다. 혈당의 수치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것이 좋다. 혈액 속 당수치가 높으면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기회를 막아 몸 안에 지방을 축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GI 지수 낮은 음식을 먹자

GI 수치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종종 있어 고정 관념을 갖지 말고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빵은 설탕보다 더 빠르고 높게 혈당을 증가시킨다. 찐 감자는 의외로 GI가 높아 설탕과 비슷하다. 대부분의 과일은 GI가 낮지만 수박은 팝콘만큼이나 GI가 높다. 일반적으로 신맛을 내는 과일이 GI가 낮다.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의 종류가 아니라 밀도다.

당수치 낮춰주는 저GI 식품

당지수만 고려하면 초콜릿 같은 고지방 식품도 첫눈에는 좋은 선택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한 선택이다. 고지방 식품은 소화 속도가 느려 당지수는 낮게 나타나지만 포화지방산이 많아 심장 질환을 일으키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천진영 기자

기준: 포도당 100

GI가 높은 식품 (70 이상)	GI가 보통인 식품 (56~69)	GI가 낮은 식품 (55이하)	GI가 0인 식품 (10 이하)
바케트(흰빵) 93	스니커즈(초코바)68	꿀 55	참치
쌀밥 92	보리밥 66	고구마 55	달걀
도넛 86	파인애플 66	현미 55	돼지고기
떡 85	설탕 65	바나나 52	생선
구운감자 85	찐 감자 65	포도 46	쇠고기
찹쌀80	파스타(스파게티) 65	사과 36	치즈
게토레이 78	호밀빵 64	귤 33	고추
라면 73	아이스크림 63	토마토 30	브로콜리
팝콘 72	초코바 63	우유 25	양배추
수박 72	쌀국수 61	보리 25	오이
		땅콩 14	아몬드

"인슐린 투여 두려워 마세요"

강북 삼성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박철영



"환자분들 중에는 인슐린주사 이야기만 꺼내도 표정이 굳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인슐린주사를 피하려는 환자도 계시는데, 인슐린주사를 당뇨병 치료의 '최후의 수단'으로 잘못알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인슐린요법을 당뇨병 치료의 가장 마지막에 사용했던 시절이 있었다. 식사와 운동요법을 처방하는 것으로 시작해 약을 처방하고 그 다음에 인슐린을 투여했다. 그러나 환자는 그 치료 과정동안 이미 당뇨병이 많이 진행돼 각종 합병증을 일으키게 될 확률이 높아졌다. 치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자연히 복용 약의 양도 많아지는 단점도 있었다.

"요즘은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초기부터 바로 인슐린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인슐린 투여는 가장 빠르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입니다."

박 교수는 초기부터 인슐린집중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병의 진행을 조기에 막아 합병증을 예방하며, 복용 약의 양도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고 강조한다.

박영철 교수는 당뇨병 치료과정은 '영어교육'에 비교하기도 한다. 영어는 어릴 때 배우면 성인이 된 후에 배우는 것보다 훨씬 힘들이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초기치료가 중요하다는 것. 대부분의 당뇨병 치료는 환자가 '꾸준히', '평생' 지속해야 한다는 것도 영어교육과 비슷한점이다.

최근 20~30대 젊은 사람들의 당뇨병 발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성인 당뇨로 불리던 제 2형 당뇨병이 10대 청소년들에게도 발견되고 있다.

한국인의 단일 질병 사망원인 3위가 당뇨병이다. 그러나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다. 그 자체로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1, 2위인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삼고(三高)만 피하면 당뇨병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이 바로 그것이다. 혈당을 정상에 가깝도록 엄격히 조절하고 금연과 함께 적절한 식습관과 운동을 병행하면 삼고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뇨 환자의 흡연은 일반인이 입는 해로움과는 비교 할 수 가 없다"며 "혈관을 손톱으로 긁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고 절대 금연을 당부했다.

강북삼성병원은 4월 13일부터 8주간 '2011 건강대학' 교양강좌를 진행한다. 제1강 내분비 강좌는 2002년 대한내분비학회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한 내분비내과 박철영 교수가 강의했다.

천진영 기자

건강칼럼

수승화강(水升火降)



정지천 내과 교수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에서 가장 큰 볼거리는 단연 '성화 점화'다. 역사상 가장 멋진 성화 장면으로는 지난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이 손꼽힌다. 오케스트라의 협연 속에 '물(水)'과 '불(火)'이 만나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듯한 환상적인 상황을 연출했다. 높은 계단에서 물이 흐르고 그 물이 폭포가 돼 떨어지고 마지막 성화주자가 나지막하게 잠긴 물의 한가운데에 서서 성화대에 불을 붙이자 어느 틈에 빨갛게 타오르는 불이 물속에서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이 장면은 동양철학의 근간인 '물과 불의 조화'를 나타낸 것으로, 짧은 역사에다 서양문화 일색인 호주에서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다. 물과 불은 우주는 물론이고 인체를 구성하는 양대 요소로서 물은 음(陰), 불은 양(陽)에 속한다. 물과 불이 화합을 이뤄 음양이 조화돼야 우주나 인체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자연계에서는 물이 아래로 흐르고 불이 위로 타오르는 것이 순리지만, 만약 사람의 몸 안에서도 그렇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은 물대로, 불은 불대로 분리돼 서로 화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를 물과 불이 교류되지 않는 '수화불교(水火不交)', 혹은 '수화부제(水火不濟)'라고 한다.

몸속에서 불기운[陽氣]이 내려가지 못하고 물기운[陰氣]은 올라가지 못한다면, 혹은 불기운은 올라가고 물기운이 내려간다면 어떤 상태가 될까? 머리가 뜨겁고 발이 차가운 '두열족한(頭熱足寒)'이 된다. 음양의 기가 조화되지 못해 상하 교류가 되지 않아 상부에는 양기가 왕성하고 하부에는 음기가 왕성해진 탓이다. 그런 상태에서는 두통, 어지럼증이 오기 쉽고 중풍(中風)이 올 위험이 크다. 또한 침[唾液]이 올라오지 못해 입이 마르고 목이 따가우며 심할 경우 누런 가래 혹은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오며, 가슴이 답답하면서 뛰고 불면증에다 꿈도 많아진다. 그리고 경락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와 허리, 다리도 차가워서 배가 아프고 소화가 잘되지 않으며 대변이 묽어지거나 설사가 나오고 허리가 아프기 쉽다. 당연히 성욕과 성기능도 떨어지게 된다.

인체에서는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불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수승화강'이 돼야 한다. 그래야 머리가 서늘하고 발이 따뜻한 '두한족열(頭寒足熱)'이 되면서 물과 불이 화합이 되는 '수화교류(水火交流)', 혹은 '수화상제(水火相濟)'가 되어 정상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은 물을 주관하는 신(腎)과 불을 주관하는 심(心)이 조화를 이룬 '심신상교(心腎相交)'이기도 하다. 아기를 잘 기르는 방법인 '양자십법(養子十法)'에도 두한족열이 나온다.

근대 임상의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헤르만 부르하페(1668~1738)가 죽은 뒤 '의학사상 최고 비밀'이라고 쓰인 두툼한 노트 한 권이 경매에 붙여졌다. 유럽 전역에서 명성을 날렸던 유명 의사였고, '최고의 비밀'이 담겼기에 낙찰가가 엄청났다. 이를 구입한 사람이 노트를 열어보았더니 맨 뒷장에 단 한 줄이 기록돼 있을 뿐이었다. "머리는 차갑게 하고, 발을 뜨겁게 하며, 몸속에는 찌꺼기를 남겨 주지마라. 그러면 당신은 세상의 모든 의사를 비웃게 될 것이다."

유럽 명의의 '최고의 비밀'은 머리는 차갑게 배는 따뜻하게

수승화강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로 앉아서 머리를 많이 쓰고 차를 타고 다니기에 다리를 쓰는 활동이 적으므로 상하 교류가 되지 못하는 탓이다. 게다가 스트레스가 많아 열은 자꾸만 생겨나는데 걷기는 적게 하니 열이 내려오기는커녕 오르기만 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머리는 차가워서 아픈 경우가 없고 배는 따뜻해서 아픈 경우가 없다(頭無冷痛, 腹無熱痛)'는 말을 잊지 말자. 실제로 냉두통과 열복통은 극히 드물다.

당신도 설법을 연수하면
설법을 잘할 수 있다 ???

교육내용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최면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40년 노하우, 전문가인 원장 직접 지도

교육일정
❖ 종 합 반 : 10인 이내
❖ 개인지도 : 환영, 특별지도

연수안내
❖ 기 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 강 의 : 종 합 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9시
개인지도 – 직접 상담후 결정
❖ 장 소 : 본 연수원 강의실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우불 철학박사 김 철 회
사)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韓 國 說 法 硏 修 院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 3. 5호선 종로 3가역 1번 출구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신뢰 받고 있습니다"

저 '고복자 효사'가 지난 10년에 걸쳐 임상실기용으로 써낸 아래 '육임활용서' 및 '육임CD프로그램'들은 매서운 그 '정확도'와 탁월한 그 '효과성'과 놀라운 그 '귀신 · 사숭 · 산소탈등의 적시'는 이미 검증 되어있습니다. 즉시 활용할 수 있으며, 구입하신 분이 원하시면 '효과성'을 위해 방문 드리겠습니다.

1.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 (인증 없이 여러곳에 장착됨)
아래 육임활용서 및 각종 오행술의 종합 장착품 – 인증기능을 없애고 여러곳에 장착 시키게끔 되어 있으며 방문자의 속사정들이 순서적으로 화면에 미리 떠 있습니다. 정가 : 450만원

2. 고귀명수 (좌정용 / 휴대용 순별 10일치씩 전6권)
육임 법칙에 의한 내방자의 당면 핵심사는 물론 그의 일생사를 정형화시켜 구구한 해석 없이 즉시적으로 판단해줄 수 있도록 한면 한눈으로 명시 해 놓았습니다. 정가 : 350만원

3. 효사육임산책 (휴대용 / 순별 10일치씩 전6권)
방문자의 당면사들을 고차원단계로 적시해 놓은 2011 개정 증보판 휴대용입니다. 정가 : 250만원

4. 효사육인복변집 (좌정용 / 순별10일치씩 전6권)
위' 육임산책'을 좌정용으로 제본 되어 있습니다. 정가 : 250만원

5. 효사오행제례의식집
방문자의 해당 재액별로 독자적 수법의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해놓은 매우 탁월한 수법서 입니다. 정가 : 5만원

6. 위 외 다수의 육임 학습서, 활용서, CD프로그램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주문 : 대표전화 02)783-8680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1-778137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주식회사 www.taotemple.net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403호

불교와 기독교가 만나는 자리④ 강남대 이 찬 수 교수 (종교문화연구원 원장)



이찬수 교수의 '불교와 기독교가 만나는 자리' 5번째 강좌가 4월 18일 자력과 타력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 교수는 "불교는 기독교의 타력적 신앙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거나, 기독교 신에 대한 의도적 반발로 스스로를 자력적 종교라고 가둬 놓는 경향이 있다"며 "근원적으로 주어진데서 출발한다는 넓은 의미에 타력과 자력은 이분법적이고 대립되는 언어가 아닐뿐더러 무아를 이야기하는 불교에서 스스로를 자력이라는 것은 모순이다"고 설명했다. 강의는 기독교와 불교를 피상적으로 바라보고 오해해 왔던 사실들에 대한 토론과 질의로 열기를 더했다. 수강생들은 불교의 무신론과 불상 우상론, 신앙 · 믿음의 대상, 종교가 나아가야할 방향, 범재신론 등 다양한 질문을 했다. 이찬수 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자신의 종교적 입장을 이웃종교에 최선으로 적용해 본다면 80%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웃종교를 이해하는 자세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강의는 서울 서교동 서교빌딩 대안연구공동체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린다.

www.paideia21.org (02)777-0616 **정리=이상언 기자**



자력과 타력은 하나… 무아적 자유와 사랑의 삶 추구

#정토신앙과 타력 너머의 세계

불교는 자력, 기독교는 타력으로 양 종교 전통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불교를 단순하게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력 종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는 이분법적이지 않습니다. 종교는 근원적으로 주어진데서 출발합니다. '자력' '타력'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오히려 모두 타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도 타력 신앙인 정토왕생(淨土往生)신앙이 있습니다. 정토신앙은 타력신앙으로 대승보살의 신앙에 기초합니다. 인도에서 시작해 중국, 한국에서 대중적 신앙으로 발전하다가 일본에서 신앙 사상면에서 확실히 자리 잡게 됩니다. 정토종 소의경전 '정토 삼부경' 중 〈무량수경〉에 의하면 먼 옛날 한 국왕이 출가해 법장(Dharmākara)이란 이름의 비구승이 됩니다. 그는 과거불의 하나인 세사재왕불 앞에서 중생 구제를 위한 48개의 서원을 세운 후 이 원을 이루기 위해 수행한 결과 아미타불이 됩니다. 보살이었을 때의 원이 수행을 통해 다 성취된 결과 그는 서방정토에서 중생을 교화하는 정토의 주재불이 됩니다.

아미타불은 Amitāyus Buddha 무량수불(無量壽佛), Amitābha Buddha 무량광불(無量光佛)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Amitāyus에서 Amitā는 무량, 무한의 뜻이고 yus가 생명, 목숨의 뜻입니다. 또 Amitābha에서 bha는 빛을 뜻합니다. 아미타불이 주제하는 세계를 정토(淨土)라고 합니다.

정토왕생은 해탈을 위한 방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 · 중 · 일에서는 정토 자체를 해탈의 세계로 간주하게 됩니다.

정토 신앙의 사상적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중생이 정토에 왕생해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장보살의 48원의 요지는 아미타불이 있는 극락세계로 중생을 이끌겠다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극락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 자신도 열반에 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생각하는 염불(念佛)이 핵심입니다. 법장 비구는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3번만 부르면 정토에 태어나게 하리라"는 서원을 세워 이뤘습니다.

성경에 "누구든 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요한복음의 구조와 상통합니다. 불렀기 때문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르면 태어날 수 있도록 진리가 이미 갖추어진 것입니다. 본래적인 서원의 힘이 믿음을 발생시키고, 믿음이 정토에 태어나게 합니다.

정토종에서는 자신의 해탈을 위해 오직 아미타불의 은총으로 구원받는다는 타력신앙의 진리를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선한 사람도 왕생하는데 하물며 악한 사람이야 말할 것 있겠는가?"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선한 사람이 왕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사람은 왕생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죠. "악한 사람도 왕생하는데 하물며 선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아미타불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한 사람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지만 아미타불의 자비는 훨씬 커서 선한 사람도 정토에 태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독교 성경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됐습니다"라는 말을 연상케 하는 표현입니다. 보통 의인과 선인,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더 많은 은총이 넘친다고 하지만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일본에서 번성한 정토종

염불은 부처님을 생각하고 명상하는 행위였으나, 중국의 정토신앙에서는 선도(善導 · 613~681)대사 이후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입으로 일컬으며 신심을 표하는 구칭(口稱) 염불로 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평안조(平安朝)말 사회적 혼란기에 말법사상이 풍미하면서 전통적인 수행으로는 구원받기 어렵다는 비관적 견해가 퍼집니다. 정토 신앙 주창자들은 계 · 정 · 혜 삼학을 닦는 전통적인 수행의 길을 어려운 길(難行道)로 간주하고, 오로지 염불 수행을 통해 정토에 왕생하는 길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쉬운 길(易行道)로 주창하게 됩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쉬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외부로부터 주어진, 본래 이루어진 사실에서 구원된다는 사유가 커지면서 정토는 발전됩니다.

정토종의 개창자인 일본 호넨(法然 · 1133~1212)은 염불 수행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역설합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넨의 제자인 신란(新鸞 · 1173~1262)은 스승의 사상을 더욱 발전시킵니다. 타력적 신앙의 불교적 기초를 놓아준 것입니다.

이처럼 신란의 극단적 정토신앙은 신학자 칼바르트(Karl Barth, 1886~1968)가 "정토종에서 신앙의 대상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미타불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거의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불교에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방편에 불과합니다. 염불은 신심의 자연스러운 발로일 뿐 결코 그것 자체가 나의 공로나 왕생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 나라는 것이 부처님의 법성법신, 부처님의 본래적인 모습에 기반해 방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기도를 하나님에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많은 보살에게 기도를 합니다. 기능에 따라 다른 이름을 붙여서 기도를 하지만 보살들은 결국 부처입니다. 보살은 방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열반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 '자력' · '타력' … 이분법사고 뛰어넘어야
> 깨달음은 이미 주어진 곳에서 이뤄진다

#자력과 타력

대승불교의 핵심적 세계관이라는 차원에서도 자력과 타력은 설명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他)는 자(自)의 대립어가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힘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미 주어져있는 사실, 본원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불교는 중생이 부처다(衆生卽佛), 심즉불(心卽佛)로 표현됩니다. 중생과 부처, 나와 너라는 이분법이 사라지게 되고,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구분이 사라진 것이 선불교의 핵심입니다. 선 수행은 '나'라는 것을 잊는 깨달음의 체험인데, 이것이 '나'에 의해 성취된다는 생각은 자아로써 무아를 얻으려는 것이기에 모순입니다. 공에 기반한 색의 논리는 일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자타불이가 통합니다. 타력성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자타불이 사유체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선불교, 공을 강조하던 대승불교 전통과 정토, 아미타불의 본원, 가피력에서 자타불이 세계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력종교 선(禪)과 극단적 타력신앙인 신란의 정토사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라는 자아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아의 세계가 곧 구원입니다. 무념, 무심, 무아를 말하는 선이나 아미타불의 은총과 순수 타력에 의한 구원을 말하는 정토 신앙에서도 '나'라는 존재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기독교 사상에서 핵심은 창조주 하느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은총입니다. 은총의 하느님을 깊이 깨닫고 그에게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인간 앞에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무아적 자유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깨달음이란 결국은 주어지는 것이지 나의 성취는 아닙니다. 기독교 용어로 표현하자면 일종의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내가 성취했다'면 그것은 이미 순수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 존재와 생명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 있지 않고 자기를 초월하는 어떤 무한한 실재에 있음을 말합니다. 하느님이든 공이든 불성이든 자연의 법칙과 질서이든, 초월하는 절대적인 삶의 기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는 건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도 예수도 자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불교는 스스로 '자력' 종교이며 '무신론적' 종교라고 속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가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없는 진리를 만들어 내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부처님이 아니라 그가 발견한 법, 즉 진리 자체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자들도 우주만물의 질서와 존재의 신비만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독교의 은총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은총의 질서에 속합니다. 무엇이든 주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매우 겸손해 질 수 밖에 없으며 '자력' 종교라는 말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궁극적 실재

기독교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실재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언어 속에 담기지 않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철학자들은 궁극적 실재를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 중립적으로 '궁극적 실재'라고 말합니다.

GOD, 알라, 하나님, 하느님, 천주, 열반, 불성, 신, 브라만, 도, 천이라는 이름은 궁극적 실재의 세계에 대한 상대적 표현에 불과합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GOD'이라고 하지만 'GOD'이라는 언어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어가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약사여래부처님이라고 해도 진리적 기능은 같습니다. 부르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종교인의 목표는 언어를 넘어선 세계가 궁극적인 세계라는 것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언어에 갇히지 않는 세계, 마치 공(空)과 같은 세계입니다.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4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네츄럴 삼베 멍석 카페트

오직~ 현불샵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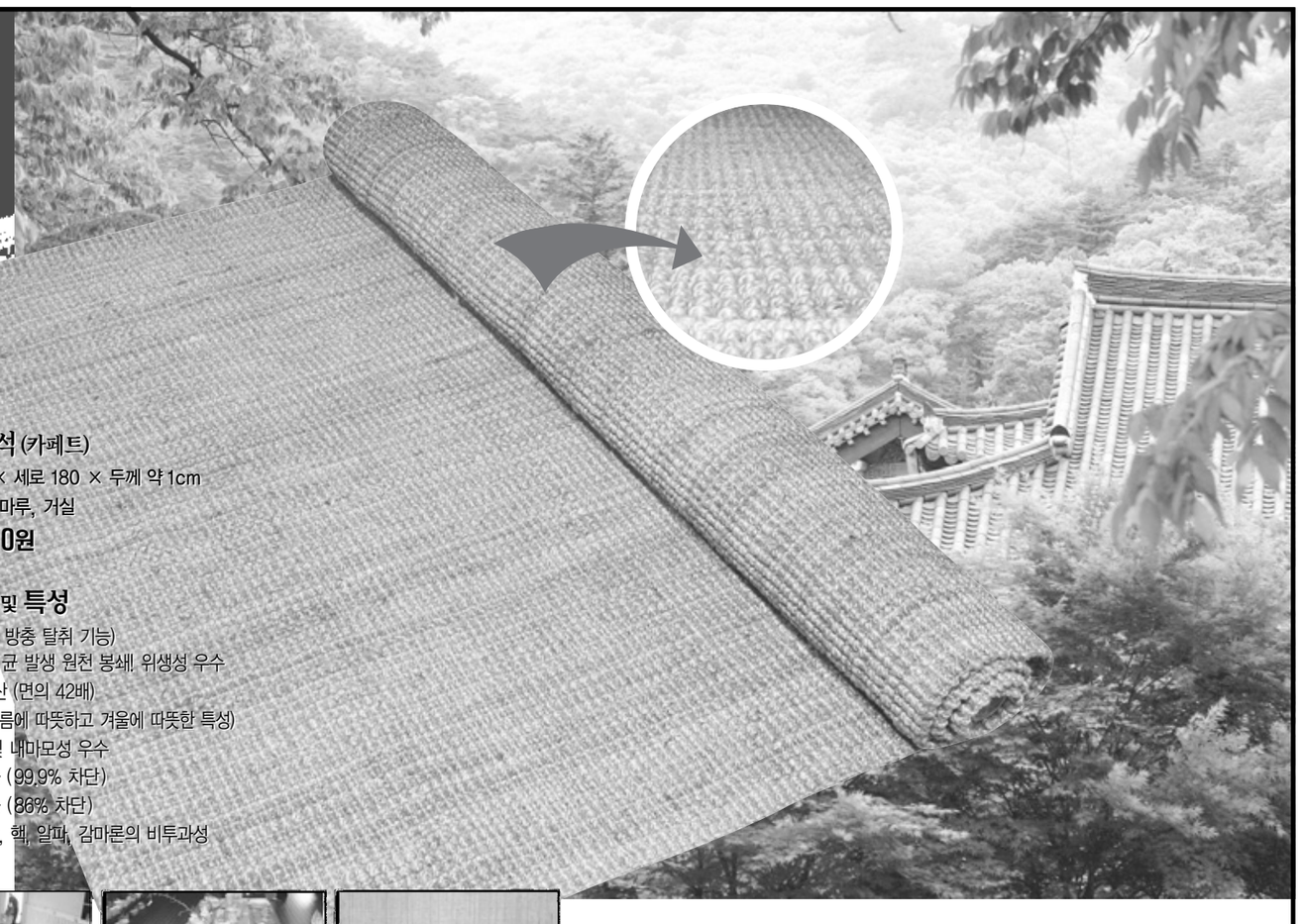
◇ 원산지 : 한국



■ 삼베 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 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용도 (공통) : 요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 삼베 수제 멍석 (카페트)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득이,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론의 비투과성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간경화, 치매, 사업성취
각종 난치병 치료보장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산 47번지 **새절 의단원 054)535-9870**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 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부산무형문화재연수원(바라,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 인 모 집
보유자 큰스님 직강
(범음범패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010-2563-5550 (속성반)
사찰행사 (천도재 산신대제 수륙대제)
영축사(사주영가찾는법 속성지도)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바라작법무연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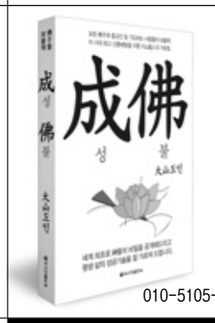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입 종 안 내
한국불교법화종
위 종단은 50년된 전통종단이며
종단을 좀더 활성화하고자
입종을 안내합니다.
(행사협조, 친목도모, 계첩, 법계증, 사찰등록증,
권익보호와 운영에 관심있으신분 환영)
부산 사하구 감천동 567-2 (성불사)
법화종 051)204-8494
총무원 011-885-8989

불사用 달마도 보급
청암(靑巖)친필 달마도를
불사용으로 저렴하게 드립니다.
인터넷 : www.달마.kr
전화 : 051)202-8770
H.P : 010-2953-8770
청암 달마원 드림

승려 공부하시고
사주, 역학공부 하실 분
기초부터 책임지도 함
(인천 제물포)
010-2235-1717

成佛 (성불)

전국서점에서 구입(주문)해주세요!!
010-5105-5000

수강생 모집
사주,궁합,택일, 성명학
사주학 초보에서 실전개업까지
최단기간 비법특강.
자격증 수여. 수강료 저렴.
수시접수
30년 전통 대한역학교육원
02)763-4566

수강생 모집
평생 佛事에 뜻이 있거나
신통가능 또는 神끼가 많은
男女스님, 보살님, 법사님,
초보행자 등 특별한 사람을
찾으니 꼭 연락바랍니다.
成佛책과 운명책 20권쓴
남해안 '용궁사' 大山도인스님
010-5105-5000

수강생 모집
철학반 • 무속반
승도반 • 치유반
도건명리학당(불당사)
042)526-1123
010-3452-1123

수맥탐지 특강
대불정능엄신주기도
가정,회사 방문 상담기도
우울증, 불면증, 신경쇠약, 변비,
가족갈등,결혼인연,
묘지선정,이장
꿈바위불교교육원
서울, 부산, 대구
010-6789-5008

LA에서 부전하실 스님, 사무실 직원, 공양주 모십니다
042)272-1223
010-5792-3000

부전스님
(사찰운영 같이 하실 수 있는 분)
모십니다
종무소, 공양실 거사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가정적인 사찰입니다)
016-9730-3003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50세 이하, 서울 금호동
02)2234-3310
010-6260-3310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
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공양주 보살님,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거제도
010-8559-483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남 창원시내, 55세 이하
011-879-254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기도 고양시
017-727-0311

염 불 역 학
1달 속성완성
승려가 개인지도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716-3811

조계종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50세 미만, 경남 양산
011-880-6606

비구니 부전스님, 공양주 모십니다.
▷ 거제
010-7169-987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경남 김해
011-9514-3721

부전스님 모십니다
▷50대, 여법하게
염불하실 분, 경기도 안양
031)471-667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기도 광주
010-2559-2020

공양주 하시면서 노후 보내실 보살님 한분 모십니다.
▷경기도 부천 도심포교당
010-3660-9363

기 도 처 구합니다
▷산속에 있는 토굴이나
암자, 전세도 가능합니다
010-3677-1231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곳 원함
경자생 비구 독신
명상치유,빙의령치유,
명리철학,기치유 등
포교방편 원력 있음.
(부산, 경남지역 원함)
010-4876-1042 성진 합장

아주 특수한 기도비법
☎ 032)664-0048 / 011-741-0867

청도 한재 미나리 진액
흰 민들레, 강화약쑥
복부비만해소, 고혈압, 수족냉증, 노화방지, 숙취제거,
간질환, 위암, 폐암, 유방암, 항암효과, 변비, 만성피로
60개 1박스 6만원 (스님,부모님께 최고의 선물)
농협 356-0150-1551-73 정승열
지 장 암 010-2367-0200
010-5251-4196 (대명화보살)

약손 활법치유 배우실 분
◐ 혜봉스님 19세때 신명으로 전수 받아 귀신같이 아픈곳을 알아내는 비법
◐ 빙의,심인성질병 병원에서 치유되지않는 업병,신병,무병 치유하는 비법
◐ 전수기간 : 3개월 전수비 99만원 농협 703088-51-013554 예금주 :지장선원
◐ 대상:영적기감,염력,예지력,야손치유법에 관심있는 성직자 일반인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8-1 지장선원 (www.JiJangsw.com)
054)383-8553 / 011-9585-4908
[알콜해독.식욕부진.아토피.주부습진.옴.아르레기.빙의 등에 비방있음]

사찰건축 전문
▶ 평생 단 한번의 중요한 일
▶ 불사(佛事) 목적을 분명히 알고 실행한다면
사찰 內 도량(道場)은 빛날 것입니다.
人 安 고 건 축
031-637-8886 / 063-643-1373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1-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철곡, 구미, 포항, 서울 동대문, 미국뉴욕,
중국 칭다오 , 호주 시드니 동시모집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화, 금요일 오전, 목요일 저녁 / 주 1회 공부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입학문의 : 전화 053)474-8228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전화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출퇴근 가능하신 분
▷ 55세 이하
▷ 서울 상계역 근처
011-9002-8523

통증 제거 기술 무료교육
스님들 요즘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원심수기요법을 배워 활용하신다면,
사찰운영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심수기는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즉석에서 제거할 수 있는 기술로
배우는데도 쉽고 간단한 기술입니다. 원심수기는 침이나 지압도 아니며
외국에서 들어온 기술도 아닌 우리전통기술입니다.
-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7시부터
연락처 : 한 의 원 019-305-9138
* 또한 불자님 중에 한의사 선생님을 초빙합니다. (숙식제공 가능)

대구 팔공산 명당 절터

◐ 대구시 권역 위치 사람 많은 곳
◐ 시 지정 지방문화재 석불입상 보존 (영험)
◐ 부지 내에 맑은 물 흐르는 청정 계곡 활용
◐ 최고 전원주택도 가능
◐ 갓바위, 동화사, 부인사, 파계사를 옆으로 나란히 잇는 팔공산 순환도로 기슭
◐ 정남향으로 내려다보며 펼쳐진 천혜의 절터 명당
◐ 대구시 동구 송정동 3500평
◐ 가격절충 가능

연락처 : 010-3469-7487

명상수련
삶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시나요 ?
명상을 하면 걱정과 근심이 없어집니다 .
명상수련은 인생에서 부딪치는 많은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여줍니다 .
"심산의 맑은 생수만 마시며 단식으로 다이어트,
고혈압,당뇨, 과민성대장 ,아토피, 피부미용, 체질
개선, 금주 ,금연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십시요."
고요한 산속 명상수련원에 오셔서 황폐하여진
당신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세요.
그리고 모든 장애의 속박에서
벗어나 대자유인으로 살아가십시요.
◐ 수련기간 : 7일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입소
다음주 토요일 오후 1시에 퇴소
◐ 침실은 1인 1실 : (수련은 강당에서 단체로 합니다)
금정산 명상 수련원 (금윤선원)
경남 양산시 동명 사송리 1036-1
055)383-7009 / 011-556-5830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수덕사
• 주 소 : 전남 고흥군 도화면
사덕리 산 18-2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7일

불교조계종 삼화불교 총무원장 법하

불자정보

▷ 문 의 : 02) 2004-8215,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 / 상단 돌출 150,000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진구
- 법당 : 20평
- 산신각, 용왕각, 요사채
- 가액: 2억 7천만원

010-7157-1614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법당 : 40평
- 요사 : 120평
- 부지 : 62평
- 가액 : 17억
  지하철100M이며 즉시법회 가능함
- 위치 : 강원(동해안)
- 법당 : 25평(목조)
- 요사 : 50평(목조)
- 부지 : 270평
- 가액 : 4억 5천
- 위치 : 경남
- 법당 : 25(목조)
- 요사 : 75평
- 부지 : 1,000평
- 가액 : 8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금정산 대사찰(천년고찰)
- 총대지 : 약 5700평
- 법당 약80평, 요사채 및 기타 5동
- 부산 금정산 자락
- 가액: 18억

진주 아름다운 사찰(100년)
- 대지:600평
- 법당 20평, 요사 및 기타 5동
- 진주 인터체인지 5분거리
- 주차장 120평
- 총금액: 4억 8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금호
- 대지 108평, 건물 60평
- 법당 15평, 거실(大)1, 공양간(大)1 방3, 보일러실, 창고
- 식수: 지하수
- 주변여건: 뒤에는 작은 산, 앞에는 큰 저수지 위치
- 가액: 집기포함 9천만원

010-4504-1246

포교원 안내
- 위치: 경기도 광명. 서울권
- 45평, 삼존불
- 보증금 2천만원, 월 85만원
- 시설비 A급 . 3천만원중
- 1천 만원만 받습니다
- 목조석불,본존탱화,신중탱화 산신탱화는 무료보시

02)2618-0908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 우포늪
- 대지 총 320평
- 법당. 조립식 24평
- 화실 24평(탱화제작)
- 요사,적벽돌기와27평,황토방4평,석탑1기
- 가액: 1억 8천만원(절충가)

010-6582-284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531-5 태양빌딩 5층 중 4층
- 평수 :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1000만원

011-742-8458

바닷가 기도처 안내
- 전망좋은 바다와 도로 접
- 위치 : 포항 북구 슬라브 집
- 대지 65평, 건평 23평
- 가액: 7500만원

010-6474-5903
011-825-3181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용성리
- 대지 200평, 바로 뒤에 산
- 임법당 1동, 산신각 1동
- 방4, 창고1, 공양간, 보일러실, 샤워실
- 가액 : 7천 5백만원

010-7377-3574

도심사찰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대흥동
- 평수 : 총 120평
- 3층: 90평, 법당 45평 방5, 화장실4, 후원 및 찻 주방
- 4층: 30평 요사(대중살림가능)
- 시설 A급 모든시설완비, 현 법회중
- 삼존불, 후불, 인등 300등, 관음원불 108불, 삼성각 있음,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500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3천만원

011-679-1080

한 국 불 사
- 위치 : 경기지역
- 가액 : 20억

※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운영 하실분 전화 상담해드립니다

010-3154-3535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합천호 주변
- 경관수려하고,건축허가 가능
- 진입로 포장되어있음
- 임야 . 논 총 954평
- 가액 : 6천 7백만원

011-848-2452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 10분거리에 5000세대 아파트단지
- 대지 340평, 건평 200평
- 소임관계로 급 양도
- 석간수(물)최고, 최고의 명당
-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차탁
- CCTV. 대용량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4억 3천만원(대출 1억 3천만원)
-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7-787-6666

포교원,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치악골
- 포교당, 별장, 사무실, 작업실, 전통찻집 갤러리샵으로 사용가능한집
- 3층건물
- 가액: 3억(절충가능)

011-9917-7039

사찰(급)안내
- 경북 김천시(시내에서 7분거리)
- 대지 171평,건물단청, 수미단, 영단
- 법당, 종무소: 1,2층 각 20평씩 1동
- 요사채:1,2층 각 30평씩, 방6개, 1동
- 마을옆 산아래 물이 흐르는 도량
- 주차공간 넓고, 텃밭도 있음
- 가액: 1억 9천만원(융자1억포함)
- 새로 불사점안을 하실분에 한함

010-7144-006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온천장
- 평수 : 약 40평
- 방2개, 창고2개, 주방, 욕실
- 2층 건물에 2층, 에어컨 3대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 모든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011-9317-668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 3 방 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기도처로최고명당
- 가액 : 2억 3천만원

010-3138-489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면소재지 독점
- 자기땅에 자기건물 20평 주차공간넓음
- 삼존불,후불,신중,산신탱화,원목불단
- 집기몽땅넘겨줌,몸만오시면법회함
- 가액 : 4000만원(융자 1200만원 별도)
- 전화 후 방문(절충가능)

055)582-3397
017-722-775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가곡면
- 대지 300평, 법당 40평
- 요사채 60평, 방 10개, 화장실 3개
- 뒤는 기도처로 좋고 돌탑 앞에는 계곡물이 흐름
- 산신각, 심야보일러 2개
- 가액: 2억 2천만원 (융자 3,500만원 포함)

010-8993-3596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강릉시
- 부지: 2,500평
- 별도부지 230평(심야보일러) 사용가능
- 신축임법당 30평 외 3동
- 천연 약수 있음
- 가액: 3억(절충)
-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1-373-0697
011-9901-353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 평수 약 300평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방3, 거실, 주방2
- 가액: 3억 3천만원 (조절가능)

043)284-7763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 북구 천곡동
- 대지 : 총평수 4800평
- 대웅전 법당(목기와)
- 부대시설 : 문화 및 집회대형건물시설(6층)
- 건물 총평수 : 약 1400평
- 가액 : 60억(은행융자20억)

017-511-007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전망좋음
- 대지 300평, 법당 30평
- 요사 2동
- 가액: 4억
- 조계종 승적 스님 한

016-9677-4895

토굴터안내
- 위치 : 태백산 자락 현동
- 대지 및 준농림 임야
- 1700평
- 민가에서 4km 심산산골 해발 700m
- 정남향 도로 접, 정말 조용한 곳
- 가액: 3천만원
- 통나무집 지을 재목 충분함

011-721-5046

암 자 안 내
경남 영양 일월산 부근
청정지역 산세 아름다운 호숫가에 35년생 암자는 한옥 1동 16평
사용부지 약 100평은 50년전부터 임대조건
위 암자는 임법당으로 호조건이며 독가.
등기 원하는 분 제외합니다.
양도 가액 2900만원

010-3538-2211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
- 블록법당 10평, 방 7칸
- 종중땅, 텃밭있음
- 가액: 3천 8백만원

043)745-3010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공주 계룡산 동학사 입구 관광지 대도로앞
- 임대 전 월세 가능
- 평수 50평, 1,2층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150만원
- 전세 2억

010-3440-968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 4층건물 중 2층 약 40평
- 방3개, 주방, 화장실
- 아미타,관세음대세지,지장,소불250불
- 산신, 용왕, 신장, 칠성탱화, 인등 108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모든시설 A급 시설비 2천만원

010-7550-9797

토굴(급)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자인면
- 대지 126평
- 건평, 사용평수 70평이상
- 황토기와집 1동
- 조립식 3동
- 가액 : 1억

010-5572-150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성
- 고속도로 IC 근접, 교통편리
- 평수 230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 3억 5천만원

011-687-6276
031)672-1150

된장공장 인수할 분
- 위치 : 영월근교
- 산좋고 물좋고 경치 좋은 곳
- 땅 500평, 고급주택 1동, 공장1동
- 완벽한시설, 장독, 된장 포함
- 인수금액: 2억 5천만원

011-792-896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구미역 3분거리 시장옆
- 단독주택, 60평
- 건평 35평, 방3, 주방, 거실, 화장실2
- 안방화장실 별도, 생활편리
- 삼존불, 후불, 신중 탱화
- 보증 1천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1천 3백만원(약간 절충)

070-8981-0017
017-217-1919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남 하동
-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 3 방 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기도처로 최고명당
- 가액 : 2억 3천만원

010-3138-4897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9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6억 5천
- 위치 : 경남
- 부지 : 3,000평
- 법당 : 30평 외
- 요사 : 120평
- 가액 : 32억 7천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 최고위치, 최고시설
- 법당, 방 1개(친견실), 주방
- 평수 : 40평
- 전세금 : 1,5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는 답사 후 결정 (꼭 필요하신 분만 전화주세요)

010-7533-44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진구
- 당감시장입구 큰대로변
- 대지 62평, 3층건물 중 2층 32평
- 공양실, 주방, 욕실, 방3칸
- 3층 32평, 대법당
- 전세1억, 월세도가능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8257-54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의정부역에서 8분거리 대한생명옆 현재 운영중
- 약 80평, 5층건물의 5층
- 법당, 삼존불, 탱화, 집기일절, 방 2
- 거실1, 입식부엌1, 도시가스, 살림가능
- 화장실 남,녀 각 1개씩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인연이 되면 스님이나 보살님께 양도가능

011-588-823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오창에서 천안시 중간
- 부지 2000여평
- 법당: 목조 30평, 관음전 목조 25평
- 요사채 2층 건물 1동
- 1층건물 3동 (방 많음)
-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12억 5천만원
- 꼭 사실분만 전화주세요

011-412-2464

터 안 내
스님 신도님께 양도하고 싶습니다
서북풍을 막아주고 정남향터인
수도권 한시간 내에 들어갑니다
가평 북면

010-4847-743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수유동 화계사거리 대로변
- 4층건물 중 3층 약 40평
- 시설 A급, 삼존불, 신중
- 산신탱화 등, 집기일체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10-9354-989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 3 방 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기도처로 최고명당
- 가액 : 2억 3천만원

010-3138-4897

경관좋은사찰터안내
- 위치 : 영천시 화북면 상송리
- 부지 : 총 2만 2천평
- 도로 39호 지방도로 접, 전면 170M
- 옆 계곡 있음
- 청정한 계곡과 수려한 명당터
- 가액: 평당 4천 5백원 몽땅 9900만원

010-7246-010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심곡2동 (부천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부천 자유시장에서 3분거리)
- 4층 건물 중 2층 (40평)
- 삼존불 봉안(미타, 지장, 관음)
- 보증금 일천만원(월 60만원)
- 시설비 1,700만원 (즉시 법회 가능)

010-6227-596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조양동
- 총평수: 880평, 대지 380평
- 법당 목조 18평
- 요사채 40평,(콘크리트건물), 종각1개 약 1평
- 심야전기보일러. CCTV 설치되어 있음.
- 가액: 4억 5천만원

010-3112-3513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근교
- 법당 25평, 요사채, 방3개, 외부 화장실, 공양간, 상태 좋은 돌
- 대지 277평 외 사용가능 터 320평, 절 30년 됨
- 가액 : 1억 3천 5백만원

010-9290-5966

토 굴 안 내
- 위치: 경남 창녕 우포늪
- 대지 총 320평
- 법당. 조립식 24평
- 화실 24평(탱화제작)
- 요사,적벽돌기와27평,황토방4평,석탑1기
- 가액: 1억 8천만원(절충가)

010-6582-284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 대지 약 160평
- 건평 80평(1,2층)
- 방 6개, 목욕탕 2개, 주차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2800만원

010-3302-1821
055)638-1825

토 굴 안 내
- 위치: 창원시 의창구 용전마을 뒤
- 건물 2채, 인법당, 입식부엌, 방3칸
- 텃밭 50평
- 가액: 4년 임대료 1,000만원

011-9393-4965

토 굴 안 내
- 위치 : 거창군 남상면 임불리
- 면적: 총 93평
- 건평 20평, 창고 5평(별도)
- 가액 : 5,400만원

011-583-4204
055)944-4256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횡성 댐과 지방도로 인접
- 별장 및 굿당 최고적합
- 리모델링완벽 • 요사채2동
- 대지(등기상)1500평 실평수 2,000평
- 가액: 2억 9천만원

011-369-415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 대지 300평, 법당 40평
- 요사채 60평, 방 10개, 화장실 3개
- 뒤는 기도처로 좋고 돌탑 앞에는 계곡물이 흐름
- 산신각, 심야보일러 2개
- 가액: 2억 2천만원 (융자 3,500만원 포함)

010-8993-359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 3 방 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기도처로 최고명당
- 가액 : 2억 3천만원

010-3138-489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시내에서 7분거리)
- 대지 171평,건물단청, 수미단, 영단
- 법당, 종무소: 1,2층 각 20평씩 1동
- 요사채:1,2층 각 30평씩, 방6개, 1동
- 마을옆 산아래 물이 흐르는 도량
- 주차공간 넓고, 텃밭도 있음
- 가액: 1억 9천만원(융자1억포함)
- 새로 불사점안을 하실분에 한함

010-7144-006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 대지 약 160평
- 건평 80평(1,2층)
- 방 6개, 목욕탕 2개, 주차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2800만원

010-3302-1821
055)638-1825

토 굴 안 내
- 위치: 경남 창녕 우포늪
- 대지 총 320평
- 법당. 조립식 24평
- 화실 24평(탱화제작)
- 요사,적벽돌기와27평,황토방4평,석탑1기
- 가액: 1억 8천만원(절충가)

010-6582-2848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용성리
- 대지 200평, 바로 뒤에 산
- 임법당 1동, 산신각 1동
- 방4, 창고1, 공양간, 보일러실, 샤워실
- 가액 : 7천 5백만원

010-7377-357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구 수정1동
- 부산 진여 지하철 5분거리
- 총평수 70여평
- 법당 40평, 요사채(별채)30평
- 가액 : 2억 7천만원

010-2326-2176

사 찰 안 내
- 위치: 김천과 구미 중간, 김천시 남면
- 평수 532평 • 시설완벽
- 요사채 20평, 법당 20평, 공양간 20평
- 가액: 1억 6천만원

016-540-3313/054)733-7881
011-540-0027/054)453-1117

토 굴 안 내
- 위치 : 지리산
- 20평, 황토집
- 가액 2500만원

055)884-1491
010-2563-691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심곡2동 (부천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부천 자유시장에서 3분거리)
- 4층 건물 중 2층 (40평)
- 삼존불 봉안(미타, 지장, 관음)
- 보증금 일천만원(월 60만원)
- 시설비 1,700만원 (즉시 법회 가능)

010-6227-5965

도심속 사찰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만촌동 위치한 최고의 명당자리
- 2층 양옥, 평수 97평, 건물 54평, 마당 넓고 잔디밭
- 1층 : 법당 및 방4칸, 주거욕 (34평)
- 2층 : 방3칸, 주거욕(20평)
- 용도: 학원, 전통찻집, 갤러리샵 등 다용도 사용가능
- 특징: 정남향, 조용하고, 접근성이 매우 양호함
- 가액 : 5억 6천만원
- 현재 사찰 운영중

010-9583-9882

본 사람만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란다

수리아의 검-Ⅱ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이야기의 시작 – 운명과 예언 (8)


삽화 · 김흥인

마야가 그런 아들의 버릇없는 말투에 당황하자, 아베레는 신경 쓰지 말라는 듯 웃으며 말했다.

"호호. 그러고 보니 너하고도 요즘 통 만나지 못했겠구나. 아! 하지만 그래도 며칠 전엔 이제 곧 네 생일이라고 이야기 하던걸. 어쩌면 할아버지와 함께 멋진 생일 선물을 준비하 고 있는 지도 모르지."

생일이라는 말에 무니의 표정이 금세 어두워졌다. 마야도 마찬가지였다. 여전히 입가에 웃음기를 머금고 있던 아베레는 자신이 괜한 말을 했다는 걸 눈치 채고 겸연쩍은 미소를 지었다. 마야는 애써 웃어보였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지고 말았다.

한편, 오두막에선 난다가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수레바퀴를 보며 끙끙거리고 있었다. 나무 바퀴가 조금씩 움직이긴 했지만 도무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없었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또 할아버지 쪽을 바라봤지만, 그는 여전히 무엇인가를 쓰는 데 집중해 있어서 손자를 쳐다볼 틈조차 없는 거 같았다. 어쩔 수 없이 난다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수레바퀴에 온 정신을 집중해보려 애썼다. 그러나 역시 실패였다. 난다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다.

"보려고 애쓸수록 보이지 않는 거란다."

몇 시간 만에 들어보는 할아버지 목소리인가. 난다는 기쁜 마음에 할아버지를 쳐다봤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여전히 뭔가를 쓰고 있던 종이를 향해있었다.

"봐야 하니까 보려고 애 쓰는 거죠. 설명도 안 해주시고, 그냥 보라고만 하셨잖아요!"

난다가 볼멘소리를 했다. 며칠 전 무니와 만나고 돌아온 난다가 왜 자신만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자 할아버지는 대답은 하지 않고 대뜸 그 수레바퀴를 건네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때 그 달을 들여다봤을 때처럼, 이것도 한 번 보려무나." 그런데 보이는 것이 있어야 보는 법 아닌가.

"보이지도 않는 걸 자꾸 보라고 하시면서, 보려고 애쓰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면 저더 러 어쩌라구요. 답답해요. 차라리 재미없더라도 약초학 공부를 하거나 '침묵의 책' 같은 걸 읽는 게 낫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애쓰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게 지혜라는 것이지."

난다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점점 더 알아들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자 머리카락을 쥐어뜯기 시작했다. 정말 '으악!'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사실 그런 난다의 모습을 보는 유리 영감의 마음이라고 편한 것은 아니었다. 아이에게 분명 지식을 지혜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한다고 누누이 가르쳤다. 하지만 아이에게 지혜로 승화시킬 충분한 지식을 전해주지는 못했다. 게다가 '왜 무니에게는 아무 것도 가르치지 않냐' 는 난다의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의 생각과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지,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무니는 분명 예언의 그 아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계의 지식이란 것들이 그 아이가 진정한 지혜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 것일까. 그의 생각은 '아니다' 였다. 하지만 이게 올바른 선택이 될 지는 유리 영감도 알 수 없었다. 또한 예언이라든가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실현될 지도 말이다. 그는 운명이나 예언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이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닫혀 있는 가능성을 여는 것, 그것이 예언의 아이가 해야할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여기서 분명한 건 무니가 운명이라는 닫힌 문을 열 수 있게 만들 마지막 열쇠가 바로 난다라는 사실이었다.

난다는 이미 수레바퀴를 '보는' 건 포기하고 딴 생각에 빠져드는 중이었다. 그믐 밤, 뒷산에서 했던 놀라운 경험은 할아버지가 비밀이라고 하기도 했지만, 정작 누군가에게 말한다고 해도 절대 믿지 않을 이야기였다. 등불도 없이 거의 완벽한 어둠 속에서 할아버지가 '사무르 사뮤타.' 라고 외치는 순간 두 사람 앞으로 달이 떠올랐던 것이다. 하늘에서 사라진 달이 바로 자기 눈앞에 있었다라고 말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그 거대한 달이 자신의 한 눈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말이다. 그러나 아마도 무엇보다 사람들이 믿지 못할 것은 그 안에서 자신이 본 광경이리라. 맨 처음엔 시끄러운 소리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다음엔 기쁨, 분노, 슬픔과 즐거움이 눈앞을 빠르게 스쳐지나갔다. 그렇게 모든 것이 스쳐지나간 후, 다시 눈앞엔 커다란 달, 아니 달 '들' 이라고 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 분명 달은 하나였으나, 무수한 수의 달들이 또 그 안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정말 말로 설명하기 힘든 광경이었다. 달들은 서로 겹쳐지는 듯 보였지만 겹쳐진 것이 아니었고, 서로의 모습을 비추는 듯 보였으나 마주 보는 거울 속의 사물이 점점 작아지는 것처럼 그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은 크기와 형태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달 속에서 각각의 이야기들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었다. 여기서 또 놀라운 점은 난다가 어떤 하나의 달에 집중하지 않고도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그 무수한 이야기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순간에는 이해나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었다. 그냥 그 광경들이 그대로 흡수되는 느낌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난다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눈을 감아버렸다. 다시 생각이 있는 현실로 돌아온 것이다. 할아버지가 울고 있는 자신을 안아준 것도 바로 그때였다. 그는 난다의 눈물을 닦아주며 "너는 꿈을 본 거란다. 잠들지 않아야 볼 수 있는 꿈"이라고 부드럽게 위로하듯 말했다. 그러나 그 후로도 한참 난다의 눈물은 그치지 않았다. 그토록 슬퍼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꿈….' 난다는 속으로 그 단어를 발음해 보았다. 어쩐지 가슴이 다시 아파오는 거 같았다.

"또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유리 영감이 멍한 눈빛으로 앉아있는 난다의 머리를 콩하고 때리며 말했다. 전혀 부드럽지 않은 목소리였다. '그래, 지금 여긴 꿈이 아니지.' 난다는 생각했다.

"무슨 생각 때문에 그렇게 넋이 빠져 있던 게냐?"

"그 날이요, 할아버지. 그날 본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본 광경 중에 어떤 끝이 있었거든요. 무엇의 끝인지, 어디의 끝인지 알 수 없지만 무척 슬펐어요.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그 끝을 막고 싶었어요. 그건 정말 꿈일까요?"

유리 영감은 대꾸하지 않았다. 난다는 할아버지의 얼굴에 답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듯이 한참을 쳐다보다가 다시 물었다.

"도대체 제가 본 건 뭘까요? 분명 의미가 있을 거 같은데 모르겠어요."

유리 영감은 길게 숨을 들이켜고 난다를 바라봤다.

"글쎄. 그건 나도 모르겠구나. 그걸 본 건 내가 아니라 너이지 않니?"

난다는 여전히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울상을 지었다. 유리 영감은 그런 손자를 보며 말을 이었다.

"본 사람 만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란다."

독백과도 같은 어조였다.

잠시 후, 유리 영감은 난다 자신이 원했던 대로 '침묵의 책' 을 읽어보라고 시키고는 오두막을 나왔다. '침묵의 책' 은 아무 것도 쓰여 있지 않지만, 일단 펼치면 책을 읽는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내용들이 나타나는 신비의 책이었다. 하늘은 이미 붉은 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었다. 또 이렇게 하루해가 지다니, 새삼 시간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는 지 느껴졌다. 유리 영감은 손자가 읽다가 포기한 수레바퀴를 꺼내어 가만히 바라봤다. 은색 바퀴의 중심축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더니, 나무바퀴가 이번에도 여지없이 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아무래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그는 한숨을 쉬며 바퀴를 다시 손에 쥐었다. 붉게 물들어있던 하늘도 어느 새 보라색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유리 영감은 잠시 그렇게 먼 하늘을 바라보다가 다시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누군가 내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무니는 산딸기 과즙을 맛있게 마시고 있었다. 감회가 새로웠다. 작년 자신의 생일에도 바로 여기 난다네 집에서 이걸 마셨었지. 그 후로 누프르산은 근처에도 가지 못했었다. 그런데 오늘 유리 영감이 자신과 난다에게 누프르산에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고 한다.

"아버님은 무슨 생각이실까. 하필이면 오늘 거기로 심부름을 보내시다니 말이야. 그나저 나 난다는 또 늑장을 부리는구나. 얘, 난다야!"

아베레는 무니의 빈 잔에 다시 과즙을 부어주며 아들을 큰 소리로 불렀다. 그제야 난다가 가방을 들고 방을 나왔다.

"아니, 도대체 그 가방은 뭐니? 점심은 따로 싸줬잖아?"

그 모습을 본 아베레는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단숨에 잔을 비운 무니 역시 입술 끝에 묻은 달콤한 액체를 혀로 핥으며 친구의 가방을 쳐다봤다.

"그냥. 할아버지가 심부름하면서 보라고 주신 책이랑. 혹시나 작년처럼 그런 일이 발생할 까봐, 목도리랑 장갑 챙겼어요. 산은 춥잖아요."

그리고 무니를 향해 말했다.

"네 것도 하나 챙겼다."

"아무리 추워도 털목도리를 할 만큼은 아니야. 이상하게 왜 그래?"

무니가 대답했다.

"아. 몰라. 그냥. 내가 들고 간다는데 왜 다들 참견이야?"

"또, 또! 말버릇하고는!"

엄마가 주의를 주자 난다는 혀를 쏙 내밀더니 말꼬리를 다른 데로 돌렸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마구간에 가 계셔."

3000배 용맹정진

"한달에 딱 한번 건강 복받은 3000배 100%동참 후회않기"

청견스님 700만 배 절수행의 지혜로운 에너지!

부처님 크신 은혜 가피로 고통 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건강을 회복하고, 소원을 성취한 기슴 찡한~ 감동의 기적같은 엄청난 체험이 많습니다.

업장소멸의 관건은 지극하고 간절한 성스러움과 최고의 공경심으로 절하며, 전신의 노폐물, 독소, 나쁜 기운의 땀을 흘리면 괴로운 맘 소멸되고...

소원성취는 해맑게 미소 짓는 기쁜 얼굴로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대긍정의 감사염송을 온 몸과 맘에 가득 채우며 절하면 100% 성취된다.

⊙ 날 짜 : 2011년 4월 30일(토) 저녁 9시~2011년 5월 1일(일) 아침 7시
(절하는 법 교육 :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전)

⊙ 준비물 : 동참비 3만원
[필수준비물] 수련복:100% 면 소재 흰색상의, 회색법복·조끼, 방수포(신규동참자는 선물), 기도포(방석을 덮을 큰수건), 땀 닦는 수건, 면양말 2켤레, 발로해(절 수행 특수 덧신), 면장갑2개, 위생비닐장갑1, 목수건

⊙ 장 소 : 법왕정사 서울숲 법당 ☎02)456~0035
☞전철 : 2호선 뚝섬역 8번출구 직진 30m 좌회전 직진 150m 하나은행 5층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 교육도량 법왕정사

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순일 금강경 교실

부처님께서 금강경, 반야심경 및 초기불교경전을 통해 전해 주고자 하셨던 심오한 가르침의 정수를 한역본과 빨리어, 산스끄리뜨어 원문을 비교 분석하여 쉽고 상세하게 풀어 펼쳐주시는 순일 스님의 깨달음 교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울포교당 4월 23일 오전 11시 개강
매주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11~12시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4 더샵 스타파크 A-309

부산순일선원 5월 6일 저녁 8시 개강
매주 첫째, 셋째 금요일 저녁 8~9시 30분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47-2 2층
문의 070-4129-4127

*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은 수강료 5만원(산스끄리뜨어 교재비포함)을 농협:351-0184-5321-83(순일선원)으로 입금하신 후 070-7779-771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모집]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soonil.org]를 참조하세요'

사단법인 soonil.org 순일선원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166-3 T. 070-7779-7711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 (서포항 IC 10거리)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슴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목불 (약 250년),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 위주 전시) 일시관 외벽 만다라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바 있음.
■ 임야 10,500평은 대형저수지로서 2011년 2차선 공사가 완공되면 어떠한 명목으로 허가 가능함.
■ 임야 제외 34억, 사찰만 할 경우 32억
■ 상기 면적중 성취관(240평)의 불상 및 전시관에 조성자금 소요 자금만 받고 있음. (기타 일체 무료)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연 락 처 : 010-4504-0174

대덕스님께서 운영하시면 널리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대성공을 확신합니다.

특강 영가 찾는 법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역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간단한 원리로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무료공개강좌 – 4월 27일 (수) 오후 2시
5월 4일 (수) 오후 2시

1.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 어느 조상에게 빌어야 되나? – 대.세운에서도 발동한 것을 찾는 법
2. 기도를 하더라도 묶여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 가서 풀어야 된다.
3. 본 법을 알면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 수가 있다.
4. 무속인 보다도 더 정확하게 뽑아낸다.
5. 결혼하면 양가집 조상이 부딪치는 가정
6. 결혼이 안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 초보반 별도 모집

백 암 역 리 원
02) 597-1101. 011-9150-2284
노량진역(1.9호선)5번출구 동작구청 옆

석불 앞에 서면 올 것 같지 않은 그 시간이 또 흐른다



❻ 논산 관촉사(灌燭寺)



하얀 벚꽃이 반야산 기슭을 밝히고 있다. 일주문을 지나면 도량으로 오르는 돌계단이 오선지의 악보처럼 중간 중간 마디를 두고 숨을 고르게 했다. 마디마다 드리운 봄꽃의 그림자를 밟으며 돌계단을 오르면 영원보다 긴 시간 앞에 서있는 미륵보살님이 중생을 기다리고 있다. 관촉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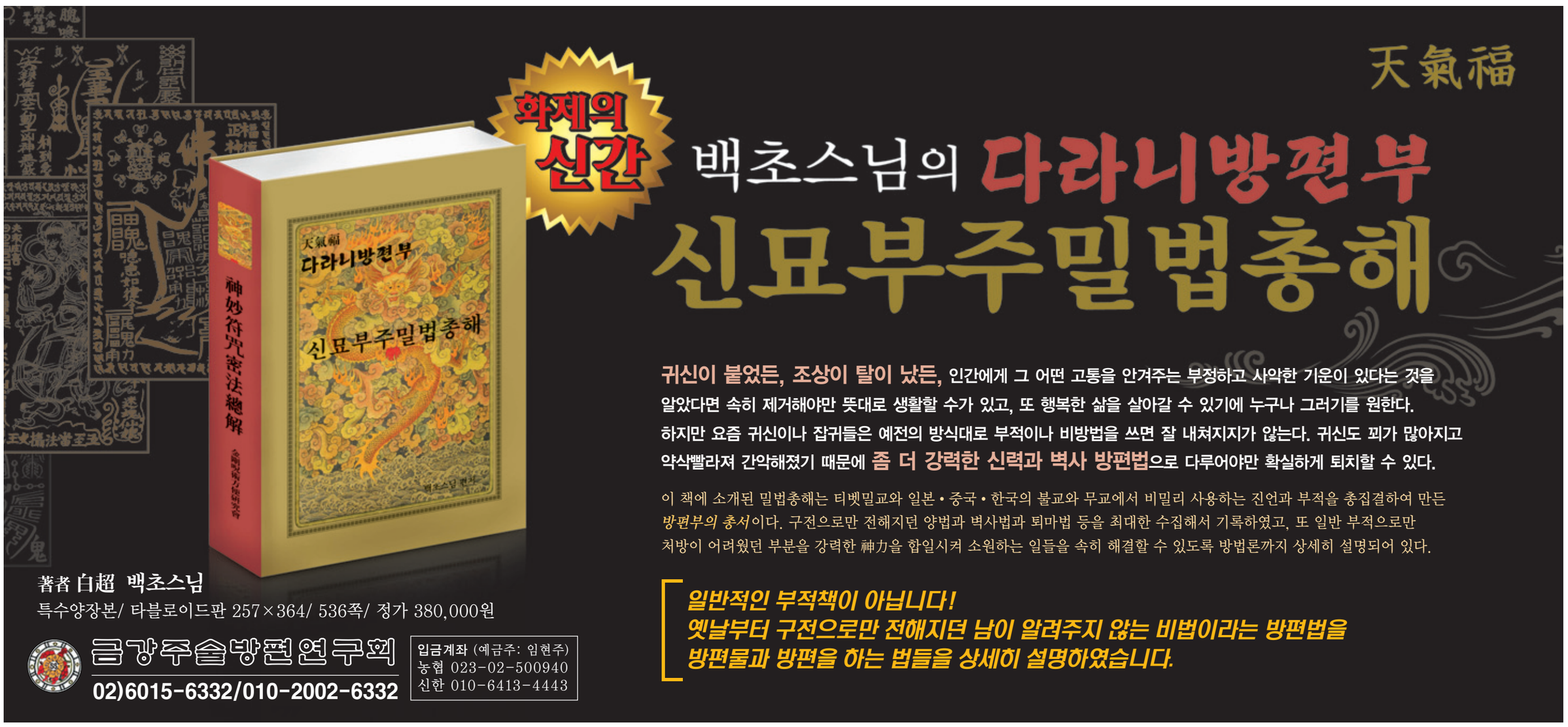
관촉사는 968년(광종 19)에 혜명(慧明) 스님이 불사를 시작하여 1006년에 낙성했다. 1581년(선조 14) 백지(白只) 스님이, 1674년(현종 15)에는 지능(知能) 스님이 중수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마당에는 높이가 18m에 이르는 거대한 석조미륵보살상(보물 제218호)을 비롯해 석등과 배례석 그리고 삼층석탑 등 신라의 불교미술과는 전혀 다른 고려 불교미술 작품들이 도량을 채우고 있다. 특히 석조미륵보살상은 신라의 불교미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롭고 파격적인 양식을 보여주는 불상으로서, 보는 이는 그 거대한 모습에 압도당한다. 그 거대함에 압도되고 나면 미륵불이 지닌 어마어마한 시간 앞에 또 한 번 압도당한다. '56억 7천만년.' 미륵불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다. 그 때까지도 제도되지 못한 중생이 있다면 그 때 사바로 오시겠다고 했다.

미륵보살님 어깨 위로 꽃비가 내렸다. 멀리서 보았던 벚꽃들이 봄바람에 꽃잎을 날리고 있다. 나뭇가지가 봄비에 젖고, 봄바람이 젖은 나뭇가지를 말리고, 그 마른 가지에 봄볕이 내려와 꽃잎을 틔우더니 그 꽃잎들이 다시 봄비에 젖고, 다시 봄바람을 맞으며 그 볕 아래서 지고 있었다. 시간은 그렇게 가고 있었다. 영원보다 긴 56억 7천만년은 그렇게 다가오고 있었다. 피는 꽃잎을 바라보고, 지는 꽃비를 맞으며 미륵보살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시 봄비가 지나갔다. 청솔모와 까치가 한가롭게 숲을 거닐고, 도량은 봄비에 젖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득한 시절로부터 시작된 미륵불은 아니었을까. 그 아득한 시간, 올 것 같지 않은 그 시간이 이미 2000년 전에 지나갔고, 또 다시 아득한 시간은 아득한 시간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 숲을 거닐던 청솔모가 벚나무 가지를 흔들어 꽃잎을 떨어뜨리고, 청솔모를 바라보던 까치는 미륵보살님 어깨에 날아와 앉았다.

잠 못 이룬 지난밤이 길었다면 오늘 관촉사에 가볼 일이다. 꽃비 속에 서있는 미륵보살님 앞에 서볼 일이다. 영원보다도 긴 그 시간 앞에 서볼 일이다. 길기만 했던 지난밤이 오늘 밤 또 올 것이기 때문이다. 보살님 어깨 위로 꽃비가 또 내리고 까치는 숲으로 돌아갔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타블로이드판 257×364/ 536쪽/ 정가 380,000원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2)6015-6332/010-2002-6332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신한 010-6413-4443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가 않는다. 귀신도 꾀가 많아지고 약삭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벳밀교와 일본 • 중국 • 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물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대행 스님

넘어지면 일어날 힘도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나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문) 자성을 깨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젖어 있는 습에 자꾸만 속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바르게 공부하고 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답) 그래서 부처님께도 모든 것에 속지 말라 하셨습니다. 환상에 속지 말라. 모든 거 일어나는 대로 나온 자리에다 되놔라. 이렇게 '방하착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업을 어떻게 해야만 되나. 우리는 모든 게, 안에서 나오는 거든지 또 오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든지,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주도 있고 생활도 있고 부처도 있고, 모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먼저냐. 여러분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부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지면 일어날 힘도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것을 다시 그 자리에 맡겨 놓아야 합니다. 생활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모두 놓지 않는다면 모든 그 업보를 녹일 수도 없거니와 하나하나 자기 그 모든 수십억 마리의 악업 선업을 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이 나오든지 선한 마음이 나오든지, 선하게 나오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악한 마음이 나오면 '내 주인공만이 나를 악하지 않게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또 잘되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병신 안되고 이렇게 성한 몸으로 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나'라는 아집을 버려야 하고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나라는 아집만 버린다면 거기 뭐 붙을 게 있겠습니까? 나라는 것만 죽는다면 뭐가 붙을 게 있습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놓고, 내 주인공에 나도 놓고 나오는 대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대로,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대로 거기에 끄달리지 말고 하나하나 놓는다면, 그 수십억 마리 중에, 즉 말하자면 육신 속에서는 간장 공장이니 위 공장이니 이자 공장, 방광 공장, 소장 공장, 대장 공장…. 이 공장이 많습니다. 이것을 지배할 수 있는 내 마음, 그 지배인 사장은 항상 두뇌로부터 사대로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거기에 놓는다면 하나하나가 자동적으로 진화돼서 보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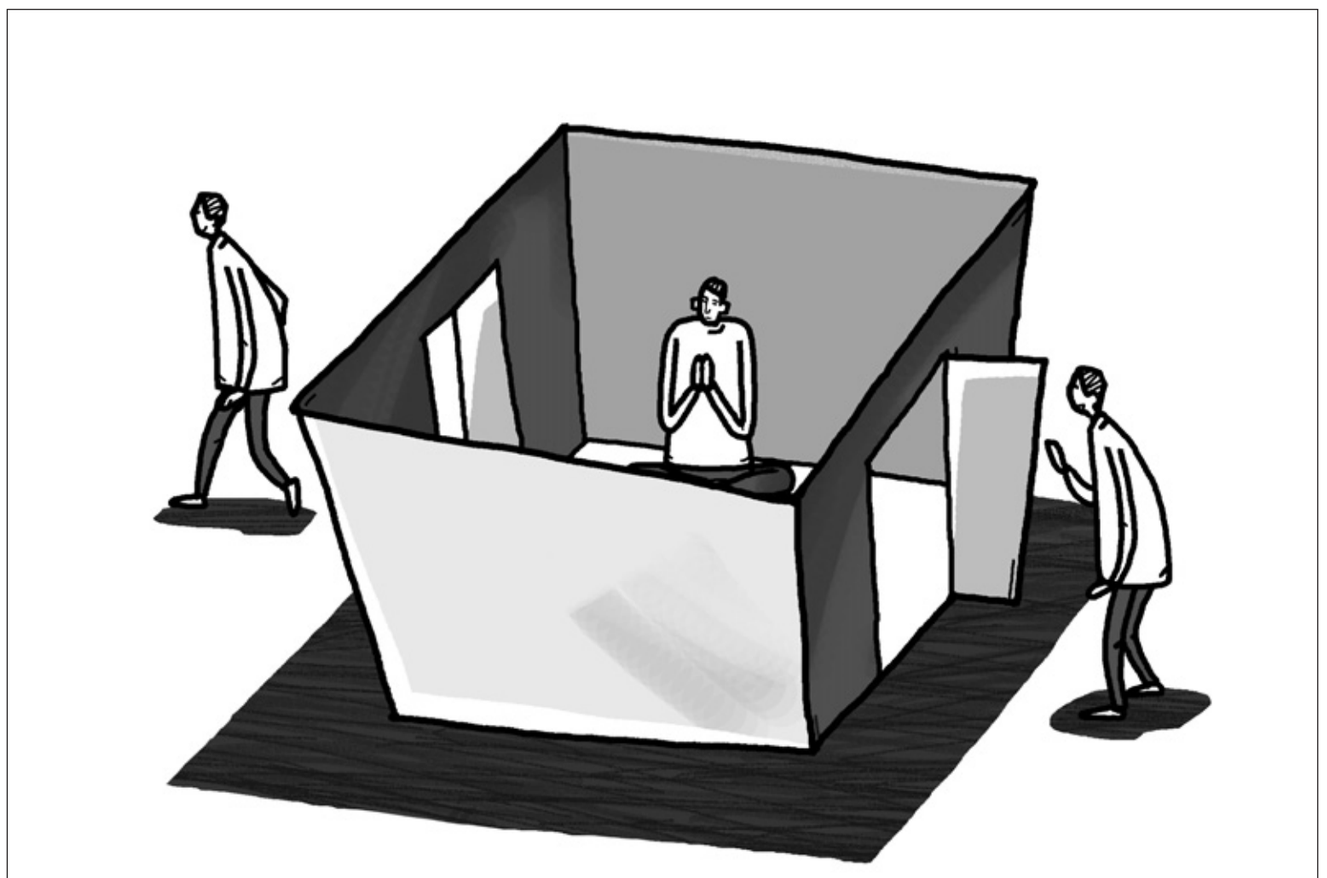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이 거기 놓지 않는다면 자기가 악업 선업 지은 대로 독 안에 들어도 면칠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하나 용광로에 쇠를 넣으면 새 쇠로서 생산이 돼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나가듯이 이 몸뚱이 속에 있는 그 중생들도 보살들로 화해서 털구멍을 통하고 목구멍을 통하고, 콧구멍을 통하고 귓구멍을 통해서 나고 들면서 보살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지 않는다면, 그대로 그것을 다 녹인다면, 그렇게 녹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철저하다면 우리가 아주 물이 없는 마른 땅에, 갈라진 땅에 물을 촉촉이 주는 거와 같다. 돌을 골라내는 거와 같고, 체로 치는 거와 같고, 또는 풀 뽑아 버리고 고렇게 해서 물을 잘 주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갈라지지도 않고 손색이 없이 싹이 나와서 바로 발현이 돼 가지고 자라서 열매가 열리고 물을 먹어서 만 가지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성을 깨치는 겁니다.

그것을 카세트로 비유한다면 카세트에 먼저 넣은 것은 나중에 넣은 것에 의해 없어지고, 또 넣으면 또 없어지고, 또 넣으면 또 없어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올 때 그 악업 선업의 그 카세트를 짊어지고 나온 것을 바로 그렇게 놓고 간다면 그렇게 비고 또 비고, 또 비고 그러니, 바로 여러분의 그릇이 항상 비니 어느 거라도 담을 수 있는 거고, 담으면 없어지고 하는 거와 같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놓지 않고는 절대로 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투가 거칠어 걱정입니다.

문) 스님께서는 항상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행을 하라 가르치시는데 사실 저는 말투가 거칠어서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사회생활 하는 데도 역시 손해도 많이 보게 되고 오해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 아들녀석이 꼭 저를 닮아 가서 걱정입니다.

답) 언젠가 흑인이 어린앨 낳아서 까만 사람이 까만 걸 끌고 가면서 까만 초콜릿을 먹이면서 가는데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속으로. '허허, 세상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어쩌면 저렇게 한 치의 에누리도 없을까.' 하고 말입니다. 흑인이 흑인을 낳지 백인을 낳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알면서도 '참, 철두철미하구나. 어쩌면 이렇게 철두철미할까.' 이 세상 만사가 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도 다른 거는 또 생각지 못합니다. 하나하나 내가 마음먹고 행하고 하는 것이 입력이 된다는 것을요.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요다음 생에 다시 진화돼서 바뀌지는데 바로 모습을 어떤 걸로 가져 나오게 될까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죠. 물론 나 같은 사람은 지렁이가 되든지 구더기가 되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말입니다. 삶은 다 똑같으니까 말입니다. 차원이 다르고 모습이 달라서 그렇지.

어떤 사람이 자식이 너무 불효를 저지르고 그래서 "저놈은 죽어서 꼭 소가 될 거야. 미련스럽기만 하고 말이야." 이러고 항상 그랬는데 아, 딴은 죽어서 소가 됐답니다. 소가 돼서 자기네 그 소 매놓는 데, 외양간이라 그러죠? 외양간에 새끼를 낳았는데 말입니다, 그 새끼가 그 어미한테는 안 가고 자꾸자꾸 그 주인 부부한테 자꾸 비비고 그렇게 매달리거든요. 아이, 매물을 주면 먹지 않고 말입니다, 콩이나 이런 거 그냥 쒀서 다시 줘야만이 이렇게 먹고 아, 이러니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는 어느 스님이 오시니까 하도 신기하고 이상해서 그 스님한테 여쭤 봤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소는, 당신이 죽으면 미련스럽게 소가 될 거라고 그러던 아드님입니다." 아,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너무나 엄청나고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러니 그 소는 소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저, 그 콩하고 짚하고 썰어서 삶는 거 있죠? 여물! 여물을 쒀서 먹이는 데도 새끼와 어미, 그것이 다 같이 먹도록 그 스님이 그냥 놔두라고, 그거는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받은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 길을 걸어봐야 알 바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는 그냥 그 소 모습을 가졌으니 소 행동을 해야지 별 수 있나요? 아무리 속으로는 '내가 사람이었는데….' 하더라도 소 허물을 썼으니 소 행동을 해야지 별 수 없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애탄지탄하고 사람들한테 발버둥이치고 하소를 하고 음메 음메 하고 애를 써도 그거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전연 다른 세계입니다.

☞ 30면으로 계속

"일이 잘 안 풀리시죠?"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성적은 안 오른다 구요?"
"평소엔 잘 하다가 시험만 보면 꼭 실수가 나오나요?"
"이유 없이 자꾸 아프시다 구요?"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아지질 않는다 구요?"
"사업을 벌이는 족족 망한다 구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 사주는 아주 좋다는데 왜 그러는지 답답하시다 구요?"



유남 탁대영원장



창천 백구빈원장

그렇다면 이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틀림없이 이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잘못 바꾸면 예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돼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제 한자 중심의 작명, 수리학 중심의 작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름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미성 이름 연구원에서는 세계최초로 30여개 성명학을 집대성한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작명을 합니다.
"이름이 당신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름 속에 희망, 꿈, 성공, 건강, 재물, 실패, 좌절, 절망, 부도, 파산,불행 등 모든 운명적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성명학 교실 제자모집
<상담 · 문의전화>
1600-0063
현재 불교 TV 광고 중
(10:30, 14:00, 18:00, 23:00)

이름의 중요성에 대한
<무료 강연회>
매주 토요일
11시 ~ 13시

자미성 이름 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6, 성지하이츠 3차 빌딩 409호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모든 거 일어나는 대로 나온 자리에 되놓으세요

☞ 29면에서 계속

그렇듯이 사람도 오늘 이렇게 사람으로 있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올지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영이란 본래 체가 없는 거라, 즉 말하자면 원자에서 입자가 수만 개로 퍼지듯이, 또 하나로 뭉쳐지듯이, 벌어지고 뭉쳐지고 이렇게 작용을 무수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주 전체가 돌아가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진화돼서 해 나온 과정을 증명하려면 모두 여러분의 몸속을 보십시오. 그게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나오는 그것이 여러분 속에 지금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 안에 들어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야, 네 몸인데 네 몸을 건강하게 끌고 다녀야지.' 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입력이 된다면 그대로 그 마음이 전체에 입력이 되는 것이죠, 의식들이. 그래서 나를 '아, 몰랐더니 이게 내 집이고 내 몸이래.' 하고선 모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바로 두뇌입니다. 마음이 바로 한 찰나에 두뇌로 올라가서, 즉 바른쪽 왼쪽의 그 작용의 핵심이 바로 누진입니다. 누진이 바로 사대로 통신을 합니다. 한마음으로 그렇게 알려지는 그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파워를 일으켜서 잘못하면 살이 굳어지고 세포가 굳어지거든요. 제 집이 없어지거든요. 제 집 망하는 거를 누가 좋아합니까. 제 집이 망가지는데 누가 좋아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는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마음의 주인이 없으면 그 의식들이 들고 나면서 그냥 뭐, 영계성이든지 무슨 세균성이든지 뭐 업보성이든지 유전성이든지 다 끌어들여서 파워를 일으키는데, 좋은 것도 끌어들이고 나쁜 것도 끌어들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 놓고 돌아가는 것을 만약에 이 주인공의 그 주장자를 완벽하게 세우고 공부를 할 걸 다 한다면 그 모든 게 그냥 삼시간에 바깥으로는 털구멍을 통해서 보살의 행으로서 화하게 되고, 안으로는 안대로 보살의 행으로서 화하게 되니까 천백억화신으로서 화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 이런다면 그냥 믿는 것만이 믿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우리가 행동, 말, 이 모두가 뜻을 다 갖추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뭐 자식들이 속을 썩인다 이러더라도 말로 하고 몸뚱일 잡아 가지고 때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을 붙잡아야 몸뚱이도 오지 마음을 붙잡지 않고 자꾸 욕을 하고 "아이구, 요놈의 새끼. 너는 배울 시기에 못 배우면 깡통밖엔 못 차." 이러고 갖은 욕을 하면서 불안을 격화시키고 온통 그냥 집안 식구들을 다 그냥 북북북북 긁어서 화를 내고 인제 이런다면 그것이 어떻게 입력이 안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말한 대로 그냥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아주. 그러고 그 사람은 자꾸, 뭐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누구를 막론해 놓고 자꾸 달아나갑니다, 추우니까. 보금자리가 너무 쌀쌀하고 추우니깐 말입니다. 따뜻한 데로 찾아가느라고 자꾸 달아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모든 거를 다 거기 맡겨 놓고 부드러운 뜻을 가지고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러운 행동을 한다면 같이 밝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밝게 살 수 있어요. 그건 스스로 경험해 본 사람들이 다 말을 할 겁니다.

죄의식이 없다면

문) 예전에 어느 스님께서는 죄도 없다고 말씀하시던데요, 만약에 죄가 없다고 한다면 죄의식이 없어서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답) 오히려 혼란이 아니 옵니다. 죄가 있다고 의식을 하면 '내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여지없이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자동적인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한 찰나죠!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을 가졌다면 그대로 그냥 될 것이고, 죄가 없으니깐 모두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한다면 그대로, 그대로 될 겁니다. 이 마음 하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하필이면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죄가 있다고 누가 말을 해 놨는진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가 스스로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건 안 지으려면 그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지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긴 공했단 말입니다. 자기가 한 사이가 없어요. 죄를 지은 사이가 없어요. 왜냐? 바로 자동차가 말입니다, 부딪쳐서 찌그러졌는데, 그 차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습니까? 어때요? 기름이 없어서 차가 안 가면 차가 잘못해서 안 가는 겁니까? 어디가 고장났으면 차가 잘못해서 고장났습니까? 우리 모습은 차와 같아서 자기가 한 사이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쁜 일을 하고도 내가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도 그건 나쁜 일 한 게 그대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자기한테 어떤 시련이 오겠죠. 그러니까 시련 오지 않도록 그저 편안하게 요량 있게, 좀 현명하고 어디든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유스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죄가 있다 없다 하지 마시고 그냥 사는 대로 관하시면서 너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꾸 관하세요.

어떠한 부당한 일이 있다 해도, 언젠가 회사를 잃고 한 남자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더군요. 취직을 하려도 취직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관하고 살면 다 되는 수가 있다고 그냥 그렇게 보냈지 뭐를 어떡합니까? 이 도리를 뭐 금방 알려줄 수도 없는 거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편지로 전후사를 써서 보냈더군요. 난데없이 어느 친구를 길에 오다가다 만나서 그 친구로 인해서 취직을 했다고요. 이것이 모두가 쪼그마한 일 같지만 한 가정의 문제가 어떤 집들은 자손들이 셋씩 벙어리, 육체 못 쓰는 사람, 또 머리가 이상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한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사는 겁니까, 그게?

하여간에 그런 도리 저런 도리 다 자기만이 할 수 있으며 또 구원을 청하는 거는 그 사람이 하기에 달렸죠. 그러니깐 될 수 있으면 관하는 걸 요량 있게 배우세요. 인생이 살아나가는 것이 그냥 물 흘러내려가듯 하니까 그냥 찰나찰나 화해서 자꾸 나투어서 그냥, 그냥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때에 죄를 졌다, 어느 때에 잘못했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가게 되는 것은 내가 여기 벌써 '과거나'와 '현재 나'가 둘 아니게 통해서 해 나간다면 외려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이익하게 보시하고, 음으로나 양으로나 정신계로나 물질계로나 보시하고 이렇게 나가지, 그렇게 나쁜 일을 안 하게 돼 있죠. 저절로 안 하게 돼 가요. 그런 겁니다.

> '나'라는 아집과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 나라는 것만 죽는다면 거기 뭐가 불을 게 있습니까!
> 내 주인공에, 나도 놓고
> 바깥에서 들어오는 대로
>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대로
> 끄달리지 않고 하나하나 놓는다면
> 그 하나하나가 보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해탈해야 업을 녹일 수 있지 않을까요

문) 스님께서는 주인공에 놓으면 업이 업을 녹일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제 경험으로는 그 업을 녹이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해탈을 해야 업을 완전히 녹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 이거 보세요. 아, 해탈을 했다면 녹이고 자시고 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업이 말입니다, 업은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본래 공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업 붙을 자리가 없어요. 병고도 붙을 자리가 없고, 마음이 체가 없는데 어떻게 병고가 붙고 업이 붙습니까. 그런데 모든 걸 체로, 이 물질로다가 생각을 하니깐 업을 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보가 뭐 그렇게 쉽게 녹아질 수가 있나 이러지마는 체가 없는 걸로 생각을 딱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이 물에다가 물을, 수천 방울을 바다에다가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수천 방울을 꺼내 내도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0)에다가 수천 영을 넣어도 두드러지지도 않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업이 있다 하더라도 영에다가 그 영을 넣으면 아무것도 두드러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꺼내도 또 줄지도 않아요, 그놈의 거는.

그러니까 업이 본래 붙을 자리가 없는데 모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붙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대로. 여러분이 그 관습에 의해서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붙어 있는 거지, 붙어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붙어 있겠습니까. 꿈을 꾸고도 사람들은 '아이구, 인제 죽었다. 이 꿈이 죽을 꿈이지 이게 살 꿈이 아니고 이게 다 무너질 꿈이야.' 이럽니다. 그러면 그렇게 무너질 꿈이기 때문에 무너져요. 그러나 무너지는 걸로 볼 때에 '응, 업이 다 무너져서 다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없느냐 이 소립니다. 좋게 생각을 하면 좋게 현실로 나올 것이고 언짢게 생각을 하면 언짢게 현실로 나와요. 꿈이 생시고 생시가 꿈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헌 쇠든지 새 쇠든지 쪼가리든지 간에 그냥 재생처로 들어가는 데는, 그 업을 녹이는 데는 어떠한 물건으로 돼 있다가 그냥 그 용광로에 넣는 작업만 하면 그냥 재생이 돼 나가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용광로에 들어가면 녹아서 그냥 재생이 돼서 나와요. 그 쇠로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쇠를 주문을 받는 대로 그냥 찍어서 또 내보내죠. 금도 그렇고. 만약에 목걸이라든가 반지라든가 그런 것도 끼었다가 좀 찌그러졌거나 또 돈이 없거나 그러면 금방으로 갑니다. 금방으로 가지 넝마전으로 가진 않죠. 금방으로 가면 금방에서는 목걸이 했던 것을 그 금을 녹여서 그 금양으로 이렇게 해 놓을 때에 반지로도 돼 나갈 수 있고, 팔찌로도 돼 나갈 수 있고, 별걸로 다 나가게 됩니다. 귀걸이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깐 자꾸자꾸 바뀌어서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을 올바로 이끌어 가려면…

문) 요즘은 청소년 문제도 심각하고 학교 교육에도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야 자녀들을 올바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답) 우리가 물질계의 자기 육신과 정신계의 안 보이는 자기를 둘 아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평화롭게 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정신계의 자기라는 거를 모르고 항상 자기가 껍데기인 육체만 자기라고 생각하고 살아 나가기 때문에 혼란이 많이 와요. 그래서 똑같은 자기가, 정신계의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깐 그 정신계에 주력하는 것은, 부모라는 거하고 자식이라는 거하고 이 전기로 치면 가설이 된 거와 같지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관해 줘도 이쪽 자식의 마음도 보이지 않는 영이고 또는 부모의 마음도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영과 영을 한데 합쳐도 둘이 아니거든요. 그런 반면에 그 자식의 마음에서도 불이 들어와서 올바르게 이끌어진다고 봅니다. 말로써 야단을 치고 때리고 해도 그것은 절대로 그게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육체를 끌고 다니는 거니까요.

그리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우리가 애들을 교육을 시킨다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교양도 필요로 하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부모가 이렇게 부모의 기일이나 부모를 섬기는 마음이 지극하다면 자식들도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부모가 싸우고 그냥 혼란을 일으키면 자식도 그걸 보고 배워서 그대로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부모가 돌아가셨든 살아 계시든, 잘 보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 자식을 인도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건선·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을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방부제,인공향유,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체질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다음까페 '아토피체험방' http//cafe.daum.net/yeoraewon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
여 래 원 원장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8875-5454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적 하 수 오'
묘 목 분 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적하수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문 의 : 010-8442-4444(상담) / 010-3534-8366(농장)
■ 묘목 재배 농장 :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176번지

불자 세상보기

꽃피는 아름다운 계절과 '신정아 사건'



김대열
동국대 미술학부 교수

4년 전 이 무렵 온 나라를 헤집어 놓았던 '신정아 사건' 이 그의 자서전 출간으로 다시 화젯거리다. 며칠 전 텔레비전 프로에 출연한 그녀의 언행을 보고, '꽃이 피는 의미' 도 '아름다움' 도 모르면서 어떻게 미술관계 일을 했는지? 참으로 애처로워 보였다. 스물 대여섯부터 미술관에서 근무한 그녀가 이제 30대 후반에 접어들었다니 그야말로 꽃다운 청춘을 위선과 허위, 과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말이다.

붓다는 꽃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진실' 을 가르쳐주셨다. '염화미소(拈花微笑)' 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며, 꽃들이 다투어 피는 데는 '생명 존재' 의 진실한 노력이 숨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꽃을 '아름다움' 의 최고 상징으로 여기는 것 아닌가?

그녀가 아직도 우리 앞에 서 스스로를 꽃과 같이 진실한 냥 말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견실하지 못하고 위선으로 가득하기 때문 아니겠는가?

교과서적인 이론을 빌자면 작가는 작품으로 말하고 전시기획자(큐레이터)는 기획의 임무에 충실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20여 년 전 중국의 개혁 개방이 한창이던 때, 당시 중국 미술계의 대가 이커란(李叶染)의 글 중에서 "요즘 젊은 작가들은 창작에는 20%정도만 할애하고 80%는 사교에 힘쓰고 있다" 라고 한 구절이 스쳐지나간다.

우리의 실정은 어떠하겠는가? 우리에게는 이런 경종을 울려줄 대가도 없으며, 화단의 어른, 원로의 말을 듣는 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렸다.

작가들이 작품의 창작 보다 대외활동에 더 치중해야 하는 세태가 되다보니, 글줄이나 쓰는 평론가나 전시기획자에게는 자연스럽게 작가들이 몰려든다.

공자는 "지위가 없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설 곳을 근심하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사람이 될 것을 힘쓸 것이다.(不患無位, 患所以立, 不患莫己知, 求爲可知也.)" 라고 논어, 이인편論語, 里仁篇)에서 말하였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알리고자, 자기 PR시대라고 외치면서 힘 있는 곳(?), 어디에든 사람들이 몰려다닌다.

이러한 세태가 결국은 신정아 같은 스타를 탄생시킨 것 아니겠는가?

미술품을 읽는 일, 작품을 평가하고 기획하는 것은 아무리 학문적 소양이 깊어도 눈과 마음으로의 판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랜 경험과 연륜이 요구되는 분야인데, 그 젊고 짧은 경륜으로 그런 일을 맡고 있었으니 대단한 실력자였나 보다. 그러면서 그녀는 미술계뿐만 아니라 정관계의 유명인사들과도 폭넓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 젊은 나이에 그녀가 경험한 우리 미술계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으며, 그가 가보지도 못했던 국내 대학 교수들의 면면을 어떻게 보았을까?

그녀의 인기(?)가 절정이던 무렵 각 대학에서는 서로 앞 다투어 그에게 강의를 맡겼다. 내가 재직하는 대학에서는 전임으로 채용했다가 후에 고초를 격기도 했지만, 한 때는 다른 대학, 다른 작가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훌륭한 교수 모셨다고. '신정아사건' 이 한참 붉어졌을 때,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 까지 펼친 대학교수도 있었으니 말이다.

그러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 '팔방미인(八方美人)' 이 되었으며, 성취 욕구는 끝없이 부풀어 가짜학위까지 만들어 결국 화를 자초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4년 동안 그토록 시련을 겪었으면서도 아직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들추어내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가련하고 측은하다.

공자는 "허물이 있는 것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허물이다.(過而不改, 是謂過矣)" (논어, 위영공편衛靈公篇) 라고 했다. 즉 허물을 고치면 허물이 없어지는데 고치지 아니하면 장차 그것을 고치는데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당당한 모습으로 보아 그녀는 '허물을 고쳐' '재능이 온전한 사람' , 그래서 만물과 더불어 봄의 기운 속에 노니는 아름답고 진실한 사람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제 우리의 '재능을 온전히' 하고 '허물을 고쳐' 세상을 어지럽히는 허위와 위선을 저 멀리 보내야겠다. 그러면 그녀의 재능도 온전하고 진실해질 것이며, 세상은 따뜻한 봄기운으로 가득하지 않겠나?

꽃피고 향기로운 봄, 붓다가 꽃을 들어 우리에게 '생명의 진리' 를 가르쳐준 의미를 깨우쳐야 할 때이다.

할머니의 천조각

사부대중 칼럼



김영훈
시나리오 작가

고교 시절, 시내에서 하숙을 하던 아버지가 방학을 맞아 버스로 한 시간 거리의 시골집으로 돌아간 날의 일이다. 때마침 농번기라 할머니는 집에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 평소 농사일과 집안일로 고생하시는 할머니를 돕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컸던 아버지는 할머니께 효도하려고 시키지도 않은 집안일을 시작했다. 나무를 해 오고 소여물을 끓이고 마당을 쓸고 안방 구석구석까지 청소하던 아버지는 장롱 밑에서 신문지로 꽁꽁 싸맨 주먹만한 천 조각 뭉치를 발견했다. 낡고 조각난 천들을 쓸모없는 물건이라 생각한 아버지는 신문지 째로 그것들을 아궁이에 던져 넣었다.

사건은 할머니가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터졌다. 아궁이에서 검게 타다 만 천들을 발견한 할머니가 "차라리 나를 태우지 그랬냐! 나를 태우지 그랬어!" 라고 하시며 오랜만에 만난 아들의 반가움이 무색할 정도로 크게 화를 내신 것이다.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할머니를 속상하게 만들어 무척 당황했다고 아버진 술회했다. 그 후로도 할머니가 그렇게 화내시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이 일화는 내게 퍽 인상적이었다. 당신의 인자했던 성정에 그런 모습도 있었나 하는 의아함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란 얼마나 상대적인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아버지에게는 쓸모없는 것들이었지만 옷감이 귀한 시절, 차곡차곡 모아온 그 천 조각들이 할머니에겐 너무도 소중한 물건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때로 자신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더 소중하고 그렇지 않은지를 질문 받을 때가 있다. 1위부터 순위를 매겨 본다면 반론의 여지없이 가족과 건강, 꿈, 친구와 연인, 돈 같은 항목들이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매겨본 순위표엔 스스로 생각해도 상당히 의외인 것들도 랭크되었다. 초등학교 시절 용돈을 모아 산 만화 '유유백서' 초판본,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양을 쫓는 모험' 153페이지, 지금은 절판돼버린 영화 DVD들… 미국 근대작가 존 G. 폴링은 자신의 유작에서 '소중한 것은 언제나 무거웠다' 라고 썼다. 그의 말대로라면 소중한 것들에 대한 내 목록의 절반 이상은 너무 가볍거나 상식선에서는 무게를 잴 수 없는 것들뿐인 것 같다.

길을 가는 백 명의 사람에게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고 묻는다면 그들의 목록에서도 몇 개쯤은 이와 같이 남들이 보기엔 코웃음 쳐지는 것들이 포함돼 있을 것이다. 평화와 박애 같은 관념에서부터 멸종 직전의 새끼 바다사자, 최신 맥북 같은 사소한 물건까지. 개개인들에게 소중함은 이만큼이나 상대적이다.

그런데 근래 전해지는 뉴스에선 누가 보아도 소중한 것마저 할머니의 천 조각 취급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한 듯하다. 46명의 장병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하고 벌써 1년이 지났다. 목숨에 값을 매길 수는 없는 일이지만, 정부와 유가족간의 합의를 통해 사망 장병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고, 얼마 전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추모제도 치러졌다. 그러나 생존 장병 수색에 뛰어들었던 금양호 9명의 선원들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고도 아직까지 정부와 사회의 어떤 보상과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다.

몇 년 동안이나 질질 끌어온 비정규직 문제 역시 우리 모두에게 할머니의 천 조각이 된 지 오래다. 해고된 쌍용 자동차 노조 조합원 14명이 사측과 정부, 언론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 병들어 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와 인디 음악인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 이진원 씨의 죽음 또한 무관심으로 무장한 사회 전체의 직무유기 때문에 소중한 목숨을 잃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부처님은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모두가 불성(佛性)을 지닌 하나라고 말씀하셨다. 타인과 내가 둘이 아니듯 내가 상대에게 행하는 것은 곧 나에게 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당연시 되고 배려가 귀찮은 것으로 치부되는 요즘,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당하는 이웃의 사정에 조금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풍조가 계속된다면 이와 같은 고약한 상대성 원리로 인해 나의 소중한 무언가도 누군가에게 할머니의 천 조각 취급을 받아 언제 아궁이 속에 던져질 지 모를 일이다.

社說

연등 하나 켤 때 이웃돕기도 한번씩

조계종 종무원조합 여성부가 취미로 시작한 뜨개질을 통해 작지만 큰 선행을 펼쳤다는 소식은 훈훈하기만 하다. 그들은 내 가족뿐 아니라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한땀한땀 뜨개질을 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33만원의 성금도 성북구에 위치한 미혼모시설 '달빛둥지' 에 전달키로 했다.

4월 23~24일 열린 불교108울트라마라톤대회에서 구미 대둔사 진오 스님과 대구 상락선원 혜문 스님은 이주노동자 토안을 돕기 위해 108km를 뛰었다. 두 스님은 1km를 달릴 때마다 후원자들을 통해 100원씩 적립해 모인 후원금을 토안에게 전달한다.

부처님오신날이면 빈자일등(貧者一燈)를 되새기게 된다. 빈자일등은 부처님에 바치는 가난한 사람의 정성어린 한 등이 부자의 1만 등보다 낫다는 내용이다. 난타 여인의 스토리를 되새기며 불자들은 어려운 호주머니 사정에도 등을 밝혀왔다. 올해에도 불자들은 전국 사찰에 연등을 켤 것이다. 연고 있는 여러 사찰에 연등을 켜는 불자들도 상당할 것이다.

올해는 부처님 전에 연등 하나 켤 때마다 내 이웃을 위한 기부도 함께 하면 어떨까? 1배 100원, 108배를 통해 모아진 금액을 기부하는 것도 좋겠다.

불기 2555년, 올해의 봉축표어는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 이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만큼은 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씀씀이를 수행 삼는 부처님오신날이 되자. 작지만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부처님오신날이 되자.

전국의 밤하늘을 환히 밝히고 있는 연등처럼 우리의 가슴, 이웃의 가슴마다 나눔과 실천의 불씨를 피우는 부처님오신날이 되기를 기원한다.

주민자치센터서 선교무용 금지해야

본지 취재 결과, 서울시 주민자치센터 일부에서 선교무용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확인된 곳만 강동구 성내2동과 강동구민회관 등 2곳, 동작구 노량진동과 중랑구 상봉1동 주민자치센터는 동호회 활동 명목으로 선교무용을 위한 장소를 제공했다고 한다. 곳에 따라서는 한국무용이라는 이름으로 찬송가를 활용한 무용 교습을 하고 있었다. 이쯤 되면 주민자치센터인지 교회 강당인지 구분이 안간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주민자치센터 관련 공무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선교무용 프로그램 운영과 장소 제공이)문제가 될지는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선교무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항변했다. 선교무용 동호회에 공간만 빌려주는 것뿐이라는 해명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종교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에는 고운 시선을 보내기 어렵다.

불교계가 나서 주민자치센터에서의 선교무용을 금지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지침까지 만든 마당에 왜 담당공무원이 "몰랐다"고 해명하는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선교무용 프로그램을 개설케 한 배경과 원인이 무엇인지도 살펴봐야한다.

주민자치센터에서의 선교무용 프로그램 운영은 무엇보다 불교계의 도심포교 부진과 실패에 그 원인이 있지 않은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효도선물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글로코에이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엘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택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평범한 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다. 억지로 잘 하려고 하지 말라. - 임재록 -

디지인 특허 : 제 30-2011-0010353 / 제 30-2011-0010355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新 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스님 및 여러 불자님들이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신제품 를 개발하였습니다.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구성되어 있어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든 신개념 제품입니다. 특히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제품문의 :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아름다운 등



공 단 등 | 오색공단등 | 팔각접등 | 만월등 | 종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윤장대 인등



용학사 목련관 위패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大 小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앞면 뒷면

호신불규격 직경 : 3.5cm, 세로 4.5cm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자동차용 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차량사고 예방과 생명보호의 필수품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 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 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아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 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45,000원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